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A Direc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in Fisheries
Following the Launch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2016. 12.

정명화 · 조정희 · 문석란 · 김세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정명화: 연구총괄, 제1장~제6장

〈연구진〉

조정희: 제3장

문석란: 제2장 3절

김세인: 제4장 2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김영수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협력원 과장)

나희량 (부경대학교 교수)

장영수 (부경대학교 교수)

곽성일 (대외경제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고 (한아세안센터 부장)

도윤정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연구감리자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발간사

중국이 여전히 세계 경제시장에서 신흥시장의 골리앗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세계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들이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시장으로 점차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1967년에 설립된 아세안은 국민 1인당 소득이 5만 달러가 넘는 싱가포르에서 아직 1,000달러 정도인 최빈개도국 라오스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 정도가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고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6억 3천만 명, 국민총생산 2.6조 달러로 세계 7대 시장인 아세안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6% 이상 성장하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킴에 따라 세계 경제의 미래 성장을 이끌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아세안 수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부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기존에 수산물 원료 공급기지 역할을 해 왔던 아세안은 단일 생산기지 및 역내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통해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가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 중소기업이 아세안에 기진출한 다국적 기업과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글로벌식품가치사슬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세안의 변화와 기회에 대응한 국내 수산업의 효과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인식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경제공동체 활용을 통한 미국, 중국 진출 등의 중장기 전략 마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대응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아세안이라는 큰 숲을 고려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아세안 개별 국가의 수산분야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아세안 전체의 수산분야 정책을 고려한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고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책임을 맡은 수산연구본부의 정명화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에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부경대학교 장영수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곽성일 박사님, 한아세안센터의 이동고 부장님, 해양수산부 도윤정 사무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보고서의 집필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으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본원의 류정곤 선임연구위원과 이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양 창 호

목 차

약어표기	I
연구성과 요약	iii
Executive Summary	vii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3.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과의 차별성	6
제2장 아세안경제공동체 현황과 수산분야 경제협력	14
1.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추진 배경 및 동향	14
2. 아세안의 수산분야 경제통합 현황	28
3. 아세안 수산물 교역현황	35
4. 아세안 수산분야 투자 현황 및 제도	43
5. 시사점	51
제3장 주요국의 AEC 대응 수산분야 경제협력	53
1. 일본	53
2. 중국	62
3. 한국	73
4. 시사점	87

제4장 AEC 출범과 국내 수산기업의 인식도 조사 89

- 1. 조사 개요 89
- 2. 조사 내용 90
- 3. 시사점 103

제5장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추진 전략 105

- 1. 수산분야 경제협력 여건 분석 105
- 2. AEC 대응 수산분야 경제협력 기본방향 120
- 3. AEC 수산분야 통합 전략 121
- 4. AEC 활용 극대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 전략 123
- 5. AEC 활용 수산식품 가치사슬 구축 전략 12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7

- 1. 요약 및 결론 127
- 2. 법·제도 정비 130
- 3. 거버넌스 및 조직 정비 132
- 4. R&D 지원 135
- 5. 추진로드맵 136

참고문헌 138

부 록 143

표 목 차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0
〈표 2-1〉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주요 연혁	19
〈표 2-2〉 아세안경제공동체(AEC) 4대 중장기 추진 목표	20
〈표 2-3〉 AEC 주요 목표와 이행 수준	20
〈표 2-4〉 아세안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전략적 행동계획과 지역협력 이니셔티브	26
〈표 2-5〉 PIS 로드맵의 주요 내용	29
〈표 2-6〉 천연자원기반 산업의 관세철폐 대상 품목	30
〈표 2-7〉 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관세철폐예외 품목수(2014년 기준)	30
〈표 2-8〉 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통합 로드맵 주요 내용과 이행현황	30
〈표 2-9〉 수산분야 비관세장벽(NTB) 관련 주요 정책 및 이행계획	32
〈표 2-10〉 아세안 전체 상품과 수산물 교역규모 비교(2005~2014)	35
〈표 2-11〉 아세안 수산물 무역수지 변화(2011~2014)	37
〈표 2-12〉 아세안 역내 및 역외 수산물 교역	38
〈표 2-13〉 아세안 회원국의 연도별 역내 수산물 수출액(2010~2014) ...	39
〈표 2-14〉 아세안 회원국의 연도별 역내 수산물 수입액(2010~2014) ...	40
〈표 2-15〉 아세안 FDI 유입액 동향	44
〈표 2-16〉 투자국별 아세안 FDI 동향	46
〈표 2-17〉 아세안 회원국별 수산분야 투자 제도	50
〈표 3-1〉 아세안 접근성에 관한 마스터플랜과 일본의 15대 프로젝트 ·	55
〈표 3-2〉 일본 글로벌식량가치사슬전략 마련과 관련한 주요 일정	57
〈표 3-3〉 일본의 대아세안 식량가치사슬 구축 관련 주요 성과	60
〈표 3-4〉 중국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액 추이	63
〈표 3-5〉 중국의 대아세안 주요 수출 수산물	64
〈표 3-6〉 중국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입액 추이	65
〈표 3-7〉 중국의 대아세안 주요 수입 수산물	65

〈표 3-8〉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5개 핵심 분야	68
〈표 3-9〉 ‘중국·아세안 해양협력기금’ 1차 승인 프로젝트 리스트	69
〈표 3-10〉 중국 대아세안 해상실크로드 추진 현황	70
〈표 3-11〉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별 협력 현황	72
〈표 3-12〉 우리나라 FTA 체결 및 추진 동향(2016년 3월 기준)	73
〈표 3-13〉 한·아세안 FTA의 우리나라 수산물 양허 내용	75
〈표 3-14〉 한-아세안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2005~2015)	76
〈표 3-15〉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2010~2015)	77
〈표 3-16〉 아세안 주요국의 수산물 평균 수입 규모	78
〈표 3-17〉 대베트남 수산물 수입 품목의 변화	78
〈표 3-18〉 대태국 수산물 수입 품목의 변화	79
〈표 3-19〉 對ASEAN 상품형태별 수산물 수입 동향	79
〈표 3-20〉 對ASEAN 상품형태별 수산물 수출 동향	80
〈표 3-21〉 인도네시아(기지트룰) 어장 개척	80
〈표 3-22〉 국가별 업종별 원양어업 관련 사업체 현황(아세안 지역)	85
〈표 4-1〉 조사 설계	90
〈표 4-2〉 수산기업의 조직규모별 주요 수출 품목	93
〈표 5-1〉 2016년 수산물 수출지원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107
〈표 5-2〉 해외수산시설투자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109
〈표 5-3〉 해외수산시설투자사업 실적	109
〈표 5-4〉 원양어업의 해역별 생산	114
〈표 5-5〉 아세안 대상 국가 연수생초청 사업	115
〈표 5-6〉 아세안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전략실행계획(2016~2025) ·	118
〈표 5-7〉 아세안 국가의 1인당 GDP와 전망	119

그림 목 차

〈그림 2-1〉 아세안공동체의 주요 내용	18
〈그림 2-2〉 아세안 국가의 관세인하 추이	22
〈그림 2-3〉 아세안의 역내 이주 인력 규모	24
〈그림 2-4〉 아세안 수산분야 비전(2016~2025)	35
〈그림 2-5〉 아세안 전체 상품과 수산물 교역 추이(2005~2014)	36
〈그림 2-6〉 아세안 수산물 무역규모 및 수출입 추이	37
〈그림 2-7〉 아세안 수산물 교역 추이	38
〈그림 2-8〉 태국의 수산물 수출대상국	41
〈그림 2-9〉 태국의 수산물 주요 수입대상국	41
〈그림 2-10〉 태국의 품목별·국가별 역내 수출	41
〈그림 2-11〉 태국의 품목별·국가별 역내 수입	41
〈그림 2-12〉 인도네시아의 수산물 수출 대상국	42
〈그림 2-13〉 인도네시아의 수산물 주요 수입대상국	42
〈그림 2-14〉 인도네시아의 품목별·국가별 수산물 수출	42
〈그림 2-15〉 인도네시아의 품목별·국가별 수산물 수입	42
〈그림 2-16〉 아세안 FDI 유입국 (2013년 기준)	45
〈그림 2-17〉 對아세안 FDI 투자국(2013년)	45
〈그림 3-1〉 일본의 대아세안 지역 경제개발축	54
〈그림 3-2〉 일본-아세안 우호협력에 관한 비전 선언문의 주요 내용	55
〈그림 3-3〉 일본 식량가치사슬(FVC) 개념도	58
〈그림 3-4〉 일본의 할랄식품 가치사슬 구축 개념도	59
〈그림 3-5〉 중국 대아세안 수산물 교역 추이(2000~2015)	62
〈그림 3-6〉 중국의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67
〈그림 3-7〉 중국-ASEAN 수산물교역센터 전경	70
〈그림 3-8〉 중국의 대아세안 해양수산협력 핵심 지역	71

〈그림 3-9〉 한-아세안 수산물 교역 및 무역수지(2005~2015)	76
〈그림 3-10〉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연도별 투자 현황(1980~2015) ·	81
〈그림 3-11〉 대아세안 업종별 수산분야 투자(1980~2015)	82
〈그림 3-12〉 한-대아세안 국가별 수산분야 투자(1980~2015)	82
〈그림 3-13〉 인도네시아 연도별 투자액 추이(1983~2015)	83
〈그림 3-14〉 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액 추이(1983~2015)	84
〈그림 4-1〉 응답업체의 3년 평균 매출액	90
〈그림 4-2〉 응답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	91
〈그림 4-3〉 응답업체의 아세안 주요 교역 대상국	91
〈그림 4-4〉 아세안 국가와의 수산분야 경제 협력	92
〈그림 4-5〉 주요 수출품목	93
〈그림 4-6〉 주요 수입품목	93
〈그림 4-7〉 AEC 인지 및 정보 소유 여부	94
〈그림 4-8〉 AEC 출범 정보 습득 경로	94
〈그림 4-9〉 AEC 출범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정도	95
〈그림 4-10〉 AEC 출범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세부 요인	96
〈그림 4-11〉 아세안 출범으로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는 국가 ..	96
〈그림 4-12〉 아세안 국가 중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 예상 국가	96
〈그림 4-13〉 AEC 출범과 영향	97
〈그림 4-14〉 AEC 출범과 수산물 수출시 예상되는 혜택	97
〈그림 4-15〉 AEC 출범과 수산물 수출시 예상되는 어려움	98
〈그림 4-16〉 AEC 출범과 수산물 수입 영향	98
〈그림 4-17〉 AEC 출범과 수산물 수입시 예상 혜택	98
〈그림 4-18〉 AEC 출범과 수산분야 투자 확대 여부	99
〈그림 4-19〉 향후 투자형태	99
〈그림 4-20〉 향후 투자계획 여부	100
〈그림 4-21〉 수산투자 분야	100
〈그림 4-22〉 AEC 출범과 아세안 시장 활용	100
〈그림 4-23〉 아세안 수산물 교역시 겪는 애로사항	101
〈그림 4-24〉 아세안 교역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102
〈그림 4-25〉 아세안 수산투자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102

〈그림 5-1〉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위한 SWOT 분석	111
〈그림 5-2〉 원양어업 생산량 추이	113
〈그림 5-3〉 원양어업 생산액 추이	113
〈그림 5-4〉 대아세안 지역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유형별 지원(2011~2014) ·	115
〈그림 5-5〉 아세안 역내 수산물 단일 생산기지(가상 시나리오)	116
〈그림 5-6〉 AEC 대응 우리나라 수산분야 경제협력 기본방향	120
〈그림 5-7〉 아세안 수산 생산거점(안)	121
〈그림 5-8〉 아세안 수산 제1생산기지의 개요	122
〈그림 5-9〉 아세안 수산 제2생산기지의 개요	123
〈그림 5-10〉 AEC 대응 수산분야 경제협력 추진 로드맵	137

약어표기

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아세안포괄투자협정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경제공동체
 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아세안서비스협정
 AFT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HN (ASEAN Highway Network) 아세안 고속도로 네트워크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A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W (ASEAN Single Window) 아세안단일창구
 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ATR (ASEAN Trade Repository) 아세안거래정보저장소
 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의 약어
 CEPAs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공동유효특혜관세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연산가능일반균형
 CLMV (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어젠다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체
 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경제수역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GAqP (Good Aquaculture Practice) 우수양식수산물관리기준
 GFVC (Global Food Value Chain) 글로벌식량가치사슬

GSCs (Global Supply Chains) 글로벌공급사슬

GVC (Global Value Chains) 글로벌가치사슬

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아세안 접근성에 관한 마스터플랜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상호인증협약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NSW (National Single Window) 국가단일창구

NTR (National Trade Repository) 국가무역정보저장소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
기구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파트너십

ROO (Rules of Origin) 원산지 규정

RVC (Regional Value Chains) 지역가치사슬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연구성과 요약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1. 연구의 목적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아세안 단일 시장과 단일 생산기지를 활용한 국내 수산분야의 해외 진출 확대 도모와 수산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본 연구의 목적임
- 아세안 수산부문 경제통합 정책 분석, 아세안 역내 수산물 교역 및 투자 구조 분석, 우리나라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실태 및 기업의 아세안 경제공동체 인식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추진 방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표〉 본 연구 방법의 특징

특징	주요 내용	자료수집	방법론 선택 이유
기초분석	-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추진동향, 수산분야 경제통합 동향 - 일본, 중국 정부의 수산분야 대아세안경제협력 전략 분석 -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경제협력 실태 분석	- 관련 문헌조사 - 해외 사례조사	- 국내 관련 연구가 미흡하여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 환경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설문조사	- 국내 및 아세안에 진출한 수산기업의 AEC 인식도 조사	- 국내 및 아세안에 진출한 수산기업 설문 조사	- AEC 출범을 계기로 아세안 지역과 수산물 교역을 확대하거나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대응 전략 마련
전문가 자문 및 아세안 진출 기업 면담	- 아세안 수산분야 통합에 따른 향후 교역 및 투자 전망 - 아세안의 수산분야 협력수요에 대한 심층 면담 - 아세안 진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 전문가 자문 - 기업체 면담 조사	- AEC에 대응한 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제시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업계의 심층 면담 - 기존 정책의 개선사항에 초점을 맞춰 기존 연구의 한계 해소

2) 연구의 특징

- 최근에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수산분야 경제통합 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을 통합적으로 검토함
- 국내 기업의 AEC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의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아세안 단일 시장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아세안 거점 해외 진출전략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아세안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제협력을 심화시켰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출범시킴
- 아세안은 단일 시장과 단일 생산기지,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균형 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실현해 나갈 계획임
- 아세안의 주요 수출품목인 수산물이 우선통합산업(priority integration sectors, PIS)에 포함되면서, 아세안은 수산물의 역내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의 수산분야 국제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일본은 이러한 변화·발전하는 아세안 시장을 활용하여 자국 내 수산자원의 안정적 공급,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와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교역은 2007년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무역수지 적자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아세안 수산분야 투자 규모와 투자 범위도 확대되는 등 한-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음. 품목별로는 새우류, 꾸꾸미, 기타 어류 등의 조제

가공 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투자는 인도네시아 중심의 원양어업에서 미얀마, 베트남의 내수면 양식과 수산냉동 제조업 분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 국내 수산 기업의 아세안 AEC 출범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향후 AEC 활용 및 아세안의 수산분야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특히 아세안을 활용한 미국, 중국 등 역외 시장 진출 가능성의 확대,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가 수산물 소비 증가로 이어져 많은 수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평가함
- 그러나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인해 아세안 역내 수산물 원료 확보 경쟁 심화 및 아세안에 기진출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 심화를 우려하였음
- 아세안 시장 정보 제공 강화, 아세안에서의 민관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세안 시장 진출을 통한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국내 기업의 아세안을 거점으로 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함
- 아세안의 다양성을 고려해 산관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의 대아세안 시장 진출 지원, 대아세안 수산분야 정보수집 체계 강화, 아세안 역내 수산 인프라 지원 강화, 아세안 거점 수산물 공급체인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음
- 또한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세안 진출 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가칭) 한-아세안수산협력센터 국제기구 설립 등을 제안하였음

2) 정책적 기여

- 국제 사회에서 점차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의 전략적 활용 통한 국내 수산물 공급 시장의 안정적 확보
- 국내 민간부문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통한 수산분야 경제 영토 확대

3) 기대효과

- 향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아세안 수산분야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아세안 회원국의 수산분야 생산 네트워킹 분석 통한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 도모
- 아세안의 수산분야에 대한 전략적 경제 협력 통한 아세안 역내 경제격차 해소 및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중견국 입지 강화에 기여함

Executive Summary

A direc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in Fisheries Following the Launch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ure stable fisheries resources and to expand the advancement of Korean fisheries sector into overseas market. With this aim, Korean fisheries sector intends to utilize an ASEAN single market and one production base following the launch of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 It suggests mid-to-long term policy direction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following result; which includes the analysis of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in ASEAN fisheries sector, the analysis of intra-ASEAN fisheries trade and investment structure, Korea's economic cooperation status in fisheries sector with ASEAN and the survey of companies' awareness on AEC.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Feature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s for selection
Basic analysis	- Trends of implementing AEC and the trends of economic cooperation in fisheries sector - Analysis of the Japanese and Chinese governments'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with ASEAN in fisheries sector - Analysis of Sou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status with ASEAN	- Literature review - Case studies	- Basic environmental analysis and foreign case studies due to the lack of related research in Korea
Survey	- Survey on Korean fisheries companies' awareness of	- Questionnai	- After the launch of AEC, the study provides an

Feature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s for selection
	AEC that entered or will enter into ASEAN markets	re survey analysis	appropriate strategies for the companies that intend to make inroads to or expand the trade with ASEAN region
Expert consultation and interview with companies that entered ASEAN	- Outlook of ASEAN fisheries trade and investment following the launch of AEC - In-depth interview on the cooperation demands of ASEAN fisheries sector - Finding out specific difficulties of companies that entered ASEAN market	- Expert consultation - Interview with companies	- In-depth interview with industrial experts to present an economic cooperation direction for ASEAN fisheries sector in response to AEC -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by focusing on the improvements of existing policies

2) Features

- Intensively analyzing the newly launched AEC's economic cooperation policy in fisheries sector, the study carries out a comprehensive review on the economic cooperation of Korea-ASEAN fisheries sector
- Based on the survey result of Korean companies' awareness on AEC, the study presents policy improvement measures. Also, it suggests domestic companies' strategies to make inroads into foreign markets based on ASEAN as well as supporting plans.

3. Results

1) Summary

- Going through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ASEAN has intensified the economic cooperation. In December 2015, it launched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in order to respond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 ASEAN plans to realize mid-to-long term goals of creating a single market, single production base, competitive economic zone, achieving balance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y

-
- Since fishery products are one of the ASEAN's major export items, they are included to priority integration sectors. Therefore, ASEAN gives priority to eliminate regional tariff on fishery products and alleviate non-tariff barriers. As a result, ASEAN's global competitiveness in fisheries sector is expected to increase.
 - Tapping into this changing and ever-developing ASEAN market, China and Japan aim to secure stable supply of fishery resources and promote their companies to advance into foreign markets. To do this, the two countries are increasingly strengthening the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with ASEAN countries.
 - Since the conclusion of Korea-ASEAN FTA in 2007, South Korea's trade deficit with ASEAN has been expanding in fishery products. Also, the size and scope of Korea's investment with ASEAN in fishery sector are increasing, deepening the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fishery sector.
 - In particular, South Korea's trade deficit with Vietnam, Indonesia and Malaysia is increasing. Specifically, Korea's imports of processed fishery products are significantly rising, such as shrimps, webfoot octopuses etc.
 - South Korea's fisheries investment in ASEAN has diversified from deep sea fishery centering on Indonesia to inland aquaculture focusing on Myanmar and Vietnam as well as frozen fishery products.
 - Although domestic fisheries companies have low awareness of the launch of AEC, the companies give a high expectation on the potential of AEC utilization and the ASEAN's development in fishery sector
 - Specifically, ASEAN is expected to provide many opportunities to Korean companies by expanding the possibility of advancing into 3rd markets such as the US, China etc. In addition, ASEAN's rising income following the economic growth of the region will lead to the consumption growth of fishery products, providing a lot of export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 However, it is worrisome that the launch of AEC will intensify the competition for securing raw materials for intra-ASEAN fishery products and the competition with multilateral companies that already entered the region.
 - Therefore,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for Korean fisheries companies by increasing the supply of ASEAN market information and expanding the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projects in ASEAN

-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policy goals of securing stable supply of fishery products in Korea by making inroads into ASEAN market. Also, it aim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into overseas market based on ASEAN.
- Specific tasks are drawn as follows; supporting Korean companies' entry into ASEAN market by establishing a cooperation system among academic-public-industrial-research institutes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ASEAN, strengthening a system for collecting information on ASEAN fisheries sector, reinforcing the support for intra-ASEAN fisheries infrastructure and establishing a basic plan for building a fisheries supply chain based on ASEAN
- From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the study suggests the legislation of relevant laws to facilitate Korean companies to advance to ASEAN market and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alled Korea-ASEAN Fisheries Cooperation Center (tentatively named).

2) Policy contribution

- Securing a safe supply market for Korean fisheries products through strategic utilization of ASEAN market, which is gradually emerging as a competitive economic zone in the global society
- Expanding the economic territory in fisheries sector by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Korean private sector to make inroads into ASEAN market

3) Expected benefits

- Utilizing this study as a basic material for the strategic use of ASEAN fisheries sector, which is expected to undergo a continuous growth
- Promoting investment of private sector by analyzing the production networking of ASEAN member countries in fisheries sector
- Addressing intra-regional economic gap within ASEAN through the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in regional fisheries sector and contributing to Korea's position as a responsible middle-power country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동남아 지역 10개국¹⁾으로 구성된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이하 ASEAN)이 2015년 12월말에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AEC)를 출범시켰다. 역내 단일 시장과 단일 생산기지 구축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는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이 약 2조 5,700억 달러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 규모이고,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큰 경제규모이다.²⁾ 이처럼 아세안이 AEC 출범을 통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와 더불어 세계 주요한 경제지대로 부상하였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각국의 수산업이 세계 주요한 생산 강국으로 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AEC 출범은 아세안 수산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014년 기준 아세안의 어선어업은 전 세계 생산량의 17%, 양식어업 생산량의 22%³⁾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수산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통합을 통해 수산분야의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⁴⁾ 그리고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수산식품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뒷받침됨에 따라 아세안 지역의 수산

1)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임

2) ASEAN Economic Community at a Glance, ASEAN

(http://asean.org/storage/2015/11/AECat-a-glance-2016_web_version2.pdf), 검색일자 : 16.4.20

3)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FAO, 2016

4) 아세안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이고 전체 인구의 약 48%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수산분야 가용 노동인력이 매우 풍부함.

분야 경쟁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AEC 출범에 따른 아세안의 경제 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아세안 지역 수산물 소비시장의 성장도 예견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아세안 10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2014년 4.6%에서 2017년 5.3%로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⁵⁾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는 자연스럽게 수산물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아세안이 수산물 소비 시장으로써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수산물 소비가 많은 아세안 무슬림 인구가 2014년 2억 3천만 명에서 2030년에는 2억 8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과거 10년 동안 세계 평균을 상회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⁶⁾ 즉,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아세안 역내 경제 성장은 국내 수산물 수출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처럼 AEC 출범을 계기로 향후 예견되는 아세안 수산분야의 다양한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다국적식품기업을 중심으로 아세안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아세안과 인접한 일본과 중국 정부는 자국의 안정적 수산물 공급, 민간 수산분야의 해외 진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아세안 통합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세안을 원료조달 시장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아세안 수산분야의 성장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을 고려한 큰 틀에서의 경제협력 방향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산 기업의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고,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양적·질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세계 주요한 경제블록으로 평가되고 있는 아세안의 수산분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중장기

5)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2016 : UPDATE, OECD,

6) 할랄식품의 「시장동향과 수산물 수출 활용 방향, 해외시장정보 이슈 분석 Vol. 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05

적인 경제협력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장 확보 및 국내 수산기업의 대아세안 진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라 아세안이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경제협력체로 등장하였다. 풍부한 수산자원과 값싼 노동 인력을 갖추고 있는 아세안 각국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면서 단일 시장을 형성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 아세안의 수산분야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3~2012년 어선 어업 평균 생산량 기준, 인도네시아는 총 475만 톤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였고, 베트남,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의 어업 생산량을 합하면 세계 생산량의 17.7%)를 차지한다. 또한 세계 양식어업의 성장 과정은 아세안의 양식어업 생산의 발전과 궤도와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세안의 수산분야 생산 잠재력이 매우 높다.

한편 국내 수산업은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생산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근해의 경우 어업인 감소 및 어업인의 노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해외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원양어업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국제 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입어로 이외의 연안국의 경제협력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해외 시장과의 수산 협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AEC 출범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그리고 국내 기업의 진출 기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아세안 수산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AEC 출범을 계기로 아세안 수산분야 통합 정책을 검토하고, 아세안 역내 수산물 교역 및 투자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중심으로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아세

7)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FAO, 2016

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실태 및 인식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가 가지는 이점과 기회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아세안 지역에 수산생산거점을 구축하고, 민간분야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수산경제 영토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아세안의 수산분야 통합정책을 분석하고 역내 무역 및 투자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국내 수산분야의 대아세안 경제협력 실태 및 특징을 바탕으로 향후 민관 협력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6장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추진 배경과 동향, 추진 목표와 목표 달성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수산분야 경제통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 속에서 수산분야 역내 무역의 변화를 포착함으로써 향후 아세안 수산분야 역내 무역의 방향성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 간의 수산물 교역의 특징, 주요 교역 품목 등을 도출함으로써 아세안 역내 수산물 교역의 흐름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아세안과 인접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의 특징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대아세안 식량가치사슬 구축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중국 남서부 지역의 수산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2007년 한-아세안 FTA 협정 체결 이후 수산물 교역 변화와 특징을 도출하였고, 1980년대부터 이뤄진 한국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투자 실태 및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대아세안 수산분야 투자가 원양어업에 편중된 원인을 규명하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수산분야 투자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AEC 출범에 따른 국내 수산기업의 인식도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과 교역을 하고 있는 수산기업 및 아세안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계 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도 병행하였다. 크게 AEC 인지 수준 및 AEC의 영향 평가, 국내 기업의 AEC 활용 방향 그리고 AEC 활용을 위한 주요 해결 과제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아세안과 교역 및 투자하는 국내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 또는 개인 기업 수준으로 나타났고, AEC 인식수준이 매우 낮으며 아세안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은 대아세안 수산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적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AEC 대응 수산분야 경제협력을 위한 SWOT 분석을 통해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앞서 서술한 연구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국내외 문헌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AEC의 추진배경과 동향, 수산분야 경제통합, 중국과 일본의 대아세안 시장에 대한 경제협력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아세안 사무국 담당자 및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AEC 출범 이후 아세안 수산업의 나아갈 방향과 각 회원국의 관련 정책 추진 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향후 아세안의 수산분야가 단일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주요 현안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에 활용코자 하였다.

또한 주로 아세안과 교역을 하고 있는 국내 수산기업과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나라 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EC 출범에 대한 인식도 수준을 파악하고, AEC가 향후 수산분야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평가, 향후 수산기업의 AEC의 활용 방향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태국, 미얀마에 진출한 국내 수산기업, 태국 주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계자 면담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아

세안 국가와 수산물 교역 및 투자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역내 수산물 교역, 투자 구조 및 한-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 및 투자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세안의 수산물 무역 자료는 아세안사무국(ASEAN Secretariat)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HS 6단위 기준 03류, 12류, 16류, 21류에 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교역 자료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무역통계 서비스, 투자 자료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와 원양산업협회의 「원양어업 통계조사」를 활용하였다. 해외투자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한 어업, 조제업, 도매 및 소매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기간은 1980년부터 2015년으로 하였다. 이는 대아세안의 수산투자가 1980년대에 인도네시아 EEZ 해역에 시범조업을 시작으로 활발해지다가 외국 어선의 EEZ 조업을 금지한 이후의 수산투자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3.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과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분석

(1)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⁸⁾

본 연구는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역내 무역 및 산업구조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곽성일 외(2015)는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및 미국, 중국, 일본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의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AEC 출범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또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고,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동태모형 분석을 통해 AEC 출범 이후 아세안경제통합 및 한-AEC 경제통합 형성을 가정하여 통상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⁸⁾ 곽성일 외,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5-17, 2015.

예측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AEC 출범이 단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제도 및 법률, 각종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 여건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AEC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기존 미국, 중국, 일본 등 협력국에 대한 대응 방향, 아세안 회원국의 제도 및 산업정책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에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시장을 개별 국가 단위로 나누어 접근하기보다 통합된 시각에서 아세안의 산업경쟁력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한국의 산업화 경험 공유를 확산하고, 소비시장으로서의 아세안 시장을 접근하도록 지원 정책을 개선하며, 아세안의 한인경제인협의체 구성을 지원하여 AEC 통합 과정에 있어 국내 기업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2)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아세안 역내무역 분석 및 시사점:

EU, NAFTA, MERCOSUR 와의 비교를 중심으로⁹⁾

나희량(2015)은 아세안 역내무역과 EU, NAFTA, MERCOSUR 등 다른 경제통합체의 역내무역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역내무역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세안의 역내 무역은 물량과 비중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약 60%가 중간재에 편중되어 있는 특성을 보였다. 외형적으로는 역내무역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상호 중간재 위주의 교역 및 가공 후 역외 수출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역내 무역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내향성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 역내 무역에 비해 아세안의 역외 무역 규모와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역내 무역이 주로 중간

⁹⁾ 나희량,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아세안 역내무역 분석 및 시사점: EU, NAFTA, MERCOSUR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5(1), 31-84, 2015.

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시기별 역내 무역집중도 지수와 지역 무역내향성 지수를 살펴본 결과 두 지수 모두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AFTA 형성 이후 관세인하, 무역장벽 완화 등으로 역내 생산의 분업화가 심화된데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내 무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AFTA를 통한 아세안 경제통합 효과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에 따라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이 약화되고 있는 역내무역 편향성과 내향성을 다시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아세안 역내무역 자유화 효과에 힘입어 아세안 소비시장이 요구하는 상품 개발, 소비층에 따른 상품 차별화, 직접투자 확대, 생산의 분업화 등을 통해 ASEAN 시장으로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3) 아세안경제공동체 통상환경이 캄보디아 농산물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¹⁰⁾

동 연구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인근 국가의 FTA 체결이 캄보디아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수출입 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캄보디아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공재형(2016)은 캄보디아 쌀 산업의 문제점으로 낮은 생산성, 높은 에너지 비용, 타 국가 대비 2~3배 높은 운송비용, 수확 후 약 20%의 손실률, 제도적 지원 부족, 현대식 가공시설 부족, 자금 조달 문제, 역량 부족 문제 등을 꼽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이 전반적으로 투자 유치, 역내무역 활성화 등에 긍정적이지만 캄보디아 쌀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캄보디아는 쌀 수출 물량의 60% 이상을 EU에 수출하고 있는데, 2015년 8월 체결된 베트남-EU FTA로 약 1만 여 톤의 쌀이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주변국과의 수출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캄보디아의 미도정 쌀이 태국과 베트남에

¹⁰⁾ 공재형, 「아세안경제공동체 통상환경이 캄보디아 농산물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7(2), 169-186, 2016.

비공식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쌀 산업이 태국과 베트남에 영구 종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등 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 유·무상 차관 도입과 원조공여국의 적극적인 ODA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4)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협력에 관한 연구¹¹⁾

강영문(2014)은 아세안 국가와 통상 확대를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문헌조사 및 통계 분석방법을 통해 ASEAN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ASEAN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통상협력 전략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0개 ASEAN 회원국의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격차, 역내 선발 개도국들의 후발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 부족, 인프라 부족, 비협조적 연성 시스템 등이 아세안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설립 초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형성된 아세안이 최근 들어 경제협력체로서 역내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변화와 한계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 전략으로 아세안의 발전전략 및 아세안 연계성 강화에 부합하는 투자와 협력,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으로의 확대, 생산 경제에서 소비경제로 전환하는 데 대한 대응, 아세안 국가별 차별화된 투자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 연구는 대아세안 ODA 사업이 아세안의 변화와 개발 수요에 부합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대아세안 투자 및 기술협력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추진되어 제조업 일변도의 투자를 지양하고 다양한 수평 분업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강영문,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협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6(2), 3-22, 2014.

(5) ASEAN 역내경제협력 효과 분석: 역내교역을 중심으로¹²⁾

김완중(2009)은 ASEAN의 다양한 경제협력 노력이 역내무역에 미친 영향을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패널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공동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이하 CEPT) 발효 전후로 ASEAN의 역내 교역의 변화 또는 교역 확대에 따른 ASEAN 국가 간 차별성 존재 유무, 역외국가들의 교역 규모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CEPT 발효 후 ASEAN 회원국들의 수입은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ASEAN 국가들의 역내교역이 역외교역보다 확대되어 CEPT 발효가 역내 수입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ASEAN 국가 간 역내수입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SEAN 국가들의 수입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 등 주요 기존 교역국에 집중되고 있었다. CEPT 발효 이후 수출 또한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역외국가보다 역내 국가 간 수출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SEAN의 한국 수출 및 수입 집중도는 다른 역외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ASEAN 역내 경제통합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동 연구는 역내외 교역 활성화에 미친 영향 분석에 있어 다양한 정책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연구제목	연구자	연구목적	주요내용
「ASEAN 역내경제협력 효과분석」	김완중 (2009)	아세안 각국의 역내무역의 구조변화 분석	· ASEAN 역내경제협력정책과 성과 · ASEAN 역내수입 및 역외수입변화 추정 · ASEAN 역내수출 및 역외수출변화 추정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강영문 (2014)	한-아세안 통상협력전략 도출	· ASEAN 국가의 한계 및 문제점 · 한-ASEAN 통상관계 다각적 분석

12) 김완중, 「ASEAN 역내경제협력 효과 분석: 역내교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9(3), 221-260, 2009.

연구제목	연구자	연구목적	주요내용
통상협력에 관한 연구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곽성일 외 (2015)	AEC 출범에 따른 역내외 무역 및 산업구조 변화 전망	· AEC 전개과정과 역내외 교역 및 투자 추이 변화 분석 · AEC 형성과 역내 구조변화 분석 · AEC 출범에 따른 산업정책 변화와 생산분업 확대 사례 검토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아세안 역내무역 분석 및 시사점」	나희량 (2015)	아세안 역내무역구조의 현황과 특징 분석, 아세안경제통합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아세안 역내무역과 EU, NAFTA, MERCOSUR와의 비교 · 역내편향성, 역내지향성 분석 · 시계열 및 상관관계 분석
「아세안 경제공동체 통상환경이 캄보디아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재형 (2016)	아세안경제통합이 캄보디아 쌀 산업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AEC가 캄보디아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캄보디아 경쟁력 강화 전략
본 연구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 AEC와 수산분야 경제통합 현황 · 아세안 역내 수산분야 교역 구조 및 투자제도 분석 ·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분석 · 우리나라 수산분야 경제협력 전략 도출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선행연구들은 아세안의 역내 경제협력에 대한 효과 분석과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춘 대아세안 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세안 경제통합의 현황과 역내 무역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에 따른 최신의 정보 및 수산분야 경제통합에 대한 연구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기존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통합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세안경제통

합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졌지만 아세안 수산분야에 한정한 경제통합 로드맵,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과 이행상황, 2016~2025년 아세안 수산업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둘째, 아세안 경제공동체에 대응한 일본과 중국정부의 수산분야 경제협력전략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이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아세안을 거점 지역으로 활용코자 한 전략들을 파악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수산물 수출입기업 및 아세안에 진출한 국내 수산기업을 대상으로 AEC 출범에 대한 인지도와 영향 평가 그리고 향후 활용방향에 관한 설문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광성일 외(2015)는 「AEC 출범에 따른 역·내외 무역 및 산업구조 변화 전망」연구에서 AEC 출범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대상 기업은 섬유·봉제, 기계·금속, 석유화학 등으로 수산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AEC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수산물 수급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산분야 법·제도의 개선,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본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AEC 출범에 대응한 우리나라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AEC의 수산분야 경제통합 및 정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AEC 출범에 대응하여 아세안 10개국의 구체적인 수산분야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세안 역내 수산물 교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아세안 역내 수산물 교역의 방향성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분석 대상이 HS 6단위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어종별, 상품별 아세안 역내 교역, 역내 유통·소비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투자와 관련해서 어업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동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아세안의 농림어업분야에 대한 FDI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일본, 중국 등 역외국이 아세안과 수산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는 수산분야가 1차 산업으로 농림어업에 포함되어 가용 데이터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對아세안 수산분야의 구체적인 대상국, 대상 분야, 투자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2장 아세안경제공동체 현황과 수산분야 경제협력

1.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추진 배경 및 동향

1)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추진 배경

아세안의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추진 배경은 크게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 아세안에서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강화됨에 따라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한 단일 생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단일 시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지역 분업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첫째,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협에서 찾을 수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동남아시아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ASEAN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인도차이나 4개국인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가입시켰다. 둘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브라질(B), 러시아(R), 인도(I), 중국(C)을 포함한 소위 BRICs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늘고 신흥국이 부상하자 ASEAN 지역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¹³⁾ 그 중에서도 ASEAN 경제공동체의 구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부상이 핵심적 동기로 작용하였다. 셋째, 다자간 무역협정의 지연과 차별적 지역주의의 확산이다. WTO 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인 DDA협상이 지연되자 개별 지역 및 국가 단위의 FTA가 확산되었다. 특히, 선진국 주도의 지역 경제통합체는 ASEAN의 경쟁국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2000

¹³⁾ 광성일 외,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오늘의 세계경제」, 1-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년대 선진국의 차별적 지역주의에 따라 ASEAN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무역,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자 경제통합을 확대하였다. 또한 ASEAN 개별 회원국이 비회원국과 FTA 체결을 확대하자 ASEAN 지역경제 통합의 저해요인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FTA는 기존의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이하 AFTA) 보다 심화된 경제통합을 추구하여 기존 ASEAN 경제통합을 약화시키는 우려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2)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추진 동향

(1)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경제협력

ASEAN은 1967년 동남아시아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 이하 ASA) 회원국의 주도로 동남아시아 5개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역내 상호 갈등 조정, 정치·경제적 안정 유지, 경제·사회·문화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74년 베트남의 통일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76년 ASEAN 발리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ASEAN 협력선언을 발표하고 아세안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한다고 명시하였다. 협력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상품 특히 식량, 에너지, 산업, 무역협력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무역협력과 관련해 역내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이하 PTA)이 1977년에 체결되었고, 특혜관세품목¹⁴⁾의 지정과 관세 감세율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특혜관세품목은 1977년 71개, 1979년 말까지 2,327개로 품목수를 확대하였고, 관세의 경우 감세율은 처음에는 10%였으나, 1987년에는 신규 대상품목은 25%, 기존대상품목 50%로 확대되었다.

(2) 국제정세 변화와 아세안자유무역지대

1980년대 공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등 정치적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경제협력의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캄보디아 내전이 종료되고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

14)

이 추진되는 등 1990년대 개혁·개방 추세가 확산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타결 가능성이 고조되는 등 아세안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ASEAN은 1992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AFTA를 창설하고 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협정(Framework Agreement on Enhancing ASEAN Economic Cooperation) 및 공동유효특혜관세협정(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을 체결하였다. 특히 역내 시장 확대를 통한 해외직접투자의 유치, 급변하는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등을 위해 아세안자유무역지대가 1994년 1월에 발효되었고, 1994년 제26차 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완성 시기를 기존 2008년에서 2003년으로 단축시켰다.

(3) 아세안경제통합체 설립의 본격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제도를 수립해 나갔다. 1997년 제2차 비공식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아세안 비전 2020(ASEAN VISION 2020)¹⁵⁾’을 채택하였다. 주요내용은 무역부문에서 AFTA 완성을 기존 2003년에서 2002년으로 단축하였고, 2000년 말까지 전체 관세품목의 최소 90%에 대한 관세를 0~5%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투자부문에서는 역외 투자유치를 위해 소득세 면제와 30% 투자세액을 공제하였으며, 100% 외국인 투자 허용하였다. 1998년 제5차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하노이행동계획(Action of Hanoi plan)을 채택하였다. 아세안비전 2020의 핵심인 하노이행동계획은 거시경제, 금융협력 강화, 경제통합 제고 등 10개 분야를 포함한다. 또한 2000년 제4차 아세안 비공식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선발 6개국과 후발 4개국의 경제적 발전격차 해소와 지역 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가 발표되었다.

아세안의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설립에 관한 구체

¹⁵⁾ ASEAN Vision 2020 a stable, prosperous and highly-competitive region with 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 reduced poverty,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progressing in tandem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 Political Security Community and the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적인 논의는 2003년 제9차 ASEAN 정상회의의 발리협력선언Ⅱ(Bali Concord Ⅱ)에서 이뤄졌다. 경제 분야에서 ASEAN의 경쟁력 제고 및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통합 가속화, 11개 산업의 우선 통합분야 선정 및 2010년까지 완전통합을 유도하고, ASEAN 선발국과 후발국의 개발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7년 제12차 ASEAN 정상회의에서 2020년에 창설하기로 한 아세안공동체를 2015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세부 선언(Cebu Declaration)’을 채택하고, 단일 시장, 단일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에 대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2009년 제14차 ASEAN 정상회의에서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2차 작업계획(IAI Work Plan 2)의 로드맵을 채택하였다.¹⁶⁾ 이어 2015년 11월 제47차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 발족에 서명되었고, 같은 해 12월 31일 정식 출범하였다.

¹⁶⁾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공동체를 위한 로드맵에 관한 후아힌 선언[Cha-am Hua Hin Declaration on the Roadmap for the ASEAN Community (2009-2015)]’, 정치·안보 공동체 계획(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 경제공동체 계획(Economic Community Blueprint), 사회·문화 공동체 계획(Social-Culture Community Blueprint),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통합 이니셔티브(IAI) 2 단계 실행계획(2009~2015)으로 구성, 비엔티엔 행동계획을 대체함

〈그림 2-1〉 아세안공동체의 주요 내용



자료: 「아시아의 꿈, 아세안 공동체를 말하다」, 한-아세안센터, 2016, p.11, 그림1 인용, 저자 재작성

〈표 2-1〉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주요 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67년	아세안(ASEAN) 출범
1977년	아세안특혜무역협정(PTA) 체결
1993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창설
1995년	아세안 투자협정(AFAS) 서명
1997년	아세안 비전 2020(ASEAN Vision 2020) 채택
2003년	발리협력선언 II 선언
2007년 1월	세부선언(AEC 공동체 출범 2015년으로 단축)
2007년 11월	AEC 청사진(Blueprint)
2008년	아세안 헌장(Charter) 채택
2010년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발효
2012년	아세안 포괄적투자협정(ACIA) 발효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공식 출범
2016 ~ 2025년	AEC Blueprint 2025

자료: A Blueprint for Growth,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Progress and Key Achievements, The ASEAN Secretariat, 2015 참고 저자 재작성



자료: 저자 작성

3)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주요 내용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단일 시장 및 단일 생산기지 구축, 경쟁력 높은 경제지역, 아세안 발전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경제발전, 세계경제와의 통합이라는 네 가지 중장기 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표 2-2〉 아세안경제공동체(AEC) 4대 중장기 추진 목표

단일 시장과 단일 생산기지	경쟁력 높은 경제지대	균형 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
■ 상품 무역 자유화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투자 자유화 ■ 자본 자유화 ■ 숙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 12개 우선분야 통합 ■ 식품, 농수산, 임업 개발	■ 경쟁정책 강화 ■ 소비자 보호 ■ 지적재산권 보호 ■ 인프라 개발 ■ 조세 협력 ■ e-commerce 협력	■ 중소기업 발전 ■ 아세안통합 이니셔티브를 통한 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소	■ 대외경제관계 협력 ■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참여

자료: A Blueprint for Growth,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Progress and Key Achievements, The ASEAN Secretariat, 2015, p.5 저자 번역 및 재작성

〈표 2-3〉 AEC 주요 목표와 이행 수준

교역 및 투자 증진 조치	주요 일정	진행상태
1. 관세철폐		
■ CEPT-AFTA 관세철폐	· ASEAN 6 : 07년 1월 · CLMV : 12년 1월	완료
2. 비관세조치(NTMs)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비관세조치 DB 구축	· 04년 6월	완료
■ 투명성 확보를 위한 NTM DB의 정기적 업데이트	· 07년 1월	개시
■ 무역 장벽 조치 규명을 위한 기준 마련	· 05년 9월	개시
■ NTM 평가 프로그램 마련	· 06년 8월 21일	완료
■ 모든 상품의 비관세장벽 철폐	· 1차 - ASEAN 5: 08년 1월 - 필리핀(10.1), CLMV(13.1) · 2차 - ASEAN 5: 09년 1월 - 필리핀(10.1), CLMV(2014.1) · 3차 - ASEAN 5: 2010년 1월 - 필리핀(12.1) - CLMV(15~18년 1월)	진행중

교역 및 투자 증진 조치		주요 일정	진행상태
3. 원산지 규정			
■ CEPT 원산지 규정 개선 (투명, 예측가능성, 표준화, 무역원활화, 지역 아웃소싱 활성화 위한 필요성 고려)		· 06년 12월	완료
4. 세관 절차			
■ 역외 교역 위한 아세안 관세 세번 적용의 확대		· 07년 12월	완료
■ 단순, 개선, 조화된 세관신고서 개발		· 05년 6월	완료
■ CEPT 상품의 Green Lane* 제도 전면시행			완료
■ 싱글윈도우 시스템** 개발		· ASEAN 6 : 08년 1월 · CLMV ; 12년 1월	완료
5. 표준 및 정합성(standards and conformance)			
■ 상호인정협정(MRA) 개발 및 시행 가속화		· 05년 1월 착수	진행 중
■ MRA 미해당 상품의 경우, 아세안 국가인증기관이 이미 인증한 실험보고서의 상호 인정			진행 중
6. 물류 서비스			
아세안 역내 통합교통물류서비스 개발의 가속화		· 05년 1월 착수	진행 중
환적 상품 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이행 통한 door-to-door 화물 운송의 효율성 증진 아세안의 접근성(connectivity) 개선 위한 육상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아세안 역내 해운운송 서비스 강화			
7. 아웃소싱 및 산업적 보완성			
회원국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상품 가공, R&D, 테스트 설비에 관한 특화 지역 개발			진행 중
회원국 간 아웃소싱 협정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08년 12월 착수	진행 중

주: 1) * Green Lane이란 화물 도착 즉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하는 제도

2) ** 싱글윈도우란 무역업체가 수입관련 제반 요구사항을 단일창구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을 의미함

자료: Strategic Schedule for ASEAN Economic Community, ASEAN Economic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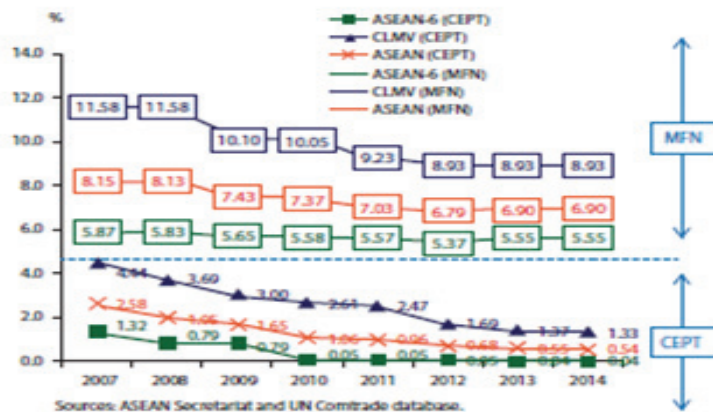
Blueprint, ASEAN, 2008, pp30~50 참조, 저자 번역 및 재작성 (검색일자 : 2016. 5. 13)

(1) 단일 시장과 단일 생산기지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최대 목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숙련 노동(skilled labors),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통한 ASEAN 단일 시장과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역 확대, 거래비용 절감, ASEAN으로 투자 유입의 증가를 추구한다.

단일 시장과 단일 생산기지 구축과 관련해 상품분야의 관세 철폐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아세안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하에서 2010년까지 ASEAN-6¹⁷⁾은 수입관세를 0~5%로 감축 및 철폐했고, 나머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CLMV 4개국도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관세를 감축 및 철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ASEAN 6개국은 99.2%의 품목에 대해 역내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나머지 4개국 또한 90.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그림 2-2〉 아세안 국가의 관세인하 추이



자료: ASEAN Integration Report 2015, The ASEAN Secretariat, 2015, Figure 2.1 재인용

관세 철폐 이외에도 다양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아세안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ASW) 구축이다. 아세안단일

17) ASEAN 6개국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일컬음

창구를 국가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NSW)와 연계하는 것으로, 수출입 업체가 세관, 출입국관리소, 항만사무소, 보건검역당국, 동식물검역당국 등 관련 기관별로 각각 신고하던 절차를 하나의 온라인 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현재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7개국에서 구축이 완료되었다. 또한 베트남이 2015년 9월 국가단일창구와 아세안단일창구의 연동을 완료하였으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역내 원산지 증명서와 아세안 세관 신고 서류의 공유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¹⁸⁾ 이처럼 국가별 단일창구와 아세안 단일창구의 연계를 통해 상호간 통관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통관 수속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아세안거래정보저장소((ASEAN Trade Repository, ATR)의 개발이다. 이는 아세안 개별 국가별로 운영하고 있는 품목별 관세, 비관세 장벽, 통관절차, 교역·관세법, 규정 등 무역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포괄하는 국가무역정보저장소(National Trade Repository, NTR)를 아세안무역저장소로 통합하는 것으로 교역의 투명도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시켜 상품 무역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태국, 라오스가 국가무역정보저장소를 구축하였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국가단일창구 내에 국가무역정보저장소 항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셋째,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ROO)의 변화이다. 역내 교역 시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체인증시스템(Self-Certification)을 도입하는 등 원산지 규정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수출업체가 인증을 받게 되면 수출상품을 자체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수출상품에 대한 인증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원산지 증명절차가 간소해지고, 수출상품에 대해 전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무역업자와 제조업자가 원산지 인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 10개국은 자체인증시스템을 ASEAN 전역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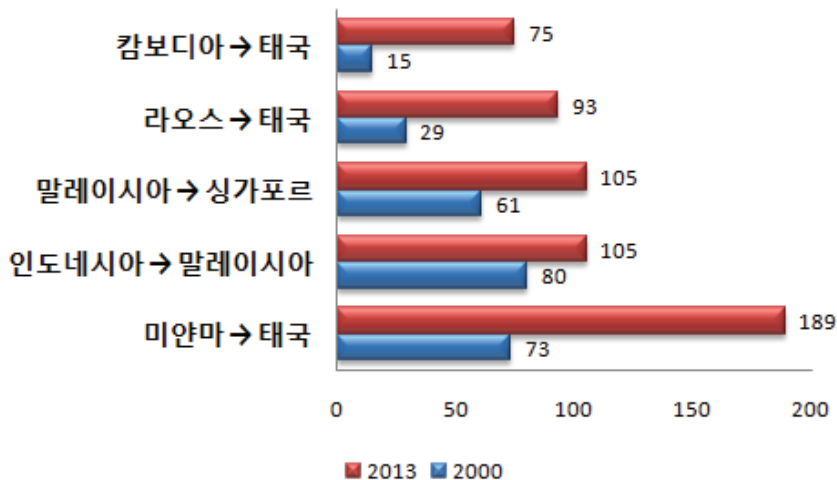
1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과 시사점」, 2015.

넷째, ASEAN이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심화시키기 위해 통관 기준 등을 점차 통일시키고 있다. 특히, 전자 장비 및 기기(electrical equipment and electronics), 화장품, 의료기기 3가지 부문에서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상호인증협약(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MRA)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ASEAN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급증하는 생산 가능인구의 증가에 발맞추어 숙련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1995년 서명된 아세안서비스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FAS)에 기초하여 8개 분야¹⁹⁾ 숙련 노동자들에 한하여 자유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역내 주요 노동력 유입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고, 역내 노동력 유출국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다. 실제 2015년 말 기준 1,250여 명의 아세안 엔지니어들이 ASEAN Chartered Professional Engineering Register에 등록되었고, 284명의 건축사가 ASEAN Architect Register에 등록²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아세안의 역내 이주 인력 규모

(단위 : 만 명)



자료: 「한눈에 보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외교부 외, 2016, p.31 그림 2-6 인용, 재작성

19) 엔지니어링, 간호, 건축, 측량, 의료, 치과, 회계, 관광임

20) '2015 아세안 통합 보고서 요약',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2015.

(2)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란 아세안을 기업친화적이고, 혁신 지향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농업, 금융 서비스, 경쟁 정책, 지적재산권,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에서 아세안을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공통의 기준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ASEAN 지역 내 연계성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연계성을 강화할 경우에 아세안 국가 간의 국경 무역 활성화, 기업 운영비용 절감, 기업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ASEAN 역내 신생 기업들의 발현을 촉진하고 시장을 확대하며 역내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 확대 및 고용 창출 등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지형적으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ASEAN이 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 내 교역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와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 기반 시설인 고속도로망 구축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철도연계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중국 쿤밍 지역을 잇는 철도망이 있는데 약 7,000km 거리를 잇는 프로젝트로 2015년 이후 진행된다. 또한 여객과 화물의 항공운송 분야에서 ASEAN 단일항공시장(Single Aviation market) 구축의 일환으로 항공자유화정책(Open Skies Policy)을 실시하였다.

(3) 균형 경제발전

세 번째 추진목표는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지역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s, RVC) 혹은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의 참여를 독려하고, 효율적인 경제통합체로 기능하기 위해 역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아세안의 균형 경제발전과 관련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아세안 회원국 기업의 90%~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아세안 노동 인구의 70%~90%의 고용을 창출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협력 이니셔티브는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6개년

전략적 행동계획(The Strategic Action Plan for SME Development for 2010-2015) 지침에 따르고 있다. 중소기업 개발의 핵심 전략은 금융, 시장 그리고 국제화, 인적자원개발, 정보 및 자문서비스,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2-4〉 아세안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전략적 행동계획과 지역협력 이니셔티브

전략	이니셔티브의 예
금융지원	아세안의 중소기업 국가발전기금 아세안회원국 내의 중소기업 신용등급시스템 아세안회원국의 중소기업 금융시설
시장 그리고 국제화 지원	한마을한제품운동(One Village One Product Movement)을 통한 농어촌 생활 조건 개선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기업가정신을 위한 아세안 공통 교육과정
정보 및 자문서비스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서비스센터(중소기업 포털사이트) 아세안경제공동체 정보 패키지 2015년에 탁월했던 아세안중소기업 목록 가이드북
정보 및 혁신에 대한 지원	비즈니스와 기술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시설

자료: 아세안 중소기업 개발 위한 6개년 전략적 행동계획(The Strategic Action Plan for SME Development for 2010-2015) 저자 번역 및 재작성
(<http://www.asean.org/storage/images/archive/SME/SPOA-SME.pdf>) (검색일자 : 2016.4.12.)

지역협력 계획의 많은 부분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일부 계획은 AEC's 2015년 이후 의제(the AEC's Post-2015 agenda) 하에 향후 더욱 발전할 것이다.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직 해인 2014년에 금융 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 신용평가를 위한 아세안 벤치마크가 개발되었다. 이 벤치마크는 중소기업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칭 신용정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세안 중소기업에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서비스센터가 웹기반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다. 중소기업서비스센터는 아세안 서비스데스크(ASEAN service desks)의 가상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는데, 비즈니스 파트너, 컨설턴트, 사업 및 투자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전자시장 연계시스템(a referral system)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FTA 관련된 아세안 협력계획(initiatives) 및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아세안 역내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해 2012년에 기업가정신을 위한 아세안 공통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기업가 리더십, 사업계획, 사업정책과 전략,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마케팅 관리 및 전략, 사업 창의력, 상법, 통신, 금융, 환경, 환경연구, 창업 및 IT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5년 이후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중소기업 육성 워크숍(Workshop on SME Development for Cambodia)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 및 민간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이행과 전략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6) 아세안의 GVC 참여

가치사슬은 어떤 상품의 개념, 디자인, 소싱(sourcing), 유통, 마케팅 및 소비와 관련해 참여하게 되는 기업과 노동자가 수행하는 모든 범위의 활동을 말한다. 특정 상품은 한 회사 또는 여러 회사에 걸쳐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글로벌가치사슬(GVCs)은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생산 활동이 여러 국가에 걸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

GVC 참여 범위와 특성은 경제구조와 개발정도에 따라 다르며, 시장의 규모와 성숙도(market size and sophistication), 기술에 대한 접근성 및 가용성, 자원부존(resource endowments),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정책 틀(policy framework) 등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GVC 참여는 개별 경제가 GVC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하는데, 후방연계(Backward linkages) 또는 전방연계(Forward Linkages)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후방연계는 투입물 조달 측면에서 GVC와 경제연결을 나타내는데, 수출품 생산, 최종제품, 추가가공제품 등에 있어 수입된 중간재가 많이 사용될수록 후방연계가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전방연계는 수출을 위한 제품생산에 필요한 수입 중간재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다. GVC 참여는 전후방연계의 공유이며 총 글로벌 부가가치(total global value added)에 있어 전방연계이다.

(4) 글로벌 경제통합

글로벌 경제통합은 ASEAN을 비(非)회원국과의 자유무역지대(FTAs),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s), 글로벌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s, GSCs)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ASEAN은 세계 경제와 통합을 위해 ASEAN +1 자유무역협정,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FTA 또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부터 ASEAN은 외부지역경제와 협정을 통해 글로벌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에 중심적 지위를 누리고,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한다.

2. 아세안의 수산분야 경제통합 현황

1) 아세안 우선통합산업정책의 개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앞서 아세안은 역내 경제통합을 심화·가속화시키기 위해 2003년 우선통합산업(priority integration sectors, PIS)을 선정하였다. 초반 전자 기기, e-ASEAN, 의료, 임업, 자동차, 고무상품, 섬유 및 의류, 농업 관련 상품, 수산업, 항공 및 관광 등 총 11개 분야를 선정하였고, 물류 분야가 추가되면서 총 12개 산업이 포함되었다. 우선통합산업은 해당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원 부존량, 노동 기술, 가격 경쟁력 등이 고려되어 선정되었으며, 2003년 기준 PIS 11개 산업의 교역액이 역내 아세안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우선통합산업의 경제통합은 관세 철폐, 비관세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등 15개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세안 6개국은 2010년~2011년에 11개 산업에 대해 경제통합을 완료하고, 물류 서비스는 2012년-2013년 완성을 목표로 하였다. 관세 철폐는 아세안 각국의 이행 수준이 매우 높지만 비관세장벽, 원산지 규정 등 나머지 부분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아세안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2-5〉 PIS 로드맵의 주요 내용

구분	PIS 주요 내용	구분	PIS 주요 내용
1	관세철폐	9	투자
2	비관세장벽	10	교역 및 투자 증진
3	원산지 규정	11	아세안 역내 교역 및 투자 통계
4	세관 절차	12	지적재산권
5	표준 및 정합성	13	인력 이동
6	물류 서비스	14	여행 자유화
7	아웃소싱 및 산업 보완	15	인적자원개발
8	아세안통합시스템	-	-

자료: ASEAN Framework Agreement for the Integration of Priority Sectors, Vientiane, 29th November 2004, 협정문 참조 저자 번역 및 재구성함
<http://asean.org/asean-framework-agreement-for-the-integration-of-priority-sectors-vientiane-29th-november-2004>), (검색일자 : 2016.3.12)

2) 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통합

아세안의 천연자원산업(agro-based products)이란 아세안의 농산물, 수산물, 고무, 임업을 포함한 천연자연기반산업이다. 수산업은 우선통합산업에 속한 농업, 고무, 임업과 비교할 때 경제통합 범위가 포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관세 인하와 관련해 2002년 HS 8단위 기준, 고무는 총 상품 수 329개 가운데 270개, 농산물은 총 1,000개 중 106개로 관세양허 범위가 각각 82%, 12% 수준에 그친 반면에 수산물은 HS 8단위 177개 제품(HS 03, 15, 16, 21류) 전체가 관세 철폐 범위에 포함되었다.²¹⁾ 다만 우선통합산업의 상품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네거티브 방식²²⁾에 따라 시장개방 예외품목을 둘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 36개, 태국 26개, 미얀마 23개 수산 품목을 관세 철폐 제외로 하였다.

21) 단 살아있는 어류는 제외함

22) 시장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개방을 제한하는 품목만 정하는 협상방식임. 시장을 개방하는 분야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과 대비됨(자료 : 네이버 매일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50&cid=43659&categoryId=43659>))

〈표 2-6〉 천연자원기반 산업의 관세철폐 대상 품목

단위: 개, %

	총 상품수	상품범위(%)
농산물	1,000	106(11.9)
수산물	177	177(100)
고무	329	270(82.1)
임업	287	165(57.5)

자료: ASEAN Integration Report 2015, The ASEAN Secretariat, 2015. p.117, Table 3.4 참조 저자 재작성

〈표 2-7〉 아세안 국가의 수산물 관세철폐예외 품목수(2014년 기준)

단위: 개

	PIS 포함 품목 수	브루 나이	캄보 디아	인니	라오 스	말련	미얀 마	필리 핀	싱가 포르	태국	베트 남
수산물	177	0	11	7	0	36	23	14	0	26	0

자료: ASEAN Integration Report 2015, The ASEAN Secretariat, 2015. p.117, Table 3.5 참조 저자 재작성

〈표 2-8〉 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통합 로드맵 주요 내용과 이행현황

주요 정책	이행현황
1. SPS 및 TBT	
■ 수산물 품질 및 안전관리시스템 -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산물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HACCP 기반 시스템의 이행, 인증 통한 아세안 수산물 경쟁력 강화·지원, 아세안 소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품질안전관리시스템 채택	2009년 12월
■ 국제 기준 및 Good Practice 준수 - 양식업의 화학물 사용 및 유해 화학물 사용 금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2009년 12월
- 수산분야 국제 기준 우선 준수	2009년 12월
■ 수산업의 국제 기준 준수 증진 및 강화 - 수산 중소기업에 대한 HACCP, Good Aquaculture Practice(GAP), Good Hygiene Practice 시행 증진	2012년 1월
■ 아세안 실험시설 강화 및 테스트결과 및 상품 인증 - 수산물 기준 테스트실험실 설립	완료

주요 정책	이행현황
(미생물, 진균독소, 잔류 항생제, 중금속, 동물성 약품 잔유물 등)	
- 아세안 기준 테스트링실험실에서 발행한 실험 보고결과에 대한 아세안 자국 규제자들의 상호 인정	2005년 시작
■ 기술규제 조치의 조화	
- 수산물 관련 SPS 및 TBT 조치 규명	2006년~2007년
- SPS 및 TBT 조치의 조화(라벨, 표시 조건 포함)	2006년~2010년
■ 수산분야 MRA(상호인정협정)의 개발 및 이행	
- 선별 수산물의 MRA 개발 및 이행	2008년~2012년
2. R&D	
■ 아세안 회원국 간 R&D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양식, 어선어업, 내수면, 물관리, 어획후 기술 분야의 기술적 노하우 공유	2007년~2012년
■ 수산분야 R&D 위한 지역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2006년 1월~
■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의 전문가, 기술자, 연구자 교류	2007년 1월~
3. 인적자원 개발	
■ 아세안 회원국 어업관련 종사자를 위한 단기, 장기 훈련 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샵 개최	2007년 1월
4. 정보	
■ 위해요소에 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007년 12월

자료: 아세안협정문 “ROADMAP FOR INTEGRATION OF FISHERIES SECTOR” 참고 저자 재작성

이와 같은 로드맵에 근거하여 아세안 역내에서 교역되는 주요 수산물의 관세가 거의 철폐되었고, 베트남과 라오스의 일부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어분(HS코드 23012010)은 2018년까지 5%의 관세가 유지되다가 철폐되고, 라오스의 민물기타어류(HS 코드 03019940)는 2018년까지 관세율 2%가 적용된다. 즉, 아세안 역내 수산물의 관세는 거의 90% 이상 철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서는 수산분야 비관세장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2004년에 구축하고 2007년부터 DB의 정기적 업데이트를 시행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8년에 아세안 회원국내 수산물 비관세 장벽을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정문 로드맵에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5개국은 2010년 1월까지 수산분야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8년까지 탄력적으로 철폐하도록 명시하였다.

〈표 2-9〉 수산분야 비관세장벽(NTB) 관련 주요 정책 및 이행계획

주요 정책		진행상태
1	투명성 확보를 위한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 구축	‘04년 6월 완료
2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 정기적 업데이트	‘07년 1월 시행
3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되는 조치에 대한 기준 마련	‘05년 9월 완료
4	기존 비관세장벽 평가 프로그램 마련	‘06년 8월 완료
5	모든 수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 1차 아세안 5개국 : ‘08년 1월 필리핀: ‘10년 1월 CLMV: ‘13년 1월 ■ 2차 아세안 5개국 : ‘09년 1월 필리핀: ‘11년 1월 CLMV: ‘14년 1월 ■ 3차 아세안 5개국 : ‘10년 1월 필리핀: ‘12년 1월 CLMV: ‘18년

자료: 아세안협정문 “ROADMAP FOR INTEGRATION OF FISHERIES SECTOR” 참고 저자 재작성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CEPT 규정을 준용하며, 아세안 역내에서 수산물 아웃소싱을 고려해 규정을 보다 투명하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4단위 기준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0106류, 0301류, 1212류이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생산국 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거나 (regional value contents) 또는 다른 류(Chapter)로부터 HS 세번 6단위가 변경되는 공정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데, 적용대상은 수산가공식품인 1604류, 1605류, 2301류 등이다.²³⁾ 또한 0306류, 0307류, 0308류에 대해서는 생산국 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거나 또는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해당

²³⁾ 0208, 0210, 0507, 0508, 0510, 0511, 1604, 1605, 2301류

HS 세번 6단위로 변경되는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관세·비관세 장벽 이외에도 수산분야는 SPS(위생 및 TBT 조치의 조화, 연구 개발, 인적자원개발, 정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SPS 조치의 경우 국제 기준에 의거한 안전 수산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세안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수산분야 TBT 조치에는 아세안 각국에서 이뤄지는 수출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기준 등 적합성 평가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산물의 위생검사 기준을 상호 인정할 경우 검사 비용을 절감시키는 기대 효과를 가진다. 일례로 아세안지역의 대표적인 교역 상품인 홍다리얼룩새우의 경우 위생검사를 상호 인정함에 따라 비용절감,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수산양식, 어선어업, 내수면, 물 관리, 어획 후 기술 분야의 R&D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아세안 수산업 비전(2016~2025)

아세안은 기존 수산분야의 통합 내용을 기반으로 AEC 출범 전인 2015년 9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37차 아세안농림장관회의에서 식량농림협력에 관한 향후 10년간(2016~2025년)의 비전과 전략적 계획을 발표하였다.²⁴⁾

아세안은 향후 10년 어선 어업과 양식어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식량 안보, 빈곤 감축, 그리고 아세안 어업인의 생계 개선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양식어업을 통한 아세안 어촌 지역의 생계 유지, 고용 창출, 식량 안보, 소규모 생산자를 위한 수산물 교역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아세안의 수산업을 역내 식량안보 확보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교역을 통해 역내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전에 근거한 수산분야의 목표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생태계기반

²⁴⁾ Sisira Jayasuriya 「Skeleton Overall Report」The 2nd Meeting of ASEAN Ad-hoc Task force on Developing New Vision o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towards 2020, 18 July, 2014, 발췌, 저자 재정리

양식어업 거버넌스의 수립이다. 세부 추진목표로는 생태계 기반 양식어업을 위한 계획, 관리,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전 방위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아세안 회원국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식어업의 생태계적 접근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둘째, 수요 맞춤형 지원이다.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가장 지원이 필요하고 최대의 혜택(benefit)을 만들 수 있는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의미이다. 주요 대상 국가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은 저개발 양식국가이며, 소규모(small scale) 양식업자, 양식 관련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셋째, 수산분야에 대한 혁신과 연구개발(R&D)의 장려이다. 아세안 국가 간 양식 연구의 개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필수 연구 수요를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양식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세안 각 회원국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양식 연구를 조사하고 양식 연구에 대한 니즈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 내용의 조정도 포함될 계획이다.

넷째, 양식 관련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도모이다. 양식 분야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지역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아세안 수산분야의 2025 비전과 목표를 살펴보면, 아세안이 수산업을 빈곤 퇴치뿐만 아니라 미래 수출산업으로써 매우 중요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수출 비중이 높은 양식업은 미국, EU 등 선진 시장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생태계에 기반한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전환하고자 하며, 양식분야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강조, 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4〉 아세안 수산분야 비전(2016~2025)



자료: 아세안 수산업 비전(2016~2025) 토대로 저자 작성

3. 아세안 수산물 교역현황

1) 아세안 수산물 교역 현황

2005년~2014년 기간 동안의 HS 6단위 수산물 282개 품목에 한정하여 아세안 10개국의 역내외 수출입 패턴을 살펴보았다. 2014년 기준 아세안의 전체 교역 규모는 2조 5,280억 달러로 2005년 이후 연평균 약 7.52%가 증가하였다. 이 중 수산물 교역 규모는 2014년 280억 달러를 기록, 전체 교역에서 약 1.0~1.5%를 차지하였으며 수산물 교역은 아세안 교역 성장률보다 약 0.7% 포인트 높은 연평균 8.2% 성장세를 보였다.

〈표 2-10〉 아세안 전체 상품과 수산물 교역규모 비교(2005~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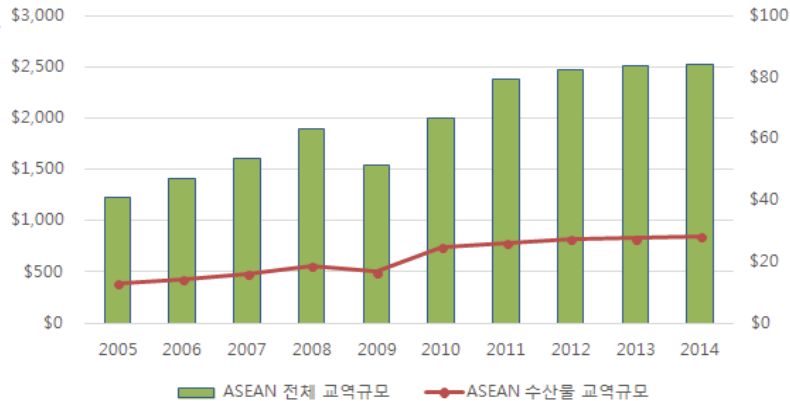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2005	...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ASEAN 전체 교역규모(a)	1,224,889	..	1,998,155	2,386,584	2,472,326	2,511,517	2,528,616	7.52
ASEAN 수산물 교역규모(b)	12,949	..	24,857	26,118	27,471	27,668	28,362	8.16
수산물 비중(b/a)	1.06	..	1.24	1.09	1.11	1.10	1.12	

자료: 아세안사무국, ASEANstats 홈페이지(<http://asean.org/resource/statistics/asean-statistics/>)
(검색일자 : 2016. 4. 12)

〈그림 2-5〉 아세안 전체 상품과 수산물 교역 추이(2005~2014)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아세안사무국, ASEANstats(<http://asean.org/resource/statistics/asean-statistics/>) 데이터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 2016. 4. 12)

아세안의 연도별 수산물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05년 6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2010년에 수산물 수입의 급증으로 흑자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1년 수산물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135억 달러에서 2014년 약 144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연평균 8.8%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2005년~2014년 동안 아세안 전체 상품 수출에서 수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5%~1.7%이고 아세안 수산물 교역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4~77% 수준이다. 수산물 수출액이 2005년 약 98억 달러에서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직후인 2011년에는 수산물 수출은 198억 달러로 증가해 전체 교역에서 1.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4년 아세안 수산물 수출액은 213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아세안의 수산물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아세안의 수산물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수산물 수출이 전체 교역의 3분의 2정도를 차지하였다.

〈표 2-11〉 아세안 수산물 무역수지 변화(2011~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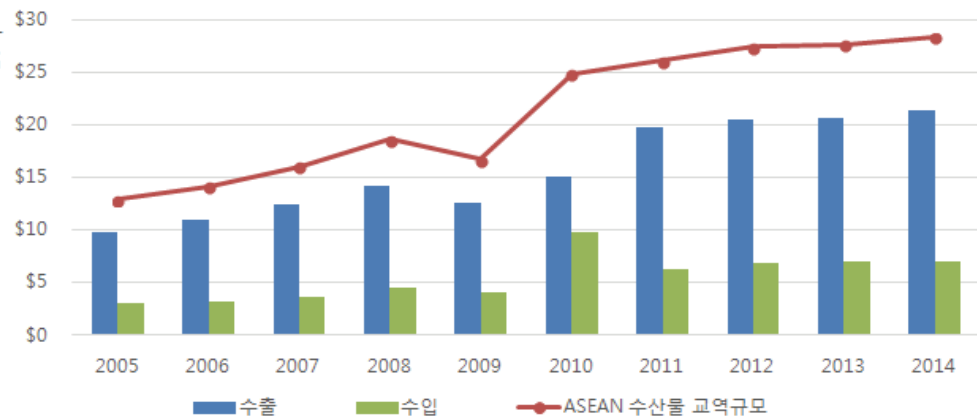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산물 교역	15,094	9,764	19,843	6,275	20,566	6,905	20,664	7,004	21,358	7,005
무역수지	5,330		13,567		13,661		13,660		14,353	

자료: 아세안사무국, ASEANstats(<http://asean.org/resource/statistics/asean-statistics/>) 데이터 참조하
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 2016. 4. 12)

〈그림 2-6〉 아세안 수산물 무역규모 및 수출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아세안사무국, ASEANstats(<http://asean.org/resource/statistics/asean-statistics/>) 데이터 참조하
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 2016. 4. 12)

2) 아세안 역내 수산물 교역 구조

2005년 기준 129억 달러이던 아세안 수산물 교역 규모는 2014년 283억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아세안 수산물 교역을 역내 교역과 역외 교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수산물 역외 교역 규모가 약 245억 달러, 역내 교역 규모는 약 39억이다. 역내 수산물 교역규모가 전체 교역의 12.4~14.3% 비중을 차지하지만 역내 수산물 교역액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8.7%의 성장을 기록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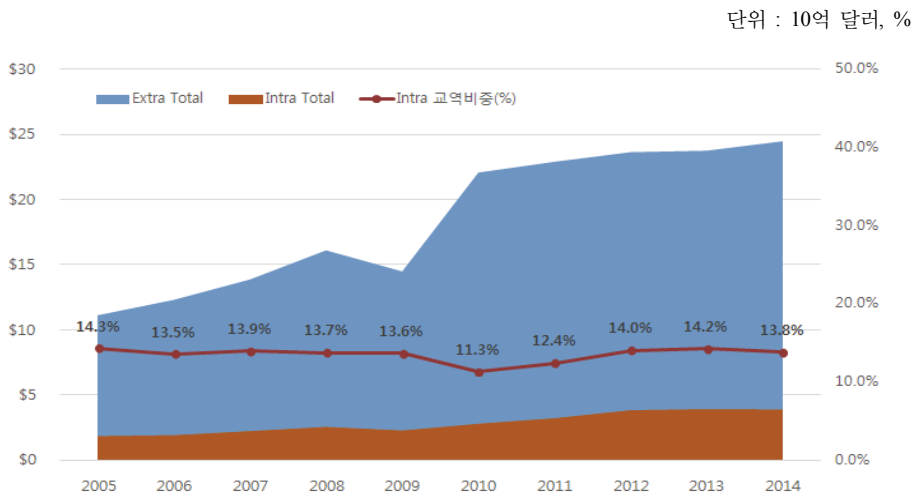
〈표 2-12〉 아세안 역내 및 역외 수산물 교역

단위: 백만 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역내 교역(a)	1,845.6	1,920.0	2,234.7	2,560.5	2,278.3	2,801.2	3,233.3	3,853.8	3,935.2	3,904.1
역외 교역	11,103.1	12,285.8	13,846.7	16,084.4	14,470.9	22,056.2	22,884.3	23,617.6	23,733.0	24,458.3
합계(b)	12,948.7	14,205.9	16,081.4	18,644.9	16,749.2	24,857.5	26,117.7	27,471.4	27,668.3	28,362.4
역내 교역 비중 (a/b)	14.3	13.5	13.9	13.7	13.6	11.3	12.4	14.0	14.2	13.8

자료: 아세안사무국, ASEANstats(<http://asean.org/resource/statistics/asean-statistics/>) 데이터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 2016. 4. 12)

〈그림 2-7〉 아세안 수산물 교역 추이



자료: 아세안사무국, ASEANstats(<http://asean.org/resource/statistics/asean-statistics/>) 데이터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 2016. 4. 12)

아세안 회원국별 수산물 수출을 살펴보면, 최근 5년 아세안 역내 주요 수산물 수출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으로 이들 세 국가의 수산물 수출이 아세안 역내 수출에서 약 62%를 차지하였다. 국별 수산물 수출을 살펴보면 주요 수

산물 수출국인 태국의 역내 수출은 연평균 4% 성장에 그쳤다. 최대 수산물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2010년 약 30억 달러의 수산물을 역내로 수출시켰고,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2010년 이후 연평균 15%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라오스는 수산물 수출이 2010년 1만 4,000달러에서 2014년 약 36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미얀마와 베트남의 역내 수산물 수출도 연평균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 수산물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캄보디아와 싱가포르이다.

〈표 2-13〉 아세안 회원국의 연도별 역내 수산물 수출액(2010~2014)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1 인도네시아	299,460	382,371	546,330	523,413	516,746	14.6
2 태국	340,811	327,459	374,391	373,932	405,350	4.4
3 베트남	204,783	296,778	328,843	364,570	424,450	20.0
4 말레이시아	253,397	270,422	302,771	341,186	298,452	4.2
6 미얀마	89,761	179,677	266,614	228,087	191,012	20.8
7 싱가포르	208,285	141,633	151,649	156,571	177,708	-3.9
8 필리핀	26,209	29,954	49,297	65,824	35,377	7.8
5 브루나이	898	1,485	1,324	2,544	1,187	7.2
9 캄보디아	307	172	315	494	146	-17.0
10 라오스	14	0	151	107	357	123.4
합 계	1,423,925	1,629,951	2,021,685	2,056,727	2,050,784	9.5

주: 1) 아세안 역내 교역의 회원국별 수출액 데이터가 2010년부터 집계되고 있어, 최근 5년간 수출액만 집계함

2) 정렬 기준은 회원국의 5년 평균 수출액임

자료: 아세안사무국, ASEANstats(<http://asean.org/resource/statistics/asean-statistics/>) 데이터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자 : 2016. 4. 12)

아세안 회원국별 수산물 수입을 살펴보면, 최근 5년 아세안 역내 주요 수산물 수입국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로 이들 세 국가의 수산물 수입이 아세안 역내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국가별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미얀마가 2010년 약 17만 달러에서 2014년 약 719만 달러로 연평균 156%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태국도 연평균 13%의 수입 증가를 통해 2014년 약 53억 달러의 수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아세안 회원국의 연도별 역내 수산물 수입액(2010~2014)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1 싱가포르	455,116	505,484	520,295	521,286	523,405	3.6
2 태국	320,924	386,386	481,931	547,777	526,787	13.2
3 말레이시아	334,508	421,119	480,427	464,486	453,445	7.9
4 베트남	105,614	122,906	130,658	141,560	133,337	6.0
6 인도네시아	93,145	76,051	64,787	73,434	75,626	-5.1
7 필리핀	29,250	41,044	64,905	76,831	81,109	29.0
8 브루나이	34,641	41,902	33,475	43,916	38,770	2.9
5 미얀마	166	3,221	3,852	3,207	7,194	156.4
9 캄보디아	2,317	3,589	4,736	4,445	12,327	51.9
10 라오스	1,638	1,669	17,086	1,567	1,295	-5.7
합 계	1,377,318	1,603,372	1,832,152	1,878,509	1,853,295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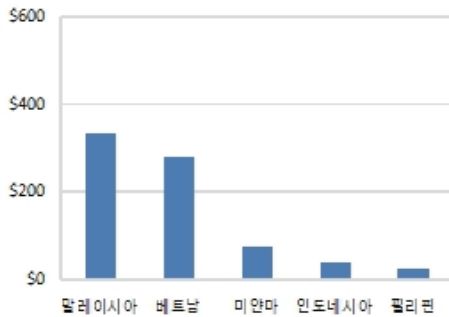
주: 정렬 기준은 회원국의 5년 평균 수입액임

자료: 아세안사무국, ASEANstats(<http://asean.org/resource/statistics/asean-statistics/>) 데이터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 2016. 4. 12)

아세안 역내에서 이뤄지는 수산물 교역의 국별·품목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국의 경우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냉동 가다랑어를 주로 수입하고, 그 외에 기타냉동어류와 갑오징어 등 원어 형태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조제가공 다랑어 및 가공 어류를, 베트남에는 주로 냉동새우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국의 경우 인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수산원료를 수입하고, 가공수산물 위주로 역내 국가에 수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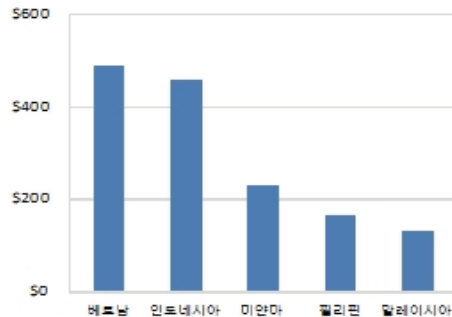
〈그림 2-8〉 태국의 수산물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그림 2-9〉 태국의 수산물 주요 수입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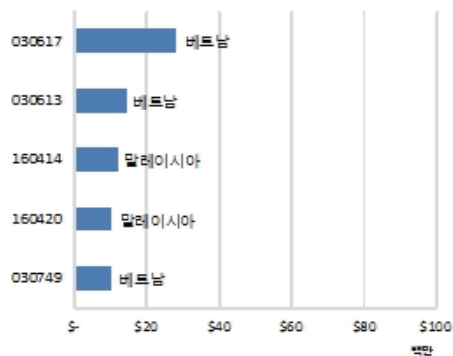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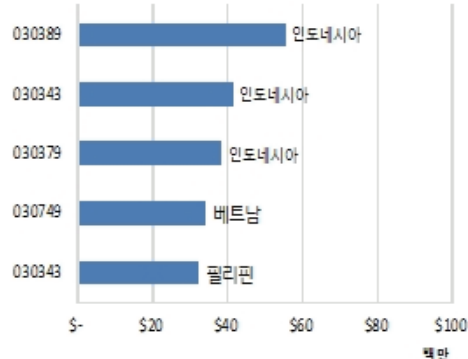
주 : 수산물 282개 품목의 5년 평균자료

자료 : 아세안사무국, ASEANstats(<http://asean.org/resource/statistics/asean-statistics/>) 데이터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그림 2-10〉 태국의 품목별·국가별
역내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그림 2-11〉 태국의 품목별·국가별
역내 수입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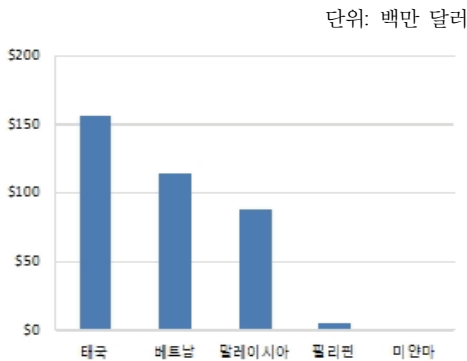
주1 : 수산물 282개 품목의 5년 평균자료

주2 : 030389 냉동 어류(기타), 030343 가다랑어(냉동), 030749 갑오징어(기타), 030379 냉동 담수어 및 해수어(제외. 연어류, 저서어, 참치, 가다랑어류, 청어류, 대구, 정어리, 뱀장어속, 해덕, 검정대구, 대서양산 참치), 030613 새우류(냉동), 030617 기타 새우류(냉동), 030749 갑오징어(기타), 160414 가다랑어 조제가공, 160420 고등어(조제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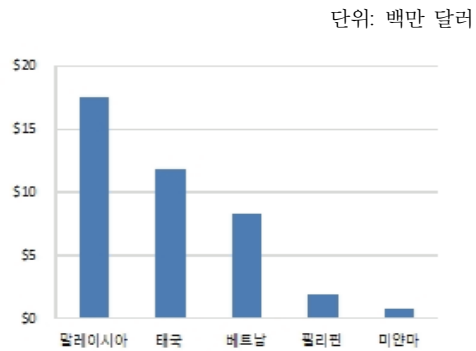
자료 : 아세안사무국, ASEANstats(<http://asean.org/resource/statistics/asean-statistics/>) 데이터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인도네시아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수출하지만 대태국 수출이 평균 1억 5,000만 달러로 월등히 높았으며 주로 냉동 가다랑어, 냉동 기타어류 등 원료 수출이 많았다. 한편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인근의 말레이시아로 냉동 고등어와 조제가공 고등어의 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태국에서 어류 건조제품과 황다랑어(냉동)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인도네시아의 수산물 수출 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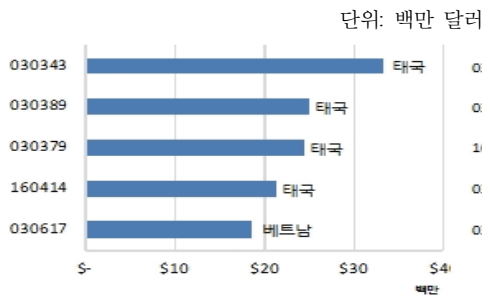
〈그림 2-13〉 인도네시아의 수산물 주요 수입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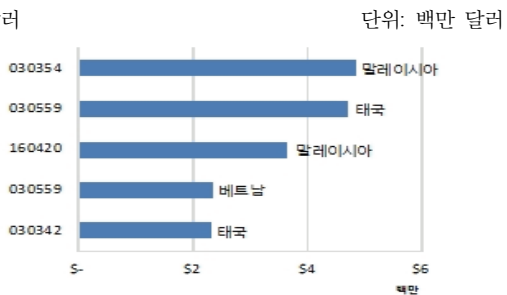
주 : 수산물 282개 품목의 5년 평균 수출액임

자료 : 아세안사무국, ASEANstats(<http://asean.org/resource/statistics/asean-statistics/>) 데이터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그림 2-14〉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국가별 수산물 수출



〈그림 2-15〉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국가별 수산물 수입



주1 : 수산물 282개 품목의 5년 평균 수출액임

주2 : 030343 가다랑어(냉동), 030389 냉동 어류(기타), 030379 냉동 닭수어 및 해수어, 160414 가다랑어 조제가공, 030617 기타새우류(냉동), 030354 고등어(냉동), 030559 어류 건조, 160420 고등어 조제가공, 030342 황다랑어(냉동)

자료 : 아세안사무국, ASEANstats(<http://asean.org/resource/statistics/asean-statistics/>) 데이터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4. 아세안 수산분야 투자 현황 및 제도

1) 아세안포괄투자협정과 투자 일반

아세안은 2012년 3월에 아세안포괄투자협정(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이하 ACIA)을 발효시켰다. ACIA를 통해 아세안 지역을 예측 가능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 장벽을 감소시키는 기업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아세안포괄투자협정(ACIA)은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따른다. 첫째, ASEAN 내 모든 투자는 새로운 성장 지역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역내 투자는 ASEAN-6(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에서 낙후된 국가로 투자를 도모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육성한다. 넷째, 지역 클러스터와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둔 공동투자촉진을 진흥한다.

ACIA의 적용대상은 다른 회원국의 투자자 및 투자자의 회원국 영토 내 투자이며, 협정 발효 이전과 발효 이후에 이뤄진 투자 모두에 적용된다. ACIA하의 투자자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일컫는데 개인(Natural Person)은 아세안 회원국의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한다. 법인(Juridical Person)은 기업, 주식회사, 신탁, 합자회사, 합작투자, 개인회사, 협회 또는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 또는 비영리, 개인 소유 또는 정부 소유의 회원국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구성 또는 조직된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투자대상 산업은 제조업, 농업, 수산업, 임업, 광업/채석을 포함하는 주요 5개 산업과 이들 산업의 연관 서비스 산업이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은 ACIA 제9조에 따라 5개 주요 산업 및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비확정 조치(non-conforming measures) 및 유지 규정에 관한 투자 자유 보류 목록(list of reservation)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목록에 포함된 않은 산업은 각국 정책을 따르게 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AEC 청사진의 전략적 일정(3단계)에 따라 보류목록(Reservation List)을 감소시킬 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 정책의 수렴, 투자 적용 및 승인에 관한 절차, 투자와 관련한 규칙, 규정,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보교환, 정부 부처 및 정부기관 간 협력강화, 투자촉진을 위한 민간부문 이해관계자와의 높은 수

준의 협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2013년 아세안 FDI 유입액은 1,220억 달러로 아세안 역외 지역에서의 FDI 유입액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아세안 역외 지역의 FDI는 전체의 89% 인 75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1,118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아세안 역외 지역으로부터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세안 역내 FDI는 같은 기간 96억 달러에서 24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아세안 FDI 유입을 2000-201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세안 역내 FDI는 연평균 25% 증가한 반면 아세안 역외 지역 FDI 는 연평균 13% 증가한 특징을 나타낸다.

〈표 2-15〉 아세안 FDI 유입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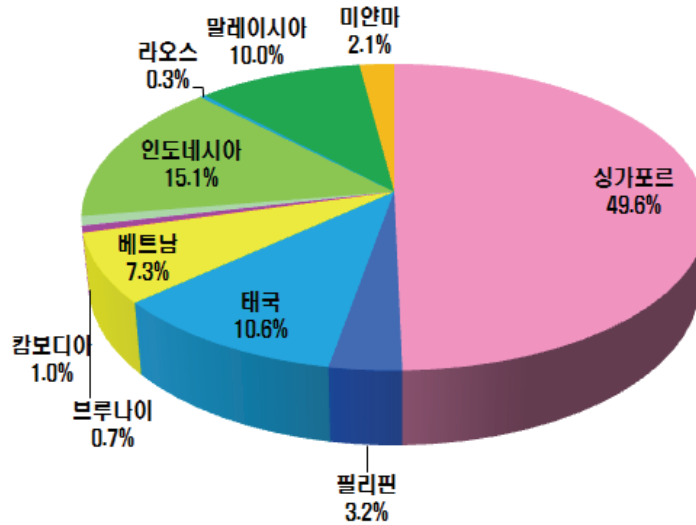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분류	2007	2009	2011	2012	2013	2014
아세안 역내국	9,634.0 (11.3)	6,672.5 (13.9)	14,559.8 (15.2)	20,548.8 (17.8)	19,399.6 (16.5)	24,377.4 (17.9)
아세안 역외국	75,282.5 (88.7)	41,255.5 (86.1)	81,278.1 (84.8)	94,904.0 (82.2)	98,287.5 (83.5)	111,803.9 (82.1)
합계	84,916.5 (100)	47,927.0 (100)	95,837.9 (100)	115,452.8(1 00)	117,687.0(1 00)	136,181.4(1 00)

자료: ASEAN Community in Figures(ACIF) 2015, ASEAN Secretariat 참고 저자 재작성

FDI의 최대 유입국은 싱가포르로 2013년 기준 아세안 전체 FDI의 약 50%를 차지했으며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은 CLMV 국가 중 FDI 유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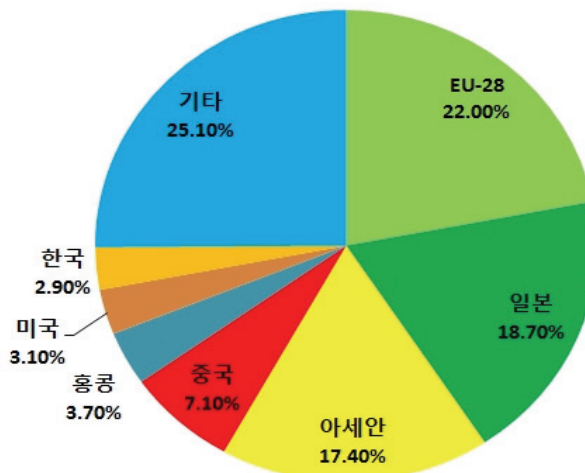
〈그림 2-16〉 아세안 FDI 유입국 (2013년 기준)



자료: ASEAN Community in Figures(ACIF) 2015, ASEAN Secretariat 참고 저자 재작성

2013년 기준 EU-28은 아세안 FDI의 22%를 차지하는 최대 투자국으로 나타났다. 일본 19%, 중국 7%, 한국 2.9%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세안 역내국의 FDI도 전체의 17%를 차지하였다.

〈그림 2-17〉 對아세안 FDI 투자국(2013년)



자료: ASEAN Community in Figures(ACIF) 2015, ASEAN Secretariat 참고 저자 재작성

〈표 2-16〉 투자국별 아세안 FDI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투자국		2007	2009	2011	2012	2013	2014
아세안 역내		9,634 (11.3)	6,672 (13.9)	14,560 (15.2)	20,549 (17.8)	19,400 (16.5)	24,377 (17.9)
아세안 역외		75,282 (88.7)	41,255 (86.1)	81,277 (84.8)	94,903 (82.2)	98,287 (83.5)	111,802 (82.1)
1	EU - 28	22,065 (26)	8,598 (17.9)	30,167 (31.5)	6,542 (5.7)	22,256 (18.9)	29,268 (21.5)
2	일 본	8,801 (10.4)	3,919 (8.2)	8,790 (9.1)	21,206 (18.4)	21,766 (18.5)	13,381 (9.8)
3	미 국	10,803 (12.7)	5,215 (10.9)	9,375 (9.8)	14,396 (12.4)	4,913 (4.2)	13,042 (9.6)
4	중 국	2,130 (2.5)	1,965 (4.1)	7,860 (8.2)	5,718 (5)	6,779 (5.7)	8,869 (6.5)
5	호 주	2,240 (2.6)	994 (2.1)	5,076 (5.3)	3,219 (2.8)	3,489 (3)	5,703 (4.2)
6	한 국	2,439 (2.9)	1,799 (3.8)	1,557 (1.6)	1,577 (1.4)	3,652 (3.1)	4,469 (3.3)
7	기타 국가	26,804 (31.6)	18,765 (39.1)	18,452 (19.3)	42,245 (36.5)	35,432 (30.1)	37,070 (27.2)
합계		84,916 (100)	47,927 (100)	95,837 (100)	115,452 (100)	117,687 (100)	136,179 (100)

자료: ASEAN Community in Figures(ACIF) 2015, ASEAN Secretariat 참고 저자 제작성

아세안 FDI의 주요한 투자처는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이다. 2005년 기준 제조업과 서비스 두 분야의 FDI는 전체의 88%를 차지하였고, 농림어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0.5%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3년 투자 분야에 대한 큰 변화는 없지만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1.9%를 차지,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2) 아세안 주요국의 수산분야 투자 제도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자국 식량안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에도 내국민대우를 적용

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전통어업(Traditional Fishery)²⁵⁾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EEZ 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이 허용되며, 관련 규제당국이 부과하는 인가 조건 대상이 된다. 또한 다음의 사업 설립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민대우’ 조항에 반하는 다음의 제약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 (a) 외국인 투자 폐쇄 산업 : 어류 및 기타 바다생물 염장/건조, 훈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식품 및 음료의 제조 산업(수산물 통조림 사업, 수산냉장사업, 어류사료사업)
- (b) 외국인 투자 폐쇄 및 내국인 투자자의 관련 장관/정부의 특별허가 요구 수족관 사용을 목적으로 자연으로부터 산호 및 장식용 산호를 사용 및 유통하는 경우 이식/증식 기술로부터 발생한 산호 및 죽은 산호의 사용 및 유통하는 경우
- (c) 외국인 자본 소유 제한 : 산호 재배의 경우 외국인 소유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
- (d) 영세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제휴²⁶⁾ 해양관광 및 어업 기자재 및 설비를 포함한 목선 산업 연체동물 및 기타 종류의 것으로 만든 수공예 산업; 수산가공업(발효, 환원/화학처리, 연육 및 해파리 가공)

(2) 태국

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이뤄지는 어업의 경우 외국인은 등기 자본금의 50% 또는 그 이상의 지분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내각의 승인 및 상무장관의 허가가 요구되는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태국 국적 또는 법인이 외국법인 자본의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태국 임원의 수가 총 임원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운영 착수를 위한 최소 자본은 3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²⁵⁾ 전통어업(Traditional fishery)은 소규모의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Small scale fisherman)을 의미하고, 소규모의 어업을 하는 어민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함.

²⁶⁾ 영세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제휴는 공동경영, 하청계약, 프랜차이즈, 판매점계약, 일반 무역, 합작투자, 아웃소싱의 형태를 포함함.

어업과 양식업의 경우 50% 이상의 태국 지분참여가 요구된다. 그러나 다랑어 심층 가두리 양식과 토착종인 스피니랩스터 양식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최대 등기자본금의 51%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이 등기자본금의 50%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업법(1999)에 따른 사업개발부 기관장의 허가 및 외국인 기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승인 또는 투자진흥법(1977)에 따른 진흥 또는 산업단지 공단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운영 착수에 사용되는 최소 자본으로 300만 바트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등이다.

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이뤄지는 어업 관련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도 50% 이상의 태국 지분 참여가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은 등기자본금의 50% 또는 그 이상의 지분보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태국 수역 및 경제특구 내에 수생동물 어업을 제외한 어업 관련 서비스 산업의 경우, 50% 이상의 태국 지분 참여가 요구되고, 사업개발부 기관장의 허가 및 외국 기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가 승인하였을 경우에만 외국인이 등기자본금의 50%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할 수 있다.

(3) 베트남

베트남은 수산분야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분야를 특정하고 있다. 즉, 어망 제조, 내수면 어업, 해면 어업, 산호 및 천연진주 채취, 그물 및 어망설의 제조 및 관련 서비스, 어선 유지 및 보수, 내수면 어업 관련 서비스, 양식 및 수산가공품의 검역·품질관리 서비스, 수산물의 가공 및 보존 관련 서비스, 수산물 가공통조림 서비스이다.

수산물 가공 및 수산물 통조림 제조의 경우 원재료 및 기술 조건을 따르고, 합작투자 형태를 취해야하며 베트남 정부가 규정하는 국산 원재료, 기술, 환경, 품질에 관한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의하는 베트남 EEZ에서 이뤄지는 어업활동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어선 관련 서비스, 어선 임차 및 어선원 고용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지분이 최대 30%로 제한된다. 선상에서 이뤄지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의 가공 및 기타 관련 서비스, 해산물 채취 관련 서비스,

수산물 수집 및 구매 서비스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최대 40%로 제한된다.

(4) 미얀마

외국인 투자자가 미얀마의 EEZ에서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수산부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 기구, 기존의 합작 투자회사 또는 미얀마의 민간 기업과 합작투자를 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수산축산부 산하의 수산부서와 논의한 뒤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MIC)와 무역위원회(Trade Council)를 거쳐 내각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된 사업에 대한 내각의 승인이 이뤄지면 MIC가 투자에 대해 허가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면허를 취득하여 수산부에 등록해야 한다.

어업 이외에 미얀마 정부가 규정하는 수산업 관련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선상에서의 어류, 갑각류, 연체수생동물의 가공과 관련한 서비스, 해양 생물의 이용, 내수면 어업의 이용과 관련 서비스 등이다. 마지막으로 검역, 양식 및 가공 제품의 품질 관리, 사료, 의약품 및 화학제품의 공급 서비스도 수산업 관련 서비스에 포함된다.

(5) 기 타

말레이시아에서 외국 국적어선은 EEZ에서 어획 및 어획 시도, 심지어 조사연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서면 승인 없이 말레이시아 조업 수역 또는 어항에서 모든 어류, 연료, 공급품의 하역 또는 양륙, 환적이 금지된다. 특히 다랑어 어업과 관련해서는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의 설립 시 현지 지분요건(local equity requirement)이 부과될 수 있다.

필리핀은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매우 제한적이다. 식량안보, 빈곤완화, 사회평등, 소득향상과 수익성, 글로벌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에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내국민대우’ 및 ‘고위경영자/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바이오연료 작물의 생산 및 원양 어업 관련 기관이 요청하는 기타 조건의 경우 외국자본이 최대 40%까지 허용된다.

브루나이는 EEZ의 어업 활동에 관한 내국민대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모든

어획된 생산물은 브루나이에서 양륙·가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브루나이 수산부가 지정하는 지역에 투자할 경우 최소한 30%의 현지 지분참여가 요구된다.

〈표 2-17〉 아세안 회원국별 수산분야 투자 제도

국가	주요 내용
브루나이	· 어선어업 활동, 내국민우대 적용 불가 · 모든 어획/생산: 브루나이에서 가공/양륙 필요 · 수산부가 투자 지역 지정, 모든 외국인 투자시 현지지분 참여 최소 30%
라오스	· 메콩강 지역 어류/양식 부화장: 라오스 국민이 전액 출자한 기업에 한정 · 모든 외국인,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활동 수행 불가
인도네시아	· 사업 면허기간: 5년(어업 및 양식업) · 외국인 투자자 100% 지분 소유시 면허허가 이전에 사전통지 대상 · 외국인 투자 조건부 개방: 식품 제조 산업(어류 통조림, 수산냉장, 어류사료사업)
말레이시아	·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획 또는 연구수행 미허용 · 참치어업과 관련한 내국민대우 적용 불가, 해당 사업 설립시 현지지분요건 부과
미얀마	· EEZ: 투자자는 미얀마 공공기관 또는 미얀마 민간 기업과 합작투자 · EEZ 이외 지역: 조업시 허가 신청
필리핀	· 소규모 어업: 외국인 투자 미허용 · 바이오연료 작물의 생산 및 원양어업: 외국자본이 최대 40%까지 허용
태국	· 태국 EEZ: 외국인 등기자본금의 50% 또는 그 이상의 지분 참여 · 어업과 양식업: 50% 이상의 태국 지분 참여 (다랑어심층가두리양식과 바닷가재 양식: 외국인 등기자본금의 51% 보유 허용) · 태국 수역 및 EEZ 내 어업 관련 서비스 산업: 50% 이상의 태국 지분 참여
베트남	· 수산물 가공 및 통조림 생산: 원재료 및 기술 조건 준수, 합작투자 형태 · 수산물 생산, 가공 서비스 관련: 외국인 투자 지분 최대 40% 제한 · 치어 생산 및 양식 운영: 외국인 투자회사의 치어가 현지회사 품질보다 높아야 함

자료: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2009 번역 및 저자 재정리

5. 시사점

아세안은 1993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한 이후 역내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2015년 12월에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되었다.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목표 가운데 가장 큰 성과는 관세 인하이다. 아세안 회원국 간 역내에서 교역되는 상품의 90% 이상이 무관세로 거래된다. 비관세 장벽의 경우도 세부 목표 및 이행시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 중장기적 측면에서 수산물을 포함한 역내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은 GDP 기여도, 자원부존량, 노동기술, 가격경쟁력 등의 기준으로 선정된 역내 중요산업에 대해 우선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세안의 수산업도 포함되어 있다. 수산업은 농업, 임업이 포함된 1차 산업 가운데 관세 철폐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여 아세안-6국가의 수산물 관세는 거의 철폐되었고, CLMV 국가의 관세도 2018년에 철폐될 예정이어서 관세에 따른 무역장벽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숙련 노동에 대해서만 자유이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태국-미얀마, 태국-라오스 등 인접 국가 간 활발한 인적교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아세안의 수산업은 농업, 임업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시장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수산물의 위생·안전 문제, 국제 규범 준수를 주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역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해 다국적 기업과 생산 활동과 연계하고자 하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아울러 향후 2025년 아세안의 수산 비전에서 양식어업의 발전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CLMV 국가는 양식 역량 강화에 지원하는 한편 아세안-6국가는 생태계 기반 양식어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에 힘을 쏟는 등 아세안 선진국가와 CLMV 국가 간 차별화된 양식어업 발전 방향을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세안의 수산물 교역에서 역외 수산물 교역 비중이 현저히 높지만 2005년~2014년 동안 아세안 역내 수산물 교역이 약 8.6%의 연평균 성장을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아세안 역내 수산물 교역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

레이시아, 베트남 4개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태국은 냉동어류, 새우 등 수산가공원료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여 가공수산물을 다시 수출하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수산가공제품 등 완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시장 및 단일 생산기지 구축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경제통합에서 수산분야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점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아세안 국가 간 역내 수산물 교역은 역외 수출확대를 위한 수산물 생산의 분업화 과정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의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로 인한 역내 수산물 소비 증가 요인도 향후 역내 수산물 교역의 증가를 유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은 역내 투자자유화 협정을 마련하고, 투자자유화를 위한 제조, 농업, 수산업 등 5개 산업과 이들 산업의 관련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자유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의 역외국의 FDI가 전체 투자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세안 역내국의 FDI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림어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어업에 한정한 투자제도를 살펴볼 때 각국 간 보류목록을 마련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 제도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제3장 주요국의 AEC 대응 수산분야 경제협력

앞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 배경과 추진현황 그리고 수산분야의 주요한 정책과 성과, 그리고 향후 10년의 아세안 수산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수산분야의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응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특징과 비교하고자 한다.

1. 일본

1) AEC 대응 일본의 대아세안 협력 개요

아세안은 2010년 10월 아세안 접근성에 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이하 MPAC)을 채택하였다. 물리적 접근, 제도적 접근, 인적 접근 등 세 가지 접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물리적 접근은 교통, 정보통신 기술(ICT), 에너지의 연계를 의미하고 제도적 접근은 상품 교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활성화, 인적 접근은 교육, 문화, 관광을 의미한다. 즉, 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리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교역과 투자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제도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아세안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아세안 접근성에 관한 중요성은 2015년 11월 ASEAN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선언문 「2025년으로의 전진(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발표된 아세안 접근성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3개 분야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즉, 아세안 동서남 지역의 육지를 연결하는 동서남 경제 회랑(East-West and Southern Economic Corridors) 개발, 아세안 지역의 해양 경제 회랑(Maritime ASEAN Economic Corridor), 아세안 지역의 소프트인프라 강화분야이다. 이어 2011년에 개최된 제14차 일본-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은 프

래그십 프로젝트(Flagship Projects)하에서 접근성 강화를 위해 32개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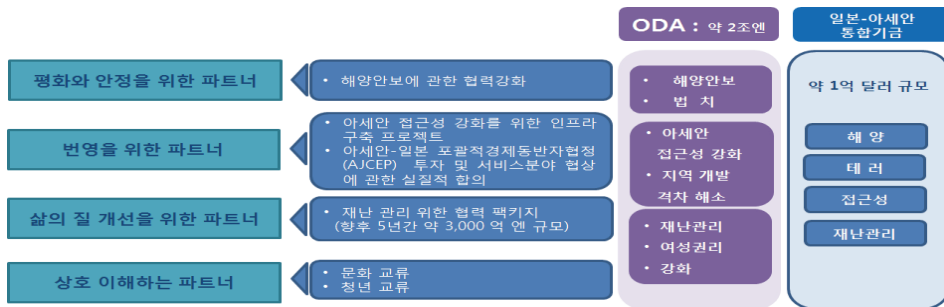
〈그림 3-1〉 일본의 대아세안 지역 경제개발촉



자료: Japan's cooperation towards the AEC, Mission of Japan to ASEAN, September, 2015, p. 19
 발췌(<http://www.asean.emb-japan.go.jp/documents/20151002.pdf>) (검색일자: 2016. 7. 26.)

이어 2013년 1월 18일에 개최된 일본-인도네시아 정상회의에서 일본 아베 총리는 아세안 회원국과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장려하고 보호하는 것 외에도 일본 자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아세안 국가와 다양한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교역과 투자를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2013년 12월 일본-아세안 협력 40주년을 기념하는 일본-아세안 기념 회담(Japan-ASEAN Commemorative Summit)에서 아세안-일본 우호 협력 비전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일본-아세안의 평화와 안정, 번영, 삶의 질, 상호이해(heart-to-heart partners)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엔 규모의 ODA 지원과 일본-아세안통합기금(Japan ASEAN Integration Fund, JAIF)을 설립하고, 약 1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아세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일본 협력 프로젝트(Japan's Cooperation Projects for Enhancing ASEAN Connectivity)’하에서 약 70여 개의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그림 3-2〉 일본-아세안 우호협력에 관한 비전 선언문의 주요 내용



자료: Implementation Plan of the Vision Statement on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 Shared Vision, Shared Identity, Shared Future, Annex, 14 December 2013, Tokyo 참조 저자 번역 및 재작성

다양한 프로젝트 가운데에서도 주목할 부문은 아세안 지역 소프트 인프라 강화분야의 식품 가치 사슬 강화 프로젝트, 아세안 국가의 공급 사슬 플랫폼 설립 등 역내에서의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공급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3-1〉 아세안 접근성에 관한 마스터플랜과 일본의 15대 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명
1	물리적 접근성	① 아세안 고속도로 네트워크(AHN) 완공 및 운송 향상
		② 싱가포르 쿤밍 철도 완공
		③ 아세안 광대역 통로지대(ASEAN Broadband Corridor, ABC) 설립
		④ 멜라카-페칸baru 상호연결(IMT-GT:인도네시아)
		⑤ 킬리만자로 서부-사라와카 상호연결(BIMP-EAGA:인도네시아)
		⑥ 롤온/롤오프(RoRo) 네트워크와 근해운송 연구
2	제도적 접근성	① AEC 우선통합산업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개발 및 운영
		② 표준 및 정합성 평가절차의 공동 규칙 마련
		③ 2012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싱글윈도우 운영
		④ 투자 제한 요소의 감소 및 철폐 위한 모델리티
		⑤ 운송시설에 관한 아세안 협정의 운영
3	인적 접근성	① 아세안 국가 간 비자 발급 조건 완화
		② 아세안 가상 학습 자원 센터(AVLRC) 개발
		③ ICT 기술 표준 개발
		④ 아세안 공동체 구축 프로그램

자료: Japan's cooperation towards the AEC, Mission of Japan to ASEAN, September, 2015, p. 17 번역 및 저자 재작성(<http://www.asean.emb-japan.go.jp/documents/20151002.pdf>) (검색일자: 2016. 7. 26)

2) 글로벌식량가치사슬 전략의 개요²⁷⁾

일본 정부는 세계 식품시장 규모가 2009년 3조 6천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7조 2천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5년 글로벌식량가치사슬(Global Food Value Chain, 이하 GFVC) 전략을 발표하였다.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을 통한 “Made WITH Japan 증진”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식량가치사슬 전략은 일본 식품산업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²⁸⁾ 이러한 일본 글로벌식량가치사슬 형성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협력을 지양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GFVC의 핵심 지역도 민간 투자의 잠재력이 높은 ASEAN, 중동, 중국,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7개 권역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식량가치사슬을 마련함으로써 생산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FVC에 참여하는 각 경제 주체에 더 높은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 정부는 글로벌식량가치사슬 수립에 대한 전략 마련을 위해 2014년 4월 식품관련 민간기업, 학계, 지방 및 중앙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공동실무그룹단(Joint Working Group on the Global Food Value Chain Strategy)을 출범시키고, 4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글로벌식량가치사슬 전략을 마련하였다.

27) 일본 농림수산성(2015) 「The Global Food Value Chain Strategy: Promote “Made WITH Japan”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과 일본 농림수산성(2016) 「The Global Food Value Chain Strategy: Promote “Made WITH Japan”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를 저자 번역하여 요약·재정리함

28) Establish food value chains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by utilizing the unique strengths of the Japanese food industry

〈표 3-2〉 일본 글로벌식량가치사슬전략 마련과 관련한 주요 일정

일시	개요	주요 참석자
2014년 4월 25일	제1차 회의 글로벌식량가치 사슬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일본 농림수산업성(MAFF), 대외무역기구(JETRO), 일본국제농업연구센터(JIRCAS)
2014년 5월 15일	제2차 회의	미주호은행(Mizuho Bank, Ltd.), 냉동설계시공 및 냉동기기업체((MAYEKAWA MFG.CO), 식품업체(Marubeni Corporation),
2014년 5월 22일	제3차 회의	유통업체(AEON), 농기계제조업체(Kubota), 식품전문상사(KOKUBU), 일본통운(NIPPON EXPRESS) 등
2014년 5월 30일	제4차 회의	식품업체(KAWASHO FOODS Corp, MOS FOOD SERVICE, INC, YOSHINOYA Holdings Co.)
2014년 6월 6일	글로벌식량가치사슬전략 마련	
2014년 6월 20일	글로벌식량가치사슬전략 이행을 위한 민관위원회 창립 (2016년 5월 기준 회원 297명) - 민간기업(209), 관련 기구(45), 학계(11), 지방정부(24), 중앙정부(7)	

자료: The Global Food Value Chain Strategy: Promote “Made WITH Japan”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일본 농림수산업성, 2016, p. 5 저자 번역 및 재정리함

글로벌식량가치사슬의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민관파트너십(PPP) 구축, 둘째 일본의 민관 위원회와 파트너 국가 간 양자정책협의회 개최, 셋째 ODA와 같은 경제 협력의 전략적 활용, 넷째 수출시장에 콜드체인과 같은 식품 관련 인프라를 개발함으로써 현지에서 일본 식품산업에 대한 우호적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정보수집 기능 강화, 일본 내외 인적자원 개발, 연구 기술 개발, 해외사업을 위한 금융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3〉 일본 식량가치사슬(FVC)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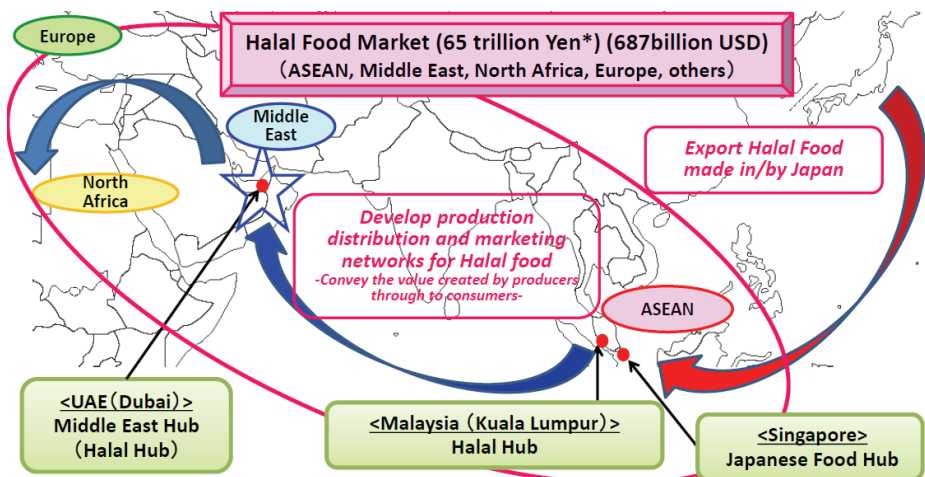
자료: The Global Food Value Chain Strategy: Promote “Made WITH Japan”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일본 농림수산성, 발췌, 저자 번역

또한, 일본 정부의 GFVC가 7개 권역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만큼 지역 맞춤형 글로벌식량가치사슬(GFVC)의 개념이 마련되었다. 글로벌식량가치사슬(GFVC)의 첫 번째 개념은 일본의 산업 네트워크 및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농장센터, 식품단지, 콜드체인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는 일본의 유통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아세안 지역에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 식품 관련 인프라를 개발하고 일본의 아세안 진출 기업의 니즈에 근거하여 시장지향적인 식품을 수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유통네트워크란 아세안 동서남 경제축(East-West and Southern Corridors), 스마트지식농업축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동서남 경제축이란 일본 정부가 남중국해와 메콩 지역의 인도양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으로 남부 측은 베트남의 호치민, 캄보디아 프놈펜, 태국 방콕, 미얀마 다웨이 지역이 포함되고, 동서경제축은 베트남 다낭~미얀마 마왈마잉 지역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민관파트너십(PPP)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식물공장(plant factories), 품질관리시스템 등 일본의 선진 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농장센터,

식품단지, 콜드체인을 개선함으로써 식량가치사슬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할랄 식품의 가치사슬을 마련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지역을 관문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즉,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를 할랄 식품 허브 지역으로 하고, 두 지역을 싱가포르 허브 지역과 연계시킴으로써 일본에서 생산된 할랄 식품의 수출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림 3-4〉 일본의 할랄식품 가치사슬 구축 개념도



자료: The Global Food Value Chain Strategy: Promote “Made WITH Japan”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일본 농림수산성, 2015, p.7 발췌·인용함

마지막 아프리카 지역은 생계형 농업을 기업형 농업(farming as business)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아프리카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frica Development, TICAD)²⁹⁾와의 협업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 제3국으로의 수출 증진, 개도국의 경제성장 및 농가 수입 증가의 기대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29) 아프리카 개발회의는 일본정부가 1993년에 다자협력 및 국가 간 파트너십을 통해 아프리카의 개발, 평화,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최함. TICAD는 경제성장, 무역, 투자, 지속가능개발, 인간 안보, 평화와 안정성 및 통치 체제와 관련된 이슈들에 관하여 아프리카 개발 파트너들과 아프리카 리더들간의 높은 수준의 정치 대화 촉구에 기여함

이처럼 일본 정부는 글로벌식량가치사슬 구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4년 6월 민간위원회를 창립하였는데 여기에는 중앙 정부를 비롯해 민간기업, 학계 등 약 300여 회원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글로벌식량가치사슬(GFVC) 형성을 통해서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도모, 일본 식품산업의 해외 사업 활성화 및 투자 증진, 일본 식품 관련 인프라 산업의 수출 증진, 및 현지에서 일본 식품 수출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3) 일본의 대아세안 식량가치사슬 구축

일본의 대아세안 식량가치사슬 구축에 관한 내용은 2013년 12월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국 정상은 우호협력에 관한 비전선언문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 of the Vision Statement on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³⁰⁾에서 아세안공동체 설립과 관련해 평등, 상호 호혜적이고 의미 있는 파트너십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리고 번영과 관련해 식량가치사슬에 관한 협력 증진조치를 담고 있다.³¹⁾ 선언문 발표 이후 일본 정부는 식량가치사슬 이행을 위해 아세안 개별 회원국 간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표 3-3〉 일본의 대아세안 식량가치사슬 구축 관련 주요 성과

구분	일시	주요 내용
ASEAN 사무국	2014~	일본-아세안 식량가치사슬 개발에 관한 성과
베트남	2014.6월	제1차 일본-베트남 농업협력대화에 관한 고위급 회담
	2015.8월	제2차 일본-베트남 농업협력대화에 관한 고위급 회담 베트남 농업협력에 관한 중장기 비전

³⁰⁾ Implementation Plan of the Vision Statement on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 Shared Vision, Shared Identity, Shared Future, ASEAN, December 2013, Tokyo

³¹⁾ 선언문 제2조 26항

구분	일시	주요 내용
미얀마	2014.9월	제1차 미얀마 농림수산물개발을 위한 일본-미얀마협력대화에 관한 고위급 회담
	2015.6월	미얀마 농림수산물개발을 위한 일본-미얀마협력대화에 관한 실무회담
인도네시아	2015.6월	제1차 일본-인도네시아 농업협력 포럼
태국	2015.7월	일본-태국 농업분야 고위급협력대화 서립을 위한 준비회의
캄보디아	2015.12월	제1차 일본-캄보디아 식량가치사슬 양자회담
필리핀	2016.3월	제1차 일본-필리핀 농업협력대화

자료: Promoting The Global Food Value Chain Strategy,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une 2016, pp. 11~16, 저자 번역 및 재작성

일본 정부는 아세안사무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6개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중에서 베트남 정부와의 회담이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8월에 개최된 제2차 일본-베트남 농업협력대화를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베트남 식량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농업협력 중장기 비전을 채택하고 농업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행동계획(2015~2019년)을 구체화하였다. 생산성 증가, 식품 가공,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구분되는 행동계획에는 베트남 전 지역에 적용되는 공통 조치와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조치로 구분하였다. 특히 수산분야는 생산성 증가와 관련해 일본 수산 자문단 파견, 어업 감시를 위한 일본 중고어선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가공분야는 베트남 램 동(Lam Dong) 지역에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식품가공 및 해운 시설 설비, 농업과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농업 단지 설립에 관한 검토와 이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통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 도시와 대도시에서 저온창고와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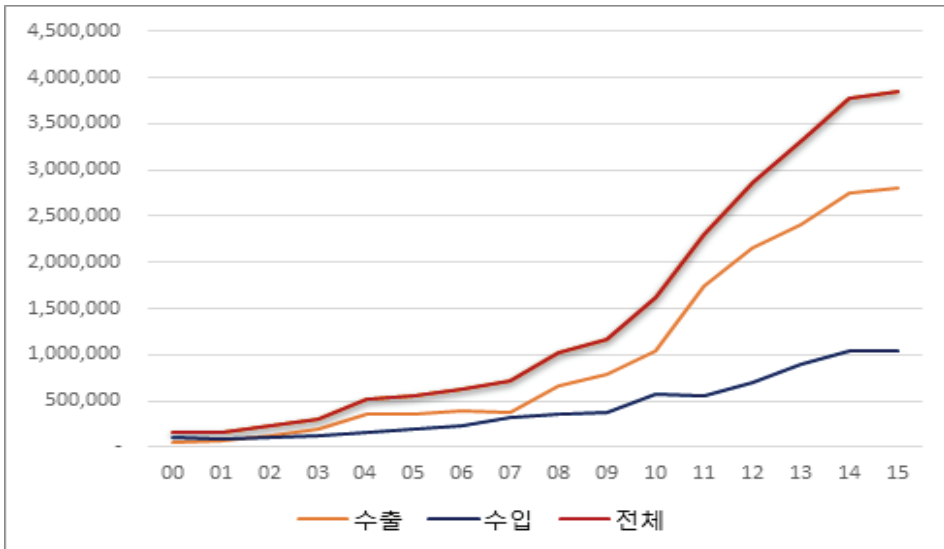
2. 중국

1) 중국의 대아세안 수산물 교역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수산물 교역액은 2000년 약 1억 5천만 달러에서 2015년 약 38억 달러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전체 교역 규모가 지난 15년간 연평균 약 23% 성장하였고 수출은 약 30%, 수입은 약 17% 증가하였다.

〈그림 3-5〉 중국 대아세안 수산물 교역 추이(2000~2015)

단위: 천 달러



자료: Global Trade Atlas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자 : 2016. 8. 24.)

이 중에서도 중국의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약 10억 달러에서 2015년 약 28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아세안 회원국 중 최대 수산물 수출대상국은 태국(33%), 말레이시아(30%), 필리핀(15%)으로 해당 국가의 수출비중이 각각 33%, 30%, 15%를 차지하였다. 특히 중국의 대태국 수출은 2010년 1.5억 달러에서 2015년 12억 달러로 연평균 50%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3-4〉 중국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액 추이

단위: 천 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감률
캄보디아	655	859	2,984	3,461	4,534	5,244	52
태국	157,646	335,698	521,790	659,729	910,850	1,204,940	50
미얀마	799	773	942	1,234	1,472	3,018	30
필리핀	140,589	183,128	306,089	353,273	417,434	508,827	29
브루나이	456	1,022	2,074	2,407	2,338	1,608	29
싱가포르	101,575	111,455	145,165	262,601	296,395	336,918	27
말레이시아	364,304	533,168	714,813	766,865	834,468	516,892	7
베트남	91,179	280,866	258,556	184,369	106,796	96,919	1
라오스	1	-	37	4	16	7	-
인도네시아	192,587	290,816	197,037	170,238	171,076	128,280	-8
합계	1,049,791	1,737,785	2,149,487	2,404,181	2,745,379	2,802,653	22

자료: Global Trade Atlas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검색일자 : 2016. 8. 24.)

중국의 대아세안 국가별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오징어, 새우, 게류 등이다. 태국의 경우 오징어(2.3억 달러), 다랑어(1.4억 달러), 정어리(0.5억 달러), 게(0.4억 달러), 고등어(0.2억 달러), 해삼(0.1억 달러), 김(0.1억 달러) 등이 주로 수출되었다. 이 외에도 베트남과 싱가포르에는 게류, 말레이시아에는 새우류, 필리핀에는 오징어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중국의 대아세안 주요 수출 수산물

단위: 천 달러

국가	품목
캄보디아	김(3,452), 해조류(682), 고등어(269) 등
태국	오징어(230,987), 다랑어(145,326), 정어리(52,899), 게(40,779), 고등어(27,743), 해삼(13,261), 김(13,045), 한천(9,205), 해조류(8,842), 문어(8,612), 뱀장어(7,782), 새우(6,835), 전복(4,896), 연어(3,201) 등
미얀마	한천(455), 오징어(385) 등
필리핀	오징어(69,973), 고등어(44,517), 다랑어(30,773), 정어리(26,818), 새우(24,734) 등
브루나이	오징어(356), 뱀장어(148) 등
인도네시아	고등어(74,876), 정어리(38,239), 게(12,447), 다랑어(7,513), 오징어(6,702), 한천(3,587), 새우(2,417), 문어(1,458) 등
싱가포르	게(34,135), 가리비(26,659), 새우(23,294), 다랑어(16,602), 해삼(15,841), 전복(9,992), 오징어(9,595), 뱀장어(8,728) 등
말레이시아	새우(289,308), 오징어(59,644), 해삼(31,270), 게(17,936), 고등어(16,425) 등
베트남	게(37,379), 오징어(31,123), 새우(12,459), 다랑어(7,132), 고등어(6,628), 김(4,285), 가리비(3,456), 문어(2,528), 어분(2,437) 등
라오스	-
인도네시아	고등어(74,876), 정어리(38,239), 게(12,447), 다랑어(7,513), 오징어(6,702), 한천(3,587), 새우(2,417), 문어(1,458) 등

주: 금액별 큰 순서임 (2010년~2015년 평균 금액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 2016. 8. 24.)

반대로 중국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약 10억 달러로 나타났다. 아세안 국가 중 최대 수입국은 인도네시아(40%), 태국(29%), 베트남(17%) 순이며, 연평균 중국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브루나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 중국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입액 추이

단위: 천 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감률
브루나이	59	73	144	192	231	221	30
베트남	54,709	68,518	106,890	147,791	179,957	184,730	28
필리핀	11,850	20,626	27,770	46,368	39,919	39,425	27
캄보디아	919	2,546	3,849	3,343	3,852	2,401	21
인도네시아	156,261	193,319	262,167	364,849	416,248	411,218	21
태국	211,759	168,193	200,577	247,443	300,326	307,208	8
말레이시아	54,407	36,835	33,385	22,758	36,954	56,157	1
라오스	-	-	-	-	-	3	-
싱가포르	3,918	5,117	5,246	7,283	4,202	3,623	-2
미얀마	73,705	60,495	61,779	61,781	55,304	36,309	-13
합계	567,587	555,722	701,807	901,808	1,036,993	1,041,295	13

자료: Global Trade Atlas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 2016. 8. 24.)

〈표 3-7〉 중국의 대아세안 주요 수입 수산물

단위: 천 달러

국가	품목
브루나이	새우(77) 등
베트남	어분(59,785), 메기(21,144), 새우(14,242) 등
필리핀	게(7,700), 해조류(7,022), 새우(1,878), 바닷가재(1,849), 산호(1,475) 등
캄보디아	새우(815), 게(71) 등
인도네시아	해조류(124,226), 새우(36,234), 오징어(33,402), 게(28,788), 산호(5,168), 관상어(1,598), 새치(1,464), 어분(1,268) 등
태국	어분(53,761), 새우(83,156), 다랑어(8,588), 김(8,577), 게(4,322), 바닷가재(2,583), 오징어(2,337), 산호(2,112), 뱀장어(1,024) 등
말레이시아	새우(9,213), 어분(6,975), 오징어(5,836), 게(3,009), 관상어(1,202) 등
라오스	-
싱가포르	새우(2,443), 상어(1,609) 등
미얀마	게(21,150), 새우(14,114), 어분(4,219), 오징어(1,055) 등

주: 금액별 큰 순서임 (2010년~2015년 평균 금액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 2016. 8. 24.)

중국의 대아세안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어분, 게, 새우, 해조류 등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조류를 연간 약 1.2억 달러 수입하였다. 이 외에도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어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새우를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국과 아세안 간 수산물 교역은 수출입 모두 빠르게 성장하였다. 현재 수입보다는 중국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 규모가 더 크지만, 최근 들어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수산물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원양어업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수산자원국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한 식량자원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2) 중국의 대아세안 수산협력과 일대일로(一對一路) 전략

중국 수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전략은 일대일로(一對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서부 및 중남부 지역과 유라시아 거점 지역에 항만, 항공,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거시적인 구상으로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산분야의 전략적 확대 진출을 도모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살펴보면, 2013년 4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정책을 제안한 후, 2015년 3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비전 및 액션 플랜³²⁾’ 비전을 통해 일대일로 구현을 위한 실천사항을 확립하였다. 이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여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심화시키기 위해 역내 국가들 간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은 크게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로 나뉘는데 이 중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남중국해(ASEAN 포함)-인도양-유럽과 중국-남중국해(ASEAN 포함)-남태평양 2개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점 항구를 중심으로 두마이(인도네시아)~말라카(말레이시아), 베라완(인도네시아)~페낭(말레이시아)~푸켓(태국), 다바오(필리핀)~비통(인도네시아) 등을 연결하는 계획이다.

32) ‘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그림 3-6〉 중국의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자료: 매일경제 (“육·해상 新실크로드 60개국 참여” 2015.3.29.)
(검색일자 : 2016. 9. 23.)

일대일로 실현을 위하여 5개 중점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 정책 소통 활성화, 교통, 통신망, 에너지 등 인프라 연계, 자유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무역 원활화, 위안화 국제화 등을 위한 자금 융통, 문화교류 강화를 위한 민심상통이다. 이 중 무역 원활화 분야에 선정된 우선적 투자개방 분야에는 수산업, 원양 어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8〉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5개 핵심 분야

구분	주요 내용
정책소통 (政策沟通)	- 정부 간 정책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거시정책 소통시스템 구축 - 역내협력계획 공동제정 및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정책 지원
인프라 연계 (設施联通)	- 인프라 연결은 新실크로드 건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 교통(철도, 항공 등)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연계 및 구축 - 운송협력시스템 구축
무역 원활화 (貿易畅通)	- 비관세장벽 완화, 국경통관인프라 개선 - 투자장벽 제거(양자 간 투자보호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 상호간 투자영역 개방(농수산, 농기계, 농산물가공, 해면양식, 원양어업, 수산물가공, 담수화, 환경보호 등) - 신성장동력 산업(IT, 신에너지, 신소재 등) 협력 추진 - 분업체계 개선 및 부가가치사슬 연관 산업의 공동 발전 도모
자금유통 (資金融通)	- 아시아 통화안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BRICS 개발은행 설립 및 확대 추진 - 실크로드기금 설립 및 운영 - 중국-ASEAN 간 은행연합체 협력 강화 등
민심상통 (民心相通)	- 문화·학술인적 교류 확대 - 의료원조 등 공공위생 협력 강화 - 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 등

자료: 이문형, 「중국, 뉴실크로드 건설 전략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5 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또한 중국은 해상실크로드 구축이라는 기조 하에 해상 협력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2011년 원자바오 총리가 제14차 중국·아세안정상회의에서 약 30억 위안(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중국·아세안 해양협력기금’ 설립을 제안하였고, 제16차 중국·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f the 16th ASEAN-China Summit, 2013)에서 동 기금을 항만 연계성, 수산업, 해양과학 및 기술, 환경보호, 항해 안전, 해상 구조, 해양 문화 등의 협력 사업에 쓰이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수산업, 해양 인프라, 해양환경, 해상구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표 3-9〉 ‘중국·아세안 해양협력기금’ 1차 승인 프로젝트 리스트

프로젝트명	제출부서
중국·아세안해양협력기금 마스터플랜 수립	외교부
‘남중국해 행동선언’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협력	외교부
중아세안 해상긴급구조 비상연락망 구축	교통부
중국·아세안 해양지질연구 및 재해예방 이니셔티브	국토자원부
중국·아세안 공동 양식기술연구 및 보급센터 설립	기술부
동남아시아 해양환경 예측 및 재해경보 통계 시스템 구축	국가해양국
중국·아세안 어업 협력 및 수산물 교역 플랫폼 구축	푸젠성
인도네시아 금마안 어업 종합 기지 현대화 프로젝트	푸젠성
중국·아세안 항구도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광시좡족자치구

주: 중국 정부에서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 17개 프로젝트 중 일부만 확인 가능

자료: 康霖 罗亮. 2014. (http://www.ciis.org.cn/gyzz/2014-10/14/content_7294831.htm)

(검색일자 : 2016. 9. 23.)

동 기금을 통해 중국 외교부는 2013년 1차적으로 총 17개의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는데, 이 중 수산분야에서는 양식기술센터 설립, 인도네시아 어업기지 현대화, 수산물 교역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 이 기금을 통해 2014년 11월 푸저우 마웨이(马尾) 항구에는 대아세안 수산물 교역 확대를 위한 ‘중국·아세안수산물교역센터(中国东盟海产品交易所, CAMPE)’가 설립되었다. 동 센터에는 현재 약 80여개의 중국과 아세안 수산 관련 생산·가공·교역 업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 공급을 위해 양측 동일한 위생기준 마련, 거래비용 최소화, 현대적인 콜드체인 시스템 및 수산물 안전 추적 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양측은 2015년을 양측이 ‘중국·아세안 해양협력의 해’로 지정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중국·아세안 해양협력센터’를 샤먼에 설립하였다.

〈그림 3-7〉 중국-ASEAN 수산물교역센터 전경



자료: 중국·아세안수산물교역센터(<http://www.campe.com>) (검색일자 : 2016. 9. 23.)

이외에도 중국은 기금을 활용하여 매년 수산전시회 개최, 교역센터 설립 및 운영, 기술이전 사업 등 수산분야 경제협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양식업과 수산가공, 원양어업 등이 발달된 푸젠(푸저우, 샤먼), 광시(난닝), 광둥(잔장) 등 남부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 지역이 중국의 대아세안 수산 협력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3-10〉 중국 대아세안 해상실크로드 추진 현황

구분	주요 내용
2011. 11	제14차 중국·아세안정상회의 - 중국·아세안 해양협력기금(30억 위안) 설치 제안
2014. 11.	제17차 중국·아세안정상회의 (리커창 6대 과제 제시) - 리커창 총리의 6대 과제 중 4번째 주요 과제로 해상 협력을 강조 : 해상 협력에서의 새로운 하이라이트를 만든다. 2015년을 ‘중국·아세안 해양 협력의 해’로 결정하여 해상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해상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구 간에 대화 협력을 강화하며, 해양협력센터를 설립한다. <범북 부만 경제협력 로드맵> 구현에 힘쓴다. 중국·아세안 해상협력기금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 아세안 회원국에 20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약속

구분	주요 내용
	푸젠성 샤먼시 「일대일로 건설전략 실행을 위한 행동방안」 제정 - 해양협력 분야에서는 기존의 샤먼 국제협력 주간과 샤먼 남방해양연구센터의 해양 어업분야 협력사업 등을 활용하고, 중국-아세안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어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의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
2014. 12.	광둥성 잔장, 광시장족자치구 난닝, 하이난성 하이커우 세관은 중국 서남 연해지역의 국제물류기지로써의 발전과 ‘광서북부만경제구’의 발전을 목적으로 MOU 체결
2015. 2.	장쑤성 난통시 <2015년 해상실크로드 대아세안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2015. 3.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비전 및 행동계획」수립, 3개 남부 주요 핵심지역 선정 - 저장(절강) 해양경제 발전시범구 - 푸젠해협 블루경제 시험구 - 저우산 군도 신구
2015. 5	「푸젠성 해양경제 업무 요점」 발표 - 중국-아세안 해상협력기금 프로젝트 추진 - 해상실크로드 연선국가와의 교류 강화 - 수산물 수출기업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현대 수산업 수출 기지 건설 추진(조기, 전복 등 수출 주요 품종을 중심으로 수출 기지 설립)

자료: 중국 농림부 홈페이지(www.amic.agri.gov.cn) 검색 후 저자 번역 및 재작성
(검색일자 : 2016. 9. 23.)

〈그림 3-8〉 중국의 대아세안 해양수산협력 핵심 지역



자료: 구글지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http://maps.google.com>) (검색일자 : 2016. 9. 23)

또한 베트남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 새우와 틸라피아 양식의 허브 지역인 중국 광시 좡족 자치구는 아세안 회원국과 수산분야 투자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4년 9월 광시 지역에서 개최한 ‘해상실크로드 국제수산협력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 수산종묘, 양식사료, 수의약, 수산가공 분야에서 특히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광시 자치구와 브루나이는 2011년 ‘굴 양식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협의하였고, 2016년에는 병어돔 양식합작회사(Hiseaton Fisheries (B) Sdn Bhd)를 건립하였다. 동 회사를 통해 양식장 건설뿐만 아니라 부화장, 가공공장, 연구개발센터까지 건립될 예정이며, 중국에서 원료 조달 후 브루나이에서 가공하고 미국, 중동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광시 자치구는 2013년 베트남과 ‘수산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수산물 가공 및 무역 촉진을 도모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원양어업, 수산물 가공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해상 실크로드 국제수산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표 3-11〉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별 협력 현황

거점 지역	주요 내용
푸젠성 (福建省)	- 푸조우(福州) 중국·아세안수산물교역센터 설립 - 샤먼(厦门) 중국·아세안협력센터 설립 - 샤먼(厦门) 남방해양연구센터 어업분야 협력사업 -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원양어업 기지 및 양식기지(1.63만ha) 건설 - 인도네시아 금마안(金馬安) 어업종합기지 현대화 사업
광시성 (廣西省)	- 난닝(南宁)시에서 매년 중국·아세안엑스포 개최 - 브루나이와 굴양식개발프레임워크 협의(2011) - 브루나이에 병어돔양식합작회사 설립

자료: Hou Weili 2014, Gao Fu Mao 2015, Rui Hao Puah 2016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이와 같이 중국은 ‘21세기 新해상 실크로드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국가전략 하에 중국 남부에 위치한 수산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와 수산분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0년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통해 비관세 장벽 및 투자 장벽은 더욱 완화되었으며, 해상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중국과 아세안 간 연계성은 더욱 개선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 간 수산물 교역 및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

1) 대아세안 수산물 교역 현황

(1) 한-아세안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세계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칠레의 첫 FTA 발효를 시작으로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호주 등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그 외에도 한·중·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중남미 국가들과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표 3-12〉 우리나라 FTA 체결 및 추진 동향(2016년 3월 기준)

구 분	대상국가	진행 상황	비고
협정 발효 (15건)	칠레	발효(2004.4.1)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발효(2006.3.2)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4)	발효(2006.9.1)	유럽시장 교두보
	ASEAN(10)	발효(2007.6.1)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발효(2010.1.1)	BRICs국가, 거대시장
	EU(28)	발효(2011.7.1)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페루	발효(2011.8.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발효(2012.3.15)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발효(2013.5.1)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호주	발효(2014.12.12)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캐나다	발효(2015.1.1)	북미 선진시장
	중국	발효(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15년 기준)
	뉴질랜드	발효(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발효(2015.12.20.)	우리의 제3위 투자대상국 ('15.9월 기준)
협상 진행	콜롬비아	발효(2016.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한·중·일	협상개시 선언(2012.11.20),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구 분	대상국가	진행 상황	비고
(5건)		제13차 협상 개최(2016.1월)	
	RCEP(15)	협상개시 선언(2012.11.20.) 제11차 협상 개최(2016.2월)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중미(6)	협상개시 선언(2015.6월) 제3차 협상 개최(2016.2월)	중미 신시장 창출
	에콰도르 SECA	협상개시 선언(2015.8.25) 제2차 협상 개최(2016.3월)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이스라엘	민간공동연구 완료(2010.8월)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협상 재개, 여건 조성 (4건)	인도네시아	협상개시 선언(2012.3.28.) 제7차 협상 개최(2014.2월)	ASEAN 회원국 중 우리의 제3 위 교역국 ('15년 기준)
	일본	협상 개시(2003.12월)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협의 (2008년~2012년)	우리의 제5위 교역대상 ('15년 기준)
	멕시코	제2차 협상 개최 후 중단(2008.6 월)	북중미 시장 교두보
	GCC(6)	협상 개시(2008.7월) 제3차 협상 개최 후 중단(2009.7 월)	자원부국, 기업선호도 1위('15년 기준)

- 주: 1)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3) EU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4) RCEP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5) 중미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6) GCC :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7) 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자료: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검색일자 : 2016.9.12.)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에 발효되었으며,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한-아세안 FTA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수산물 446개 품목 중 70.4%인 314개 품목을 일반품목군³³⁾으로 양허하였고, 나머지 132개 품목에 대해서는 민감품목군³⁴⁾으로 분류하여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 기간을

33) 즉시 철폐, NT 2008, NT 2010

확보하였다. 민감품목(SL)에는 가오리(냉동) 등 54개 품목으로 이들 품목은 2015년까지 관세 유예 후 2016년 이후 0~5%로 관세가 인하된다. 초민감 품목(관세 상한(A), 20% 감축(B), TRQ, 미양허)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였다. 한·ASEAN FTA 발효 9년차인 2015년에는 일반품목군은 관세가 모두 철폐되었고 민감품목(SL)에 대해서는 양허관세가 적용된다.

〈표 3-13〉 한·아세안 FTA의 우리나라 수산물 양허 내용

양허 유형	품목수	주요 품목	비고
즉시	86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틸라피아(냉동 피레트), 남방참다랑어(냉동), 참다랑어(냉동 피레트), 날개다랑어(냉동) 등	'07년 철폐
NT 2008	210	연어(밀폐용기), 문어(냉동), 고등어(밀폐용기), 이빨고기(냉동), 키조개(냉동), 봉장어(냉동 피레트) 등	'08년 철폐
NT 2010	18	주꾸미(냉동), 쥐치포, 낙지(냉동), 해파리(염장·염수장), 해삼(조제·저장), 황새치(냉동 피레트) 등	'10년 철폐
SL	54	가오리(냉동), 생선묵, 피조개(냉동), 기타넙치(냉동), 김(조제), 눈다랑어(냉동), 정어리(냉동) 등	~'12년 20%, ~'16년 0~5%로 인하
A	1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15년 유예, '16년 50% 상한
B	26	오징어(건조), 오징어(냉동), 멸치(건조), 조미오징어, 꽃게(냉동), 눈다랑어(신선·냉장), 고등어(냉동) 등	~'15년 유예, '16년 20% 감축
TRQ	5	새우살, 새우와 보리새우(냉장·냉동),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등	
양허 제외	46	전갱이(냉동), 가다랑어(밀폐용기), 황새치(냉동), 갈치(냉동), 돔(냉동), 민어(냉동) 등	
계	446		

주: 협정 당시 품목 분류(HSK 2007) 기준

자료: 한·아세안 FTA 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34) SL, A, B, TRQ, 미양허

(2) 한국-아세안 수산물 교역 현황

우리나라는 2007년 6월 아세안과 FTA 상품협정 발효를 전후해서³⁵⁾ 양국의 수산물 교역이 활발해졌다. FTA 발효 전인 2005년 수산물 수입액이 약 3억 7천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7년 수입액이 약 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즉, FTA 협정 발효해인 2007년 대비 대아세안 수산물 수입이 연평균 7% 증가한 셈이다.

〈표 3-14〉 한-아세안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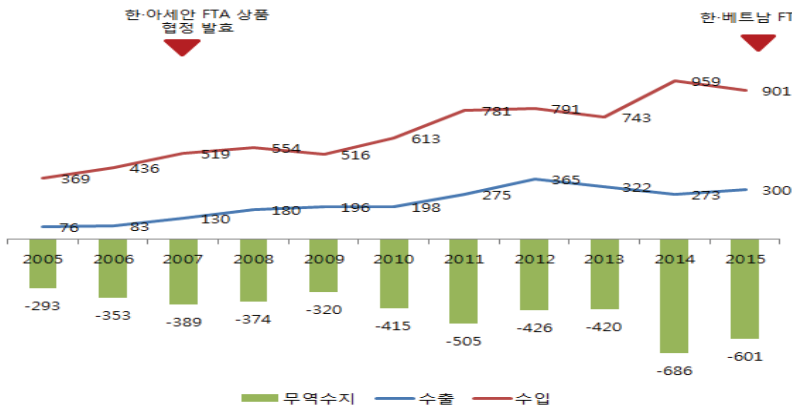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75,758	129,944	198,237	275,476	364,864	322,276	273,193	300,284
수입	368,730	519,293	613,358	780,867	791,347	742,679	958,726	901,155
무역수지	-292,972	-383,349	-415,121	-505,391	-426,483	-420,403	-685,533	-600,871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jsp/dp/pr/pr_year_nat_list.jsp?menuDepth=040305), 데이터 활용,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2016. 10. 1.)

〈그림 3-9〉 한-아세안 수산물 교역 및 무역수지(2005~2015)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jsp/dp/pr/pr_year_nat_list.jsp?menuDepth=040305) 데이터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2016. 10. 1.)

35)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가 발효함

최근 5년간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수산물 무역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총 5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대베트남의 2010년 수산물 수출이 3,200만 달러(30,732톤), 수산물 수입 3억 7,634달러(12만 톤)으로 3억 4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후 적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여 2014년 최대 5억 6,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또한 태국의 경우에는 2013년까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다가 2014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특징이 있다. 대아세안 시장 수산물 수입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량 기준 67%, 금액 기준 64%로 대표적인 수입 대상국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이다.

〈표 3-15〉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2010~2015)

단위: 천 달러

구분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베트남	(344,329)	(421,272)	(452,473)	(414,024)	(556,460)	(493,606)
2	인도네시아	(54,686)	(61,710)	(58,665)	(48,396)	(58,928)	(51,651)
3	말레이시아	(38,823)	(46,279)	(25,587)	(29,788)	(37,912)	(24,086)
4	필리핀	(4,181)	(13,795)	(3,901)	(19,916)	(14,121)	(12,467)
5	캄보디아	(275)	(9,801)	(6,104)	141	(34)	521
6	미얀마	(1,955)	(1,980)	(2,661)	(2,491)	(1,770)	(2,945)
7	브루나이	4	(0)	(75)	(83)	(104)	87
8	라오스	1	11	8	43	140	37
9	싱가포르	3,251	10,987	8,367	6,541	8,282	15,334
10	태국	25,866	38,322	116,375	87,547	(24,671)	(35,206)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무역통계서비스

(<http://www.trass.or.kr/service/statistic/StatisticsViewServlet?mainServiceURL=P09M01D010>)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 2016. 10. 1.)

〈표 3-16〉 아세안 주요국의 수산물 평균 수입 규모

단위: 천 달러, %

구분	국 가	수입량	수입액
1	베트남	134,768(67)	511,087(64)
2	태국	30,089(15)	139,975(18)
3	인도네시아	24,280(12)	67,372(8)
4	말레이시아	7,761(4)	43,103(5)
5	필리핀	3,631(2)	26,926(3)
아세안 수입 평균		202,226(100)	798,072,629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무역통계서비스

(http://www.trass.or.kr/service/statistic/StatisticsViewServlet?mainServiceURL=P09M01D010)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 2016. 10. 1.)

국가별 수입 품목을 살펴보면 베트남의 경우 원어상태의 기타어류, 새우살(새우와 보리새우, 냉동), 주꾸미가 주로 수입되고 있다. 연도별 수입 품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주요 5대 품목의 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새우살과 새우의 수입은 2015년 기준 최대 수입 품목으로 나타났다. 주꾸미는 2010년 6천만 달러에서 2015년 약 9,5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쥐치는 3,400만 달러 수준으로 꾸준히 수입이 이뤄지고 있었다.

〈표 3-17〉 대베트남 수산물 수입 품목의 변화

단위: 천 달러

구분	2010		2012		2015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기타어류	76,029	기타어류	76,029	새우살	127,443
2	주꾸미	60,088	새우살	60,088	새우	120,052
3	새우살	59,039	새우	59,039	기타어류	108,677
4	새우	57,323	주꾸미	57,323	주꾸미	94,995
5	쥐치	34,732	쥐치	34,732	쥐치	35,873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무역통계서비스

(http://www.trass.or.kr/service/statistic/StatisticsViewServlet?mainServiceURL=P09M01D010)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 2016년 10. 1.)

대태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새우, 주꾸미, 기타어류 등이다. 매년 최대 수입 품목은 새우이며 주꾸미는 수입액이 2010년 300만 달러에서 2012년 1,326만 달러, 2013년 3,661만 달러로 급격하게 증가한 특징을 나타냈다.

〈표 3-18〉 대태국 수산물 수입 품목의 변화

단위: 천 달러

구분	2010		2012		2015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새우	54,599	새우	68,278	새우	49,172
2	기타어류	8,894	주꾸미	13,258	주꾸미	36,608
3	새우살	8,310	새우살	11,593	연어	20,000
4	해파리	5,280	기타어류	9,530	새우살	11,064
5	어류제품	3,859	해파리	9,297	기타어류	9,474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무역통계서비스

(<http://www.trass.or.kr/service/statistic/StatisticsViewServlet?mainServiceURL=P09M01D010>)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 2016. 10. 1.)

對ASEAN 상품형태별 수산물 수입을 살펴보면 원물단순가공품의 2015년 수입은 '10~14년 평균 대비 10% 증가하였고, 조제가공처리품목의 수입은 33% 증가하였다.

〈표 3-19〉 對ASEAN 상품형태별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률(%)	
							'10~'14년 평균 대비	전년 대비
전체	613	779	790	741	958	900	16.0	△6.0
원물단순 가공	478	600	600	548	699	646	10.4	△7.6
조제가공 처리	125	166	179	186	246	241	33.4	△2.2
기타	9	12	10	7	13	14	32.8	7.4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

(<http://www.trass.or.kr/service/statistic/StatisticsViewServlet?mainServiceURL=P09M01D010>)

활용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 2016. 10. 1.)

한편 상품형태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시장 수산물 수출은 원물단순가공품이 '10~14년 평균 대비 0.6% 감소하였고, 조제가공처리 품목의 수출은 동년대비 약 41% 증가하였다.

〈표 3-20〉 對ASEAN 상품형태별 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률(%)	
							'10~'14년 평균 대비	전년 대비
전체	198	275	363	320	272	298	4.4	9.8
원물단순 가공	170	246	327	284	227	249	△0.6	10.0
조제가공 처리	27	29	36	36	45	49	41.3	9.2
기타	0.3	0.2	0.5	0.6	0.4	0.4	5.5	△5.1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

(<http://www.trass.or.kr/service/statistic/StatisticsViewServlet?mainServiceURL=P09M01D010>)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검색일자 : 2016년 10월 1일 기준)

2) 대아세안 수산분야 투자 현황

(1)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투자는 1980년대 해외어장을 개척한 원양어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1987년 시험 조업을 시작으로 1988년 19척의 어선이 입어하여 약 2만 톤, 1994년 최대 45,399톤을 생산하였다.

〈표 3-21〉 인도네시아(기지트를) 어장 개척

단위: 척,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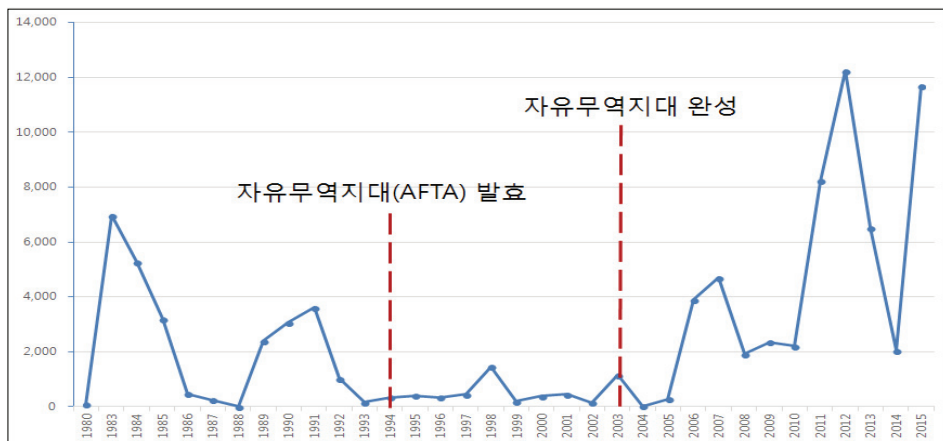
	1987	1988	1989	1990	1994	1995	2000
어선척수	1	19	25	37	71	65	35
생산량	-	21,125	23,208	-	45,399	45,094	15,926

자료: 김재철 평전, 파도를 헤쳐온 삶과 사업 이야기, 공병호, 21세기북스, 2016

1980~90년대 對아세안 투자액이 연평균 165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2000년대 초반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3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가 완성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다가 2015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투자액은 1,81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3-10〉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연도별 투자 현황(198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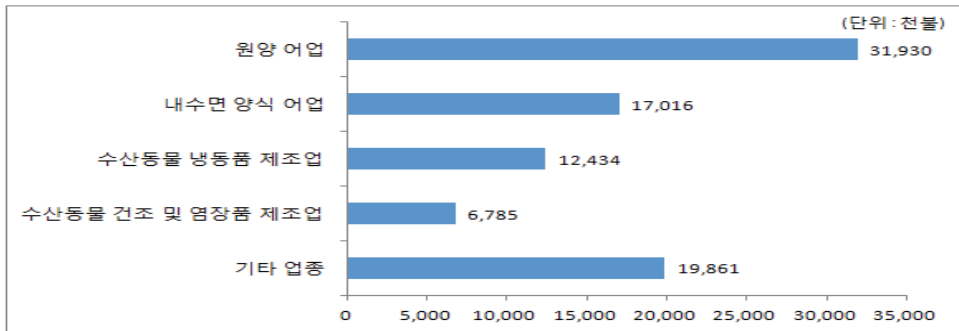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211.171.208.92/odisas.html>) 활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 2016. 6. 29.)

아세안 시장에 대한 수산분야 투자가 인도네시아 해역 입어에서 시작된 만큼 1980-2015년 투자액 누계 기준, 최대 투자 업종은 원양 어업이다. 총 3,193만 달러가 투자되어 아세안 수산분야 총 투자액의 36%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내수면 양식 어업 1,702만 달러(19%),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243만 달러(14%),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679만 달러(8%) 순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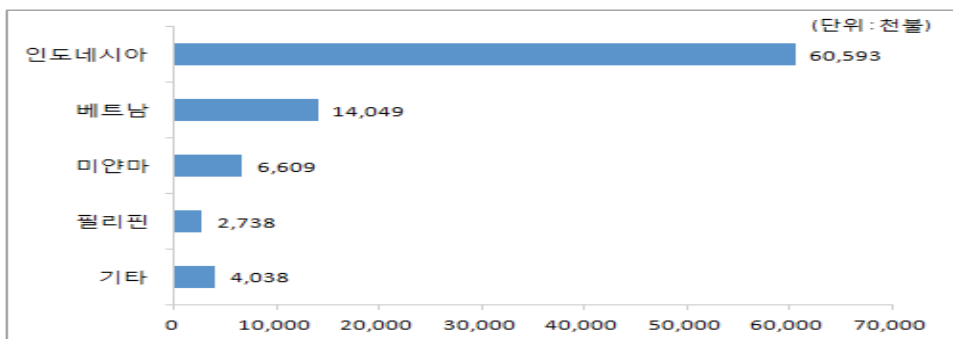
〈그림 3-11〉 대아세안 업종별 수산분야 투자(1980~201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211.171.208.92/odisas.html>) 활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 2016. 6. 29.)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주요 투자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등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써, 총 6,060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아세안 전체 투자액의 69%를 차지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1987년 트롤어선 3척 입어를 시작으로 94년 입어선이 71척까지 증가, 하역 생산량이 약 45,000톤에 이르렀으나 2007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EEZ내 외국어선의 조업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점차 투자가 감소하였다. 그 외 베트남 1,405만 달러(16%), 미얀마 661만 달러(8%), 필리핀 274만 달러(3%), 기타 국가(5%)의 순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그림 3-12〉 한-대아세안 국가별 수산분야 투자(198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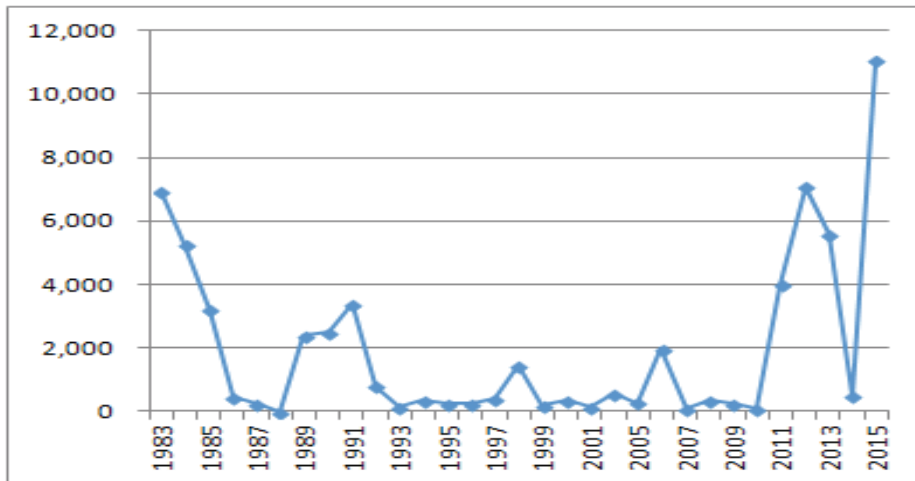
주: 기타 국가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을 포함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211.171.208.92/odisas.html>) 활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 2016. 6. 29.)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국가별, 업종별 투자 특징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원양 어업, 내수면 양식 어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에 주로 투자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원양 어업에 집중되었던 투자는 점차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2004년부터는 원양어업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0년 EEZ 내 외국어선의 조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EEZ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자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국 기업과 합작해서 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내수면 양식어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등으로 다변화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그림 3-13〉 인도네시아 연도별 투자액 추이(198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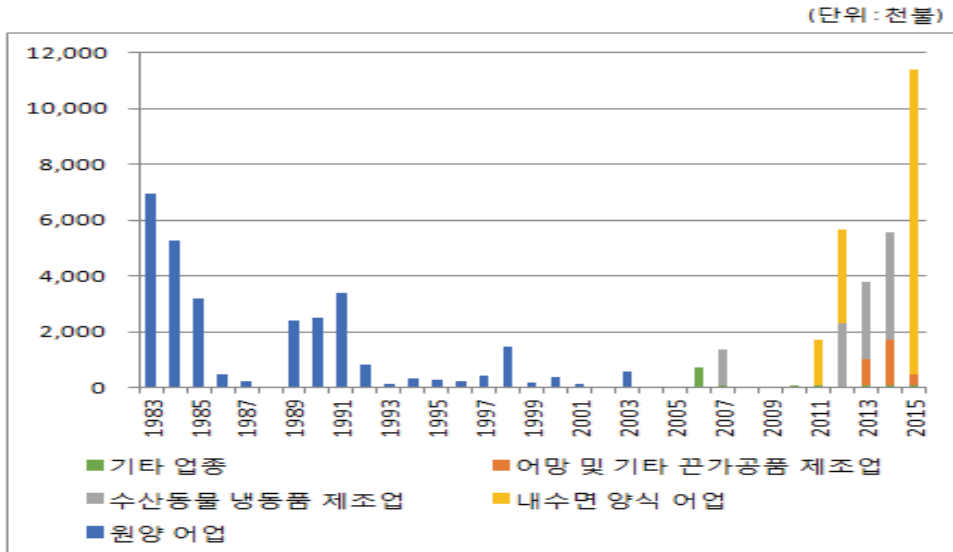
(단위: 천 불)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211.171.208.92/odisas.html>) 활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16. 6. 29.)

〈그림 3-14〉 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액 추이(1983~2015)

(단위: 천 불)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211.171.208.92/odisas.html>) 활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 2016. 6. 29.)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2대 투자 대상국이다. 2004년 이전에는 대베트남 투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한 투자 증가세를 보이며 연평균 24%의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수산물 도매업과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이다.

(2) 국내 수산기업의 대아세안 진출 사례

아세안에 진출한 국내 수산기업이 대부분 소규모 기업이거나 원양어업에 등록된 원양어업관련사업체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관련사업체는 2015년 기준 총 67개사이며, 이 중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원양어업 관련사업체는 총 23개사로 추정된다.

〈표 3-22〉 국가별 업종별 원양어업 관련 사업체 현황(아세안 지역)

(단위: 개)

진출국가	수산가공업	유통판매업	어업	운반보관업	양식업	합계
인도네시아	7	5	0	0	1	13
베트남	4	0	0	0	0	4
태국	4	0	0	0	0	4
말레이시아	0	0	0	0	1	1
미얀마	1	0	0	0	0	1
합계	16	5	-	-	2	23

자료: 원양어업 통계조사(2015), 저자 재작성

인도네시아는 가장 많은 13개(57%) 사업체가 진출해 있는데 업종별로는 수산가공업 7개사, 유통판매업 5개사, 양식업 1개사이다. 주로 새우, 갈치, 한치 등의 품목을 취급하며, 유통판매업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어획 또는 구입한 수산물을 수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 인도네시아 진출 업체 사례 (주) 참손푸드 〉

• 생산 및 반입 현황 (연간 생산량) '15년 8톤, '16년 500톤 예정 (반입량) 전량 반입 • 국내 유통 현황 - 현재 가공라인(직화 등) 도입, 시험 운전 중으로 4월말부터 가동 예정 - 인도네시아에서 반입된 필렛 형태의 뱀장어를 즉석식품으로 가공하여 '16년 5월부터 제품 생산 예정	
--	--

자료: '해외수산 관련 지원현황' 발표자료, 해외수산협력원 내부자료, 2016, pp. 20~21 인용
저자 재작성

베트남과 태국에는 각각 4개사의 수산가공업체가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취급 품목은 베트남의 경우 한치 등 주로 건어물류이며, 태국은 새우, 오징어류, 조미김 등을 다루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양식업 1개사, 미얀마에는 수산가공업 1개사가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태국 진출 SCDD 업체 사례〉

• (연혁) 2009년 태국 방콕에 김스낵 제조 및 무역법인 ‘동우(DongWoo)’ 를 시작으로 2011년 한국에 SCDD(주)를 설립함 • SCDD사는 한국의 김 원조를 수입하여 태국에서 김스낵을 생산하는 업체임 • 주요 생산 품목은 김스낵으로 태국의 주요 김스낵업체인 ‘타오케노이사(Taokaenoi)’에 해당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자체 브랜드 「코끼리」 제품을 판매함 • 롤 형태의 김스낵을 개발하여 태국 현지 김스낵과 차별화하고, 태국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다양한 맛을 가미함으로써 현지화에 성공함	
---	--

자료 : 2016년 태국 현지 출장 및 담당자 인터뷰 내용

한편 대기업의 경우 CJ 제일제당이 1999년 베트남 사료사업에 진출하였다.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사료법인을 확대하여 양어사료뿐만 아니라 양돈, 양계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사료 생산량 증가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근 캄보디아 공장을 인수하였다.

〈CJ의 베트남 진출 업체 사례〉

• (연혁) - 1999.11 : CJ Vina Agri 설립, 베트남 사료사업 진출 - 2014.01 : 베트남본사 Maritime Tower Company Ltd. 설립 - 2015.07 : 베트남 내 4번째 사료공장 준공(연간 27만 톤 생산 목표) • (특징) - K푸드를 전파할 동남아의 전략적 거점으로 베트남을 공략함 - 향후 5년 내에 베트남 내 사료 생산거점을 6개로 늘리고, 양돈과 양계 축산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임 - 현지 고급 R&D인력의 확보를 통해 차별화 및 현지화된 제품을 출시할 계획임	 자료 : CJ제일제당 홈페이지(http://www.cj.co.kr/cj-kr/businesses/5/menus/26/html)
--	---

자료: CJ 제일제당 홈페이지, 생물자원사업(<http://www.cj.co.kr/cj-kr/businesses/5/menus/26/html>)
(검색일자 : 2016. 9. 30.)

4. 시사점

아세안 수산분야의 이러한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일본과 중국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은 균형 있는 민관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닛쓰이 등 개별 대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이 이뤄지고 있고 정부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자국 수산물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5년에 발표된 글로벌식량가치사슬 구축 전략으로, 아세안은 일본 정부가 선정한 세계 7대 권역의 중요 시장에 포함되었다. 즉, 글로벌시장을 겨냥하여 식량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세부적으로 아세안시장에서의 일본 기업의 강점을 식량가치사슬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아세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고 수산물을 식품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다. 아세안에서 일본의 강점인 유통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프라 사업, ODA 사업, 할랄 식품 허브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에서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고 민간기업의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자국의 안정적 수산물 공급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중 ‘21세기 新해상실크로드’ 구축이라는 거시적 구상 하에 아세안 국가와 인접하면서 수산 거점 지역인 남부 도시(푸젠성, 광시장족 자치구, 광둥성)들을 중심으로 수산분야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라는 정치·외교적인 특수 요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중국과 아세안 간 수산물 교역량은 연평균 23%의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 내 수산물 수요충족 이외에도 향후 미국, 유럽, 중동 등으로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교류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은 항만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건설 중심의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아세안 해양협력기금’ 등을 통해 서남부에 위치한 수산 거점 도시들은 수산물교류센터 설립, 수산전시회 개최, 어업기지 건설, 양식기술 이전 등 다양한 수산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민간업체가 진출함에 있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통해 전체 수산물 446개 품목 가운데 70.4%인 314개 품목을 일반품목군으로 양허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FTA 협정 9년차인 2015년 기준 전체 수입 수산물 가운데 아세안의 수입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수출에서 아세안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를 차지하였다. 한-아세안 FTA체결 이후 아세안과의 수산물 교역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입 모두 원물단순가공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과 아세안은 원료 확보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아세안에 대한 수산분야 투자는 과거 원양어업에서 시초를 찾을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000년 초반까지 투자액이 증가하였으나 EEZ 입어 금지가 확대되면서 수산가공, 양식, 유통분야 등으로 투자가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산분야 투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기업의 투자 및 현지화는 일부 기업에 한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현지에서 수산물을 수집하여 국내로 수출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아세안 현지에서 생산하여 역내로 수출하거나 중국,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단독투자에 따른 소규모 투자, 정보 및 자본 부족에 따라 현지화의 어려움, 아세안 단일 시장을 활용한 투자 연계에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AEC 출범과 국내 수산기업의 인식도 조사

제3장을 통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아세안과 인접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자국 내 수산기업의 해외 진출 도모 또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AEC 출범 이전부터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아세안과 FTA 체결 이후 수산분야 교역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AEC 출범에 대응한 아세안의 단일 시장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경제협력의 주체인 아세안 진출 기업 및 아세안 수산물 교역업체를 대상으로 AEC 인식 수준과 대응 수준을 파악하고 수산분야 경제협력을 위해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개요

설문 조사의 모집단은 국내 수산물 관련 수출입 업체와 아세안에 진출해 있는 수산기업이다.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거나 원물을 가공하는 업체, 수산물을 수출입하는 업체이며 아세안 지역 수출입에 관심 있는 업체를 우선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유의 표집 중 할당 표본추출 방식을 통한 표본 수는 202개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6.37\%$ 포인트이다. 조사 기간은 2016년 7월부터 한 달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과 컴퓨터 지원 전화인터뷰(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CATI)를 병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응답업체의 특성, AEC 인식도 및 영향 평가, AEC 출범과 수산분야 활용, AEC 대응 주요 과제로 구성하였다.

〈표 4-1〉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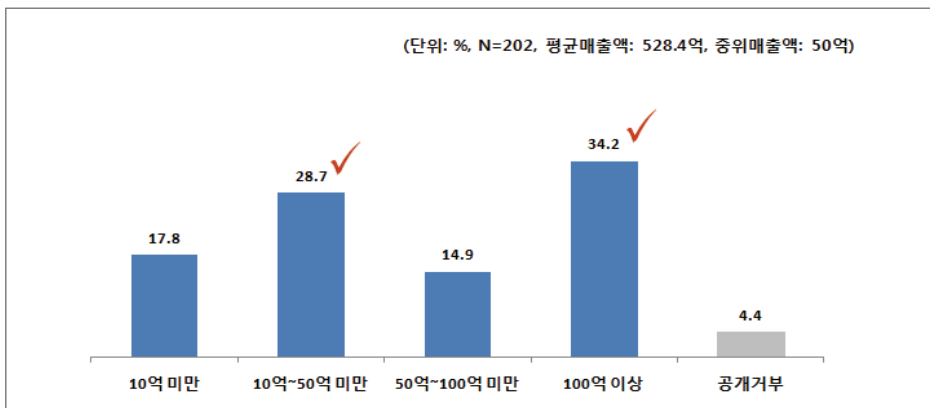
구 분	정 의
조사 대상	전국 수산물 수출입업체 관계자 및 아세안 진출 수산기업
표본 수	202개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6.37\%$ 포인트
조사 방법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Online-Survey 병행
표본 추출	유의 표본 추출(Purposive Sampling)
조사 기간	2016년 7월 ~ 8월

2. 조사 내용

1) 응답업체 특성

설문조사에 응한 202개 업체 가운데 중소기업³⁶⁾이 7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개인 기업과 중견 기업이 각각 18.3%, 10%를 차지하였다. 응답 업체의 약 72%를 차지한 중소기업을 매출액 기준으로 분류하면 100억 이상인 기업은 약 34.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10억~50억 미만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8.7%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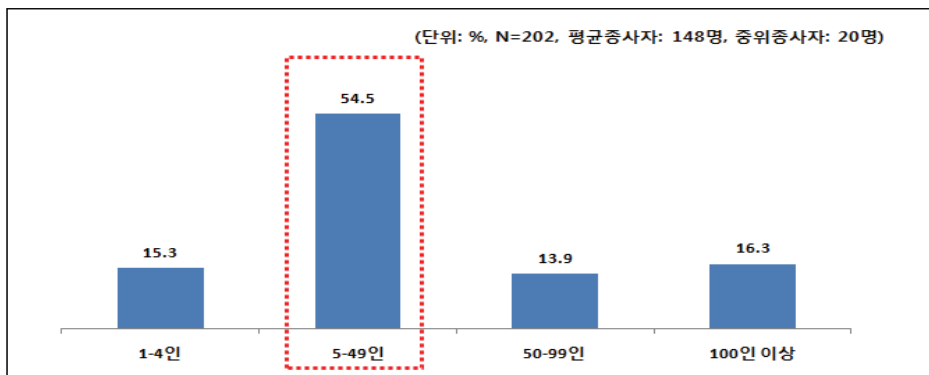
〈그림 4-1〉 응답업체의 3년 평균 매출액



³⁶⁾ 중소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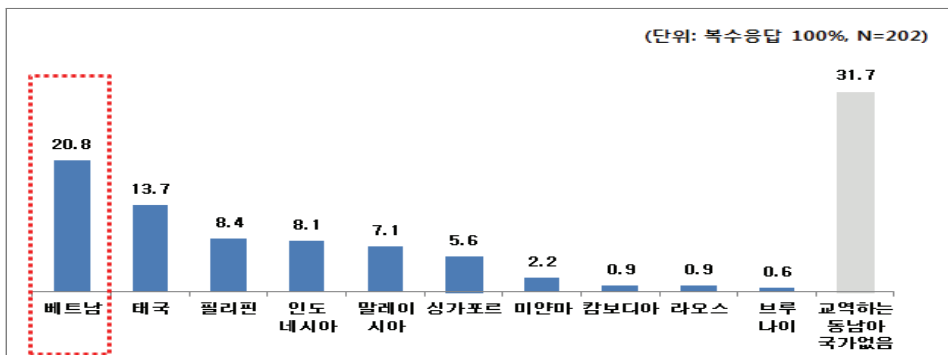
응답 기업의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5-49인’ 기업이 54.5%로 가장 많았다. 중위 종사자수는 20명이지만 평균 종사자수가 148명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전체 응답업체의 약 16%를 차지하는 종사자수 100인 이상 기업이 평균 종사자 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림 4-2〉 응답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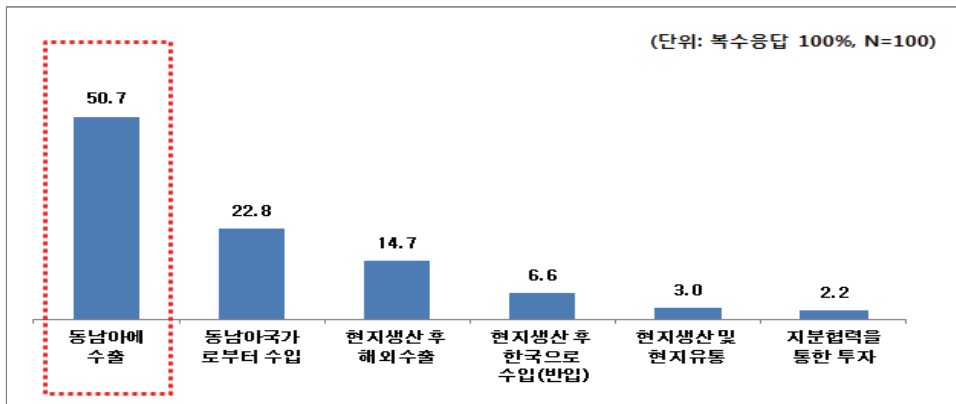
응답업체의 주거래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질의 결과, ‘베트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8%로 가장 높았고 ‘태국’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13.7%를 차지하였다. 그 외 ‘필리핀’이 8.4%, ‘인도네시아’가 8.1%, ‘말레이시아’가 7.1%, ‘미얀마’ 2.2% 순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수산업체의 아세안 주요 교역 대상국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이다.

〈그림 4-3〉 응답업체의 아세안 주요 교역 대상국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 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업체의 약 50%가 아세안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세안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는 약 23%를 차지하였다. 그 외 아세안 현지에서 생산 후 해외 수출하는 경우가 약 15%, 현지 생산 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는 약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현지에서 생산 및 유통이 이뤄지는 경우는 3%, 지분협력을 통한 투자는 2.2% 수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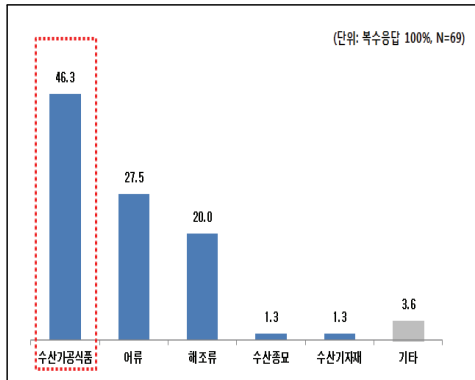
〈그림 4-4〉 아세안 국가와의 수산분야 경제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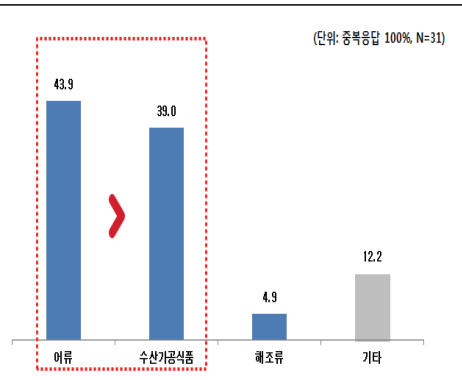
아세안 국가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은 수산가공식품으로 전체의 46.3%를 차지하였고 어류와 해조류의 수출 비중도 각각 27.5%, 20%로 나타났다. 수산 종묘나 수산 기자재의 수출은 1.3%의 아주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응답 기업의 조직규모별 주요 수출 품목은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산가공식품의 비중이 각각 50.0%,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어류의 수출 비중이 40%를 차지하였다. 즉, 개인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은 수산가공식품(50.0%), 해조류(35.7%), 어류(14.3%)의 순이며, 중소기업은 수산가공식품(48.2%), 어류(28.6%), 해조류(17.9%)의 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은 어류(40%), 수산가공식품(30%), 해조류(10%)의 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태국 등지에 다랑어 통조림의 주원료가 되는 원어의 다랑어를 주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한

편 아세안 국가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어류가 약 44%, 수산가공식품이 39%로 전체 수입의 약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주요 수출품목



〈그림 4-6〉 주요 수입품목



〈표 4-2〉 수산기업의 조직규모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복수응답 100%, N=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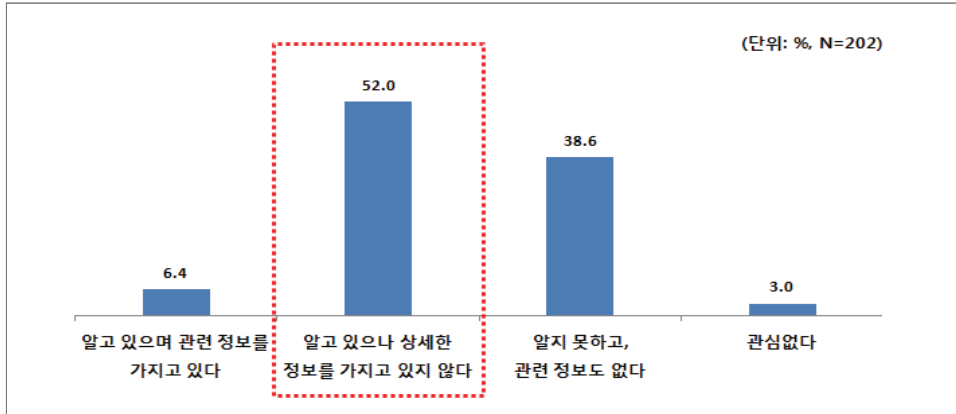
구분	수산가공식품	어류	해조류	수산종묘	수산기자재	기타
개인 기업	50.0	14.3	35.7	0.0	0.0	0.0
중소 기업	48.2	28.6	17.9	1.8	1.8	1.8
중견 기업	30.0	40.0	10.0	0.0	0.0	20.0

* 1순위: 2순위: 3순위:

2) 아세안의 AEC 인지도 및 영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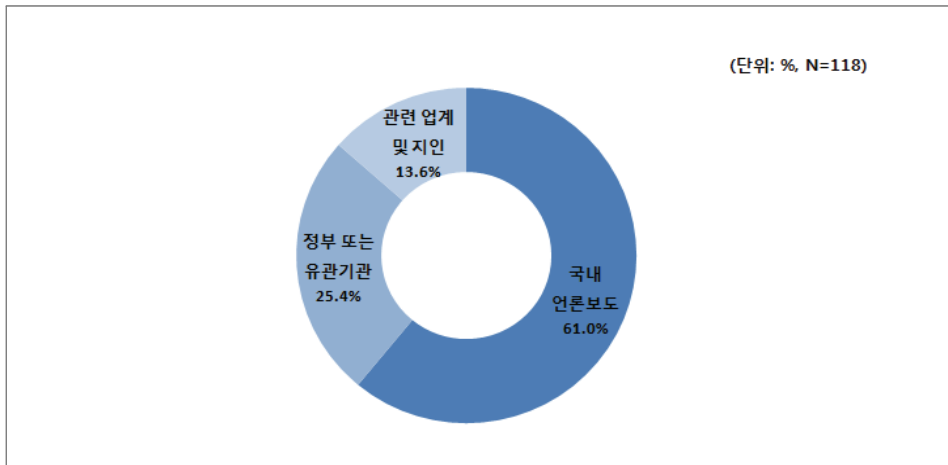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을 알고 있거나 관련 정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의 6%만이 AEC의 출범을 알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기업의 52%는 AEC의 출범을 알고 있지만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7〉 AEC 인지 및 정보 소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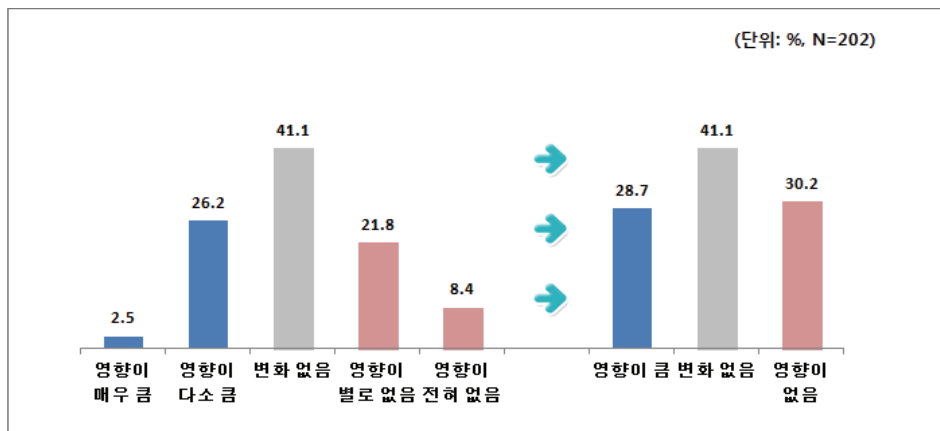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업체를 대상으로 ‘AEC출범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는 응답한 비율이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부 또는 유관기관을 통해서’라는 응답비율이 25.4%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4-8〉 AEC 출범 정보 습득 경로



한편 AEC 출범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응답 기업의 41%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응답자의 약 29%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AEC 출범이 약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업체가 느끼는 AEC의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 둘째는, ASEAN은 AEC 출범을 위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역내 관세를 인하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업체는 대부분 아세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더라도 대부분 국내로 반입 수입하기 때문에 역외 교역에 따른 관세인하 등의 변화를 느낄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림 4-9〉 AEC 출범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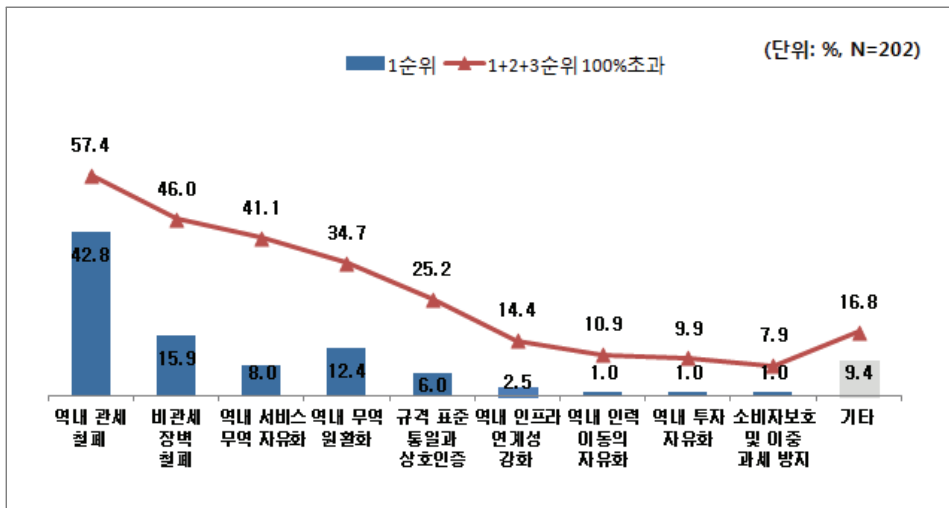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으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지만 AEC가 추구하는 목표 가운데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아세안의 역내 관세 철폐’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43%, ‘아세안 역내 비관세 장벽 철폐’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16%를 차지하였다. 즉, 아세안 역내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완화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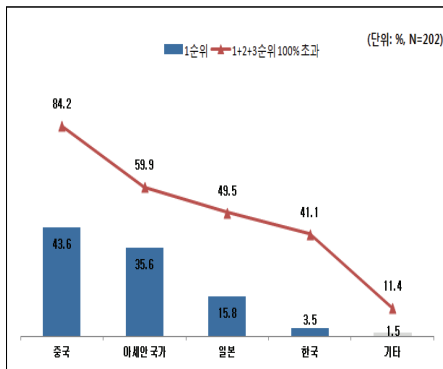
한편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어떤 국가의 수산분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응답자의 약 44%는 ‘중국’이라고 응답하

였고, ‘아세안 국가’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36%를 차지하였다. 또한 ‘아세안 국가 가운데 수산분야 경쟁력이 강화될 국가’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태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3%, 25.6%를 차지하였다. 즉, AEC 출범에 따른 아세안 역외 국가 가운데서는 중국이, 역내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과 태국의 수산분야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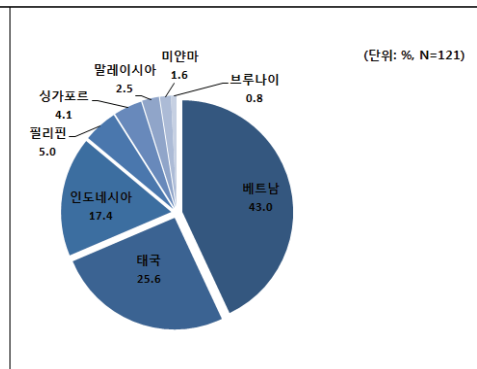
〈그림 4-10〉 AEC 출범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세부 요인



〈그림 4-11〉 아세안 출범으로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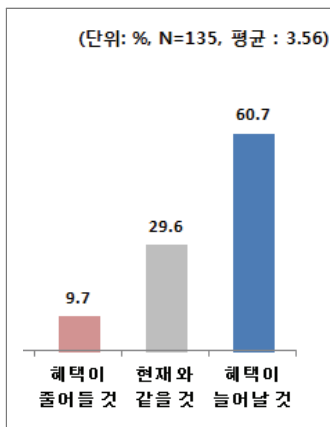
〈그림 4-12〉 아세안 국가 중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 예상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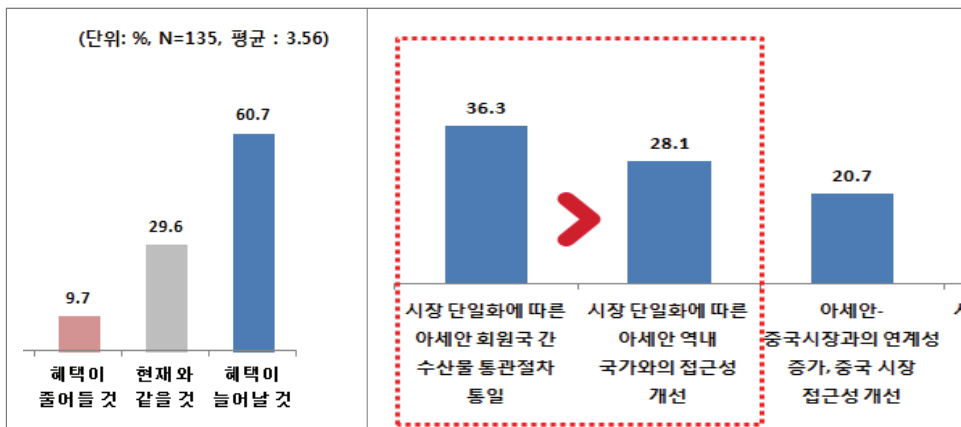
3)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수산분야 활용

아세안의 경제공동체 출범과 관련하여 응답업체의 대응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AEC 출범으로 대아세안 수산물 수출시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주요 혜택 내용을 살펴보면 ‘아세안 회원국 간 간소화된 수산물 통관절차’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6%이고, 아세안 국가 간 인프라 개선에 따라 ‘역내 국가와의 접근성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28%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아세안-중국 시장과의 연계성이 증가됨에 따라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약 21%를 차지하였다. 이 부분은 앞서 AEC 출범으로 인한 아세안 시장과 중국의 수산분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3〉
AEC 출범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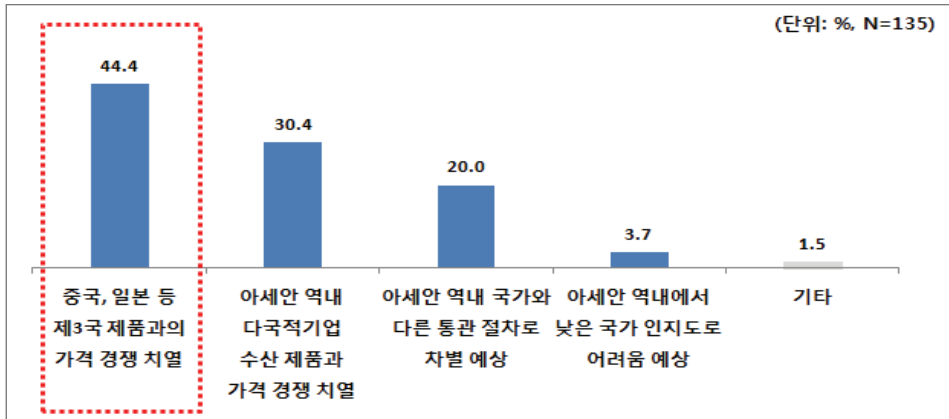
〈그림 4-14〉 AEC 출범과
수산물 수출시 예상되는 혜택



한편 수산물 수출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 일본 등 제3국가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4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아세안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이라는 응답 비율도 약 30%를 차지하였다. 응답업체들은 향후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 일본, 아세안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을 어려움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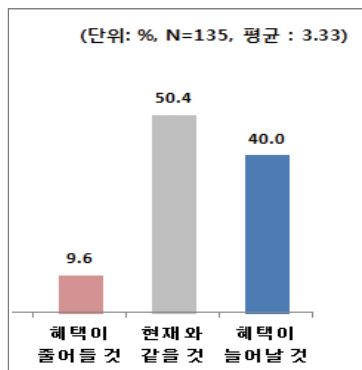
외에도 아세안 역내 국가와는 다른 통관 절차를 적용함에 따른 차별 문제, 중국, 일본과 비교해 낮은 국가 인지도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 4-15〉 AEC 출범과 수산물 수출시 예상되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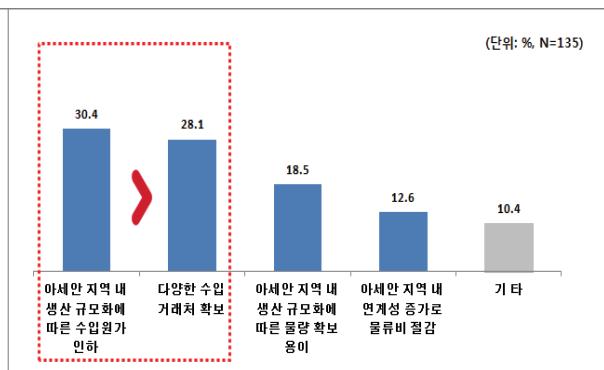


그리고 응답업체는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라 수산물 수입 대상 지역으로서 아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3.3점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단일 시장 형성에 따른 수산물 생산의 규모화 및 원가가 인하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였다. 다양한 수입 거래처 및 물량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도 각각 28.1%, 18.5%를 차지하였다.

〈그림 4-16〉
AEC 출범과 수산물 수입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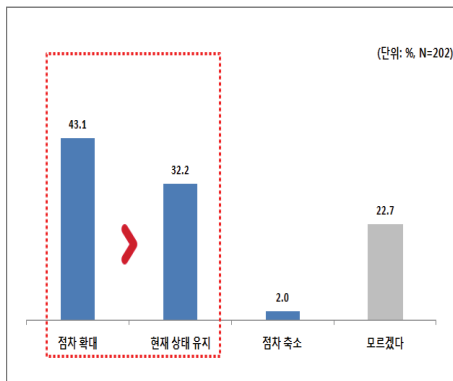
〈그림 4-17〉
AEC 출범과 수산물 수입시 예상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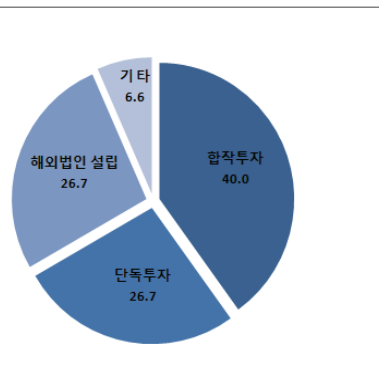
향후 아세안 국가와의 수산물 교역 및 투자 확대 계획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43%를 차지하였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응답 비율은 약 32%를 차지하였다. ‘점차 축소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에 지나지 않았고,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23%를 차지하였다.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향후 AEC 출범 이후 아세안 수산분야에 대한 재평가 및 AEC의 인식이 개선될 경우 부분적으로 아세안에 대한 교역 또는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적 대기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합작투자’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독투자’와 ‘해외법인 설립’이라는 응답이 공통으로 26.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8〉
AEC 출범과 수산분야 투자 확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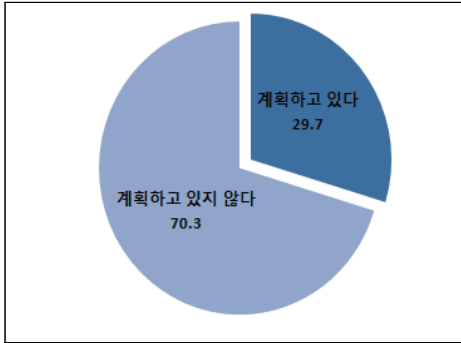


〈그림 4-19〉 향후 투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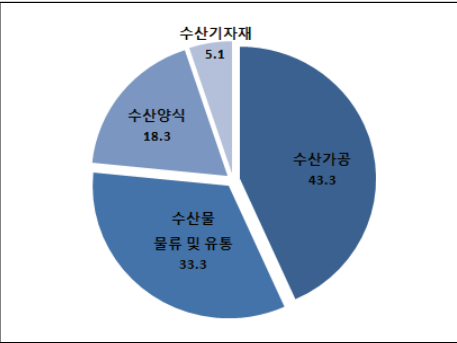


아세안의 수산 투자 유망분야에 대한 질의 결과 ‘수산가공분야’에 대한 응답이 약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산물 물류 및 유통분야’라고 응답한 업체도 전체의 약 33%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수산양식’, ‘수산기자재 분야’라고 응답한 비율로 각각 18.3%, 5.1%로 나타났다.

〈그림 4-20〉 향후 투자계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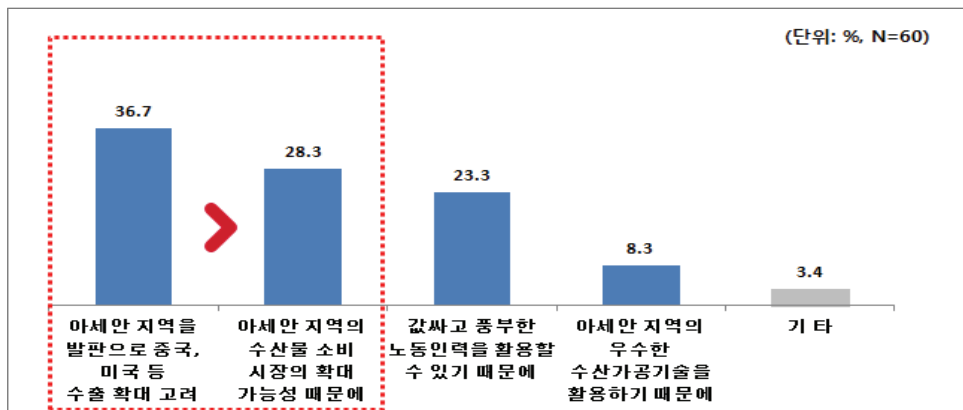


〈그림 4-21〉 수산투자 분야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 이유를 물어본 결과, ‘아세안 지역을 발판으로 중국, 미국 등으로의 수산물 수출 확대를 고려해서’ 라는 응답이 36.7%를 차지하였다. ‘아세안 지역 수산물 소비 시장의 확대 가능성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도 28.3%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아세안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인력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23.3%가 응답하였다. 국내 수산기업들은 AEC 출범을 계기로 단일 생산기지 등의 이점을 활용하여 아세안 시장에서 수산물을 생산하고 역외국가 즉, 중국 또는 미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세안 시장에 투자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세안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산물 소비시장 확장에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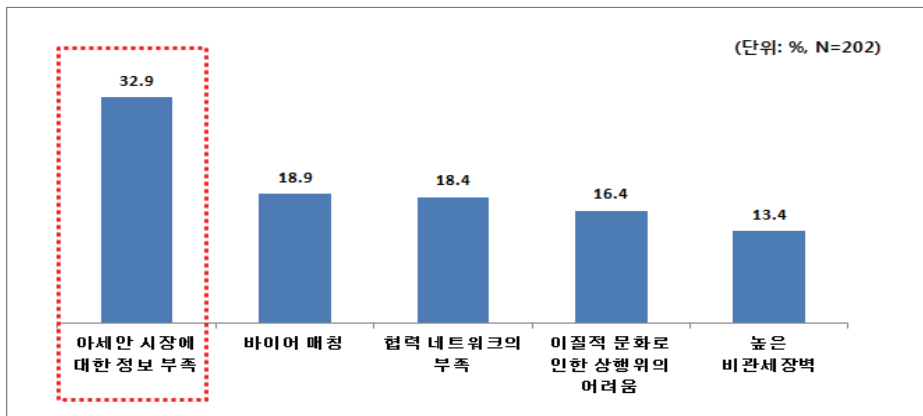
〈그림 4-22〉 AEC 출범과 아세안 시장 활용



4) AEC 대응 수산분야 경제협력을 위한 주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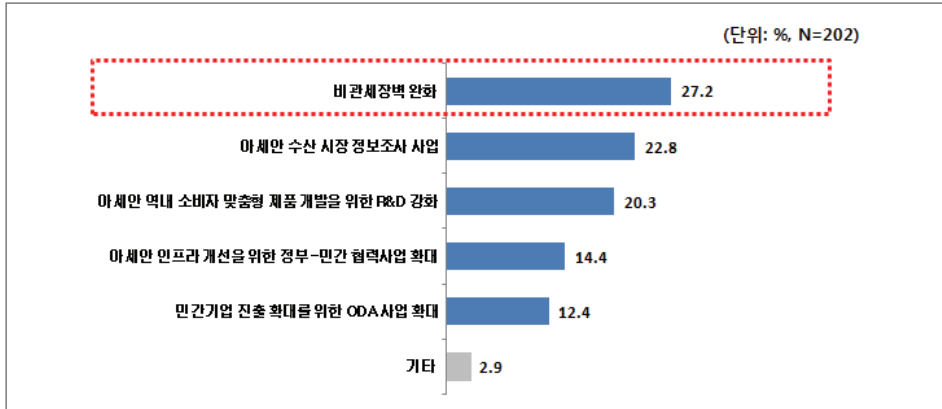
아세안 국가와의 수산물 교역 및 투자 확대와 관련해 겪게 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아세안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응답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바이어 매칭’이 18.9%, ‘협력 네트워크의 부족’이 18.4%, ‘이질적 문화로 인한 상행위의 어려움’이 16.4% 순으로 나타나,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4-23〉 아세안 수산물 교역시 겪는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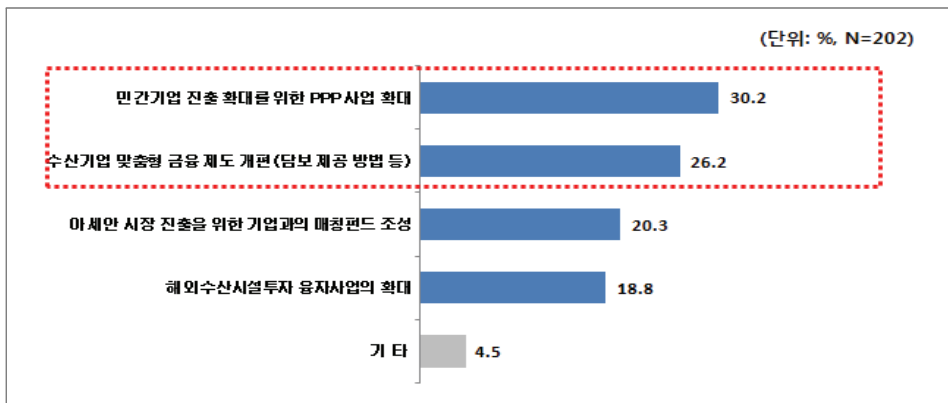
우선적으로 아세안 시장과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 응답자의 27%는 아세안 시장의 비관세 장벽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아세안 수산 시장 정보조사 사업’이 22.8%, ‘아세안 역내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한 R&D 강화’가 20.3%를 차지하였고, 그 외 ‘아세안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확대’가 14.4%, ‘민간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ODA사업 확대’가 12.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4〉 아세안 교역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그리고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민간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PPP사업 확대’라는 응답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산기업 맞춤형 금융 제도 개편’이 26.2%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과의 매칭펀드 조성’이 20.3%, ‘해외수산시설투자 용자사업의 확대’가 1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특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 응답업체의 72%가 중소기업에 속하고 있고, 전체 응답업체의 약 47%가 매출액 50억 원 미만인 기업의 영세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25〉 아세안 수산투자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3. 시사점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국내 수산물 교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인식도 조사와 향후 아세안의 활용에 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응답업체의 AEC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수산기업들이 AEC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기업체의 경영전략을 마련해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정보도 대부분 언론을 통한 일반 정보만을 획득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세안 수산분야의 정책 변화, 타 국가의 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등에 대한 정보 획득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내 수산기업의 AEC 인식 수준을 높이고 이에 기초하여 효과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AEC 출범으로 아세안의 수산분야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 교역 확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규 투자 또는 투자 확대를 통한 아세안 시장 진출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응답업체의 대부분이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인해 역외국인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는 관세와 같은 차별적 시장접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아세안 역내에서 교역이 이뤄질 경우에는 관세 철폐, 수산물 위생 검사의 상호 인정, 통관 기준의 간소화가 적용될 수 있지만 아세안에서 수산물을 수집,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세안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적용받는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세안 단일 시장이 가지는 유리한 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시장의 체계적 모니터링 및 이에 기초한 민간 분야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수산물 수출입업자들은 아세안의 단일 시장 또는 단일 생산기지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해외 시장 수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아세안 시장에서 수산물을 생산·가공 후 중국, 미국 등 거대 소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아세안의 수산물 생산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다국적 기업의 식품가치사슬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세안 역내 단일 시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응답업체들은 AEC 출범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역외국으로 중국과 일본을 꼽았다는 점이다. 특히 아세안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등 활발한 경제협력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진출 기업이 아세안-중국 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중국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AEC 대응 수산분야 교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비관세 장벽 완화, 아세안 수산 시장에 대한 정보조사 사업, 아세안 역내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한 R&D 강화 등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아세안 수산분야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단독 투자와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과 점진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아세안 역내 식품가치사슬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냉동·냉장창고 지원 및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사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5장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추진 전략

제4장은 수산물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현황을 국내 수산물 교역업체 및 아세안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AEC 출범과 대응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장은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 해외수산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 수산 ODA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수산분야 경제협력 여건 분석

1)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1) 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출지원사업 로드맵³⁷⁾을 발표하였다. 2016년도 수산물 수출액 23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FTA 등을 활용한 중국과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고부가가치 수산물·수산물가공식품의 수출 증대, 수산기업 역량 강화, 물류망 구축을 통한 지속적 수출기반 조성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3대 추진 과제로는 경쟁력 있는 수출기반 조성 및 성과 중심의 홍보마케팅, 수산기업의 수출애로사항 해소이며 각 추진 과제에 대한 7대 중점 추진과제와 19대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수출 기반 조성 및 관련한 수산물 수출 강소기업 육성의 경우 수산모태펀드를 통한 투자활성화와 수출 선도 조직 육성을 통한 수직계열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김, 넙치, 전복, 해삼, 천일염,

37) 해양수산부 ‘16년도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로드맵’ 내부 자료 활용함.

붉은대게, 굴 등 7개 품목의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고, 중소 가공·수출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공업체의 시설운영자금 등에 대한 단기 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 중국, 미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 목표와 수출 추진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최근 1인당 수산물 소비가 증가세이고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오징어, 김, 어묵 등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유통망을 구축하고 북경, 상해, 청도의 수출지원센터를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하며 신선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물류기업과 수협의 동반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몰과 미디어 및 SNS 활용 계획 등 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미김, 김스낵 등 해조류를 활용한 수산식품 수입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판촉 활동을 통해 한인 마트에서 중국·아시안 마켓, 현지 유통망으로 단계별 진출을 추진 한다는 목표 하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발효에 대비한 수입 수산물의 관리 강화가 전망됨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및 수출 관계자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표 5-1〉 2016년 수산물 수출지원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경쟁력 있는 수출기반 조성	생산·수산식품 산업 기반 강화	·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수산식품 생산 인프라 구축 · 경쟁력 있는 수산가공식품 개발
	수산물 수출 강소기업 육성	· 창업 및 수직계열화 유도 · 수출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성과중심의 홍보마케팅	수출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 K-Fish 브랜드 관리체계 마련 · K-Fish 브랜드 홍보마케팅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전개	· 체험 중심의 B2C 홍보마케팅 · B2B 및 대언론 홍보마케팅 · B2C, B2B 통합마케팅 · 유관기관 협력 통합마케팅
	온라인 홍보 마케팅 확대	· 미디어 활용 · 온라인·모바일몰 입점 확대
수산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비관세 장벽 대응	· 검역, 위생, 통관문제 대응 ·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물류유통망	· 활어패류 물류인프라 확대 · 해외시장 물류망 확충 · 신시장 개척

자료: 해양수산부 ‘16년도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로드맵’ 참고, 저자 재작성

국내 내수시장의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수산업 성장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전략으로써 수산물 수출지원사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사업이 일본, 중국, 미국 등 선진 수산물 소비시장에 편중됨에 따라 아세안과 같이 잠재적으로 수산물 생산 및 소비 증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그리고 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출에만 한정하고 있고, 해외 생산기지 또는 거점화를 통한 시장 진출 및 해외 수산자원을 활용한 현지 수출이 고려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 해외수산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가. 해외수산시설투자 사업

해외수산시설투자 사업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와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해외 양식·유통·가공시설 등의 해외투자로 해외 수산자원 개발권을 확보함으로써 원양산업을 다각화하고 연안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어장 및 식량자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에서 수산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양식·유통·가공 등의 분야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원양산업자 중 「원양산업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이다. 해당 사업은어선·어구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소요 자금의 일부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연차별 사업비를 살펴보면 2014년 사업 지역 2개소, 총사업비 13억 5,600만원 가운데 국고 보조가 9억 7천 만 원이었으며 2016년에는 보조 규모가 16억 원으로 확대되어, ‘14년 대비 약 65% 증가하였다. 그동안 해외수산시설 투자사업의 실적³⁸⁾을 살펴보면 2009년 인도네시아 양식장 건설을 시작으로 2011년 남태평양 지역 파푸아뉴기니에 다랑어 가공 공장 설립 지원, 2013년 남태평양 통가지역에 큰실말³⁹⁾ 가공공장 설립에도 지원되었다. 사업 지역은 남태평양 지역의 파푸아뉴기니와, 통가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아세안 지역이다.

38) 해외수산협력원 내부자료 활용함.

39) 해조류의 일종임

〈표 5-2〉 해외수산시설투자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4실적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사업물량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총사업비	1,356	1,386	2,286	2,286	2,286
국 고	970	970	1,600	1,600	1,600
지방비	-	-	-	-	-
자부담	386	416	686	686	686

자료: 2015년도 해외수산시설투자 집행지침 및 사업추진현황, 해양수산부, 2015

인도네시아의 새우 양식장, 날치알 가공공장, 브루나이의 새우 양식장 설립 등 주로 아세안 지역의 양식어업과 수산가공분야에 해외수산시설투자사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원 조건이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인데 사업 지원대상인 중소 원양기업의 경우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정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표 5-3〉 해외수산시설투자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실적	사업내역	추진상황
2009	1,000	1,000	인도네시아 새우 양식장 건설	사업철수 ('12)
2010	1,600		-	
2011	1,400	700	PNG 참치가공공장 부지매입	사업지연 (허가 지연)
2012	1,200	600	인도네시아 뱀장어 양식장 건설	사업완료 ('14)
2013	940	470	통가 큰실말 채취 및 가공, 양식	사업완료 ('14)
2014	900		-	
2015	900		-	
2016	900	300	브루나이 새우양식장 시설 개보수 및 운영	융자완료
		600	인도네시아 날치알 가공공장 건립	사업자 선정

자료: 해외수산 관련 지원현황,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원 내부자료 활용, 2016.4

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원은 투자정보 등 상담지원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투자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식어업 컨설팅은 미얀마, 브루나이, 베트남, 스리랑카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수산물 가공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세이셸,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등 주로 아세안과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전문교육사업은 해외 수산투자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원양산업협회의 해외수산협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다. 계약, 협상, 마케팅 등 해외투자 진출과 관련된 실무와 국가별 지역전문가 양성 과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업은 우선 원양어업 및 원양어업에 등록된 원양어업 관련사업체에 한하여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원양어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해외 수산협력원의 소수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체계화, 활성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3) 수산 ODA 사업

수산 ODA 사업은 사업 주체에 따라 크게 해양수산부 ODA와 한국국제협력단이 추진하는 ODA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수산 ODA 사업으로 물자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주요 대상지역은 남태평양과 아프리카 연안국⁴⁰⁾이다. 주로 이동식 제빙설비, 보트와 같은 소규모 인프라 지원 및 사무 물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고 보조 11억 원으로 10개국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국가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원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 ODA 사업으로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감척어선 해외 무상지원사업, 해양수산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위생시설 지원 등이 있다.

두 번째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ODA 사업으로는 연안 도서국 해양수산기술 및 정책연수사업이 있다. 장기 석사학위 과정과 단기교육훈련

40)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나우루,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가나, 마다가스카르

사업으로 구성되는 연수사업은 우리나라의 선진 해양수산기술과 정책을 전수함으로써 연안 개도국의 수산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 석사 연수과정은 개발도상국 현지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실습 위주의 수산 교육으로 연안개발도상국 및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의 해양수산 분야 공무원, 대학 및 국립연구소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단기 교육훈련사업은 개도국의 수산해양분야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5명~20명을 대상으로 2주~8주 동안 수산분야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는데, 연수생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의 알제리, 가나, 나이지리아, 남태평양 지역의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지역 출신이다.

해양수산부의 수산 ODA 사업은 해외수산자원을 이용하는 남태평양과 서부 아프리카 연안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가 매우 작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ODA 규모 확대를 통해 연안국의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민간 분야의 진출을 고려한 생산 기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민관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을 위한 SWOT 분석

수산분야가 단일 시장으로 변모해가는 아세안 지역에 대한 국내 수산분야의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수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 외부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규명하는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1〉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위한 SWOT 분석



자료: 저자 작성

(1) 내부요인

가. 강 점

우리나라는 수산자원 감소, 어업인 감소 등 수산업의 성장기반 약화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수산물 수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 수출개척단 파견뿐만 아니라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지원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지원 동력이 될 수 있다.

둘째, 수산물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세안의 단일 시장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향후 아세안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아세안 지역 수산분야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투자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대아세안 시장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응답 비율도 43%를 차지하는 등 아세안 시장에 대한 경제협력 의지도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양식, 수산자원관리, 가공, 수산 IT, 국제협력 등 다양한 발전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의 다양한 수산 협력 수요에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예비 IUU 어업국에서 해제되면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조업감시센터 설립 등의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아세안 국가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태국의 IUU 어업 지정국가 해제 및 지속가능한 어업 영위를 위한 맞춤형 협력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아세안의 우호적 관계이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1991년 우리나라의 정치와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아세안의 완전대화 상대국으로 격상되었다. 1997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정례화, 2009년 한-아세안 센터 출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완결을 이루었으며, 2010년에는 한-아세안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⁴¹⁾로 격상되었다. 이러한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수산분야의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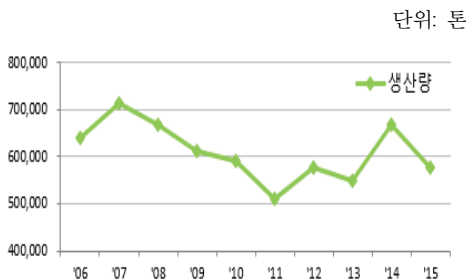
41)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관계의 협력 강화를 의미함

나. 약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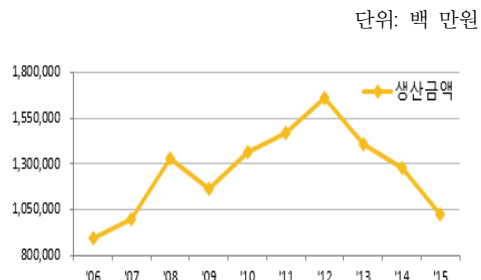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통해 역내 생산기지 단일화를 도모함으로써 수산분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아세안에 진출한 식품관련 다국적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주요한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이러한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아세안을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부재하다. 수산물 원료 공급지뿐만 아니라 거대 수산물 소비시장으로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중국 정부와 대비된다. 특히 자국의 수산물 수출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식품 가치체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계시장으로 아세안을 인식하고 있는 점은 일본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국내 수산업의 성장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연근해 어업의 경우 2014년 생산량이 107만 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과거 10년 평균 생산량 115만 톤 대비 6.6% 감소한 수준이다.⁴²⁾ 또한 원양어업은 2015년 생산량이 2014년 대비 13.6% 감소한 57만 8천 톤 수준을 기록했다. 해역별로 생산량 감소 수준을 살펴보면 남빙양의 생산량 감소가 59%로 가장 크고, 인도양, 대서양 지역의 생산량 감소 수준도 각각 31%, 14%이다.

〈그림 5-2〉 원양어업 생산량 추이



〈그림 5-3〉 원양어업 생산액 추이



자료: 2016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활용

42) 2016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자료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p.16 인용

〈표 5-4〉 원양어업의 해역별 생산

단위: 톤, 백 만원

	생산량			생산금액		
	'14년	'15년	증가율	'14년	'15년	증가율
전체	669,140	578,137	-13.6%	1,275,226	1,023,738	-19.7%
태평양	399,869	375,024	-6.2%	804,765	679,432	-15.6%
대서양	191,154	164,214	-14.1%	331,849	261,907	-21.1%
인도양	25,701	17,718	-31.1%	61,021	39,598	-35.1%
남빙양	52,416	21,181	-59.6%	77,591	42,800	-44.8%

자료: 2016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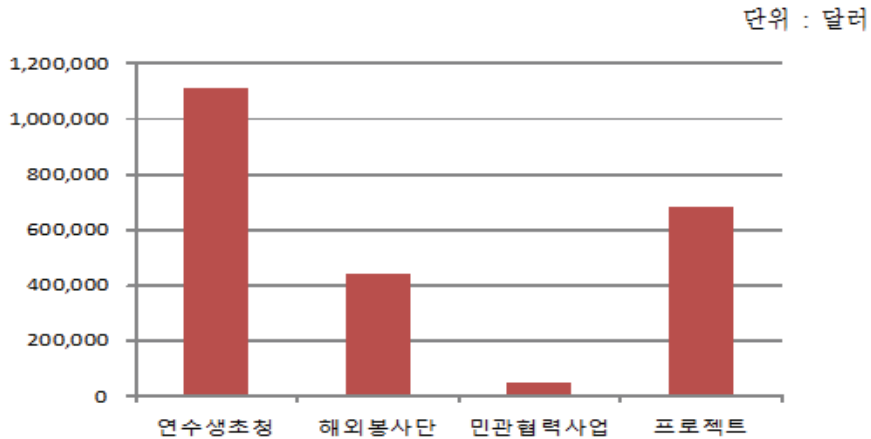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어가 인구수는 2005년 22만 명에서 2014년 14만 명이며, '05년 대비 57%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2020년에는 어가인구수가 11만 4,5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⁴³⁾ 이러한 수산업의 성장기반 약화는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미활성화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적개발원조는 다양한 동기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 향후 수원국에 대한 수출시장 확대,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의 발판 마련, 자원 확보 등 경제적 동기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추진주체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이 2,360억 원으로 전체 비중의 40%를 차지한다. 농림·수산분야의 프로젝트 사업⁴⁴⁾에 한하여 볼 경우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에 대한 사업이 전체의 약 2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수산분야 ODA 사업은 2014-2016년 미얀마의 내수면 수산양식산업 기반조성 사업 441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다만 연수생 초청 사업의 석사 학위과정과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2개 사업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다수의 아세안 국가에 이뤄졌다.

43) 2016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자료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p.12 인용

44)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유형으로는 프로젝트,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물자지원 등이 있으며, 프로젝트 사업이 전체 사업의 39%를 차지함. 또한 사업 분야는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긴급구호, 기타 등 7개 분야로 구분됨

〈그림 5-4〉 대아세안 지역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유형별 자원(2011~2014)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통계 활용 저자 재작성(<http://stat.koica.go.kr/>)(검색일자 : 2016. 9. 21)

〈표 5-5〉 아세안 대상 국가 연수생초청 사업

연도	사업명	기간	수원국
2010	석사학위과정-수산과학	‘10.06~’11.08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10.10~’10.11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2011	석사학위과정-수산과학	‘11.06~’12.08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11.10~’11.11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2012	석사학위과정-수산과학	‘12.06~’13.08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12.10~’12.11	필리핀, 베트남
2013	석사학위과정-수산과학	‘13.06~’14.08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아시아)	‘13.11~’13.11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2014	석사학위과정-국제수산 과학협동(14-15)	‘14.06~’15.08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아시아)	‘14.06~’14.07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자료: ODA 정보포털(<http://www.oda.go.kr/opo/masc/mainPage.do>) (검색일자 : 2016. 9. 21)

넷째, 한-아세안 수산물 교역 및 투자가 단순한 원료 수출입 및 국내 반입에 그치고 있다. 제품 개발을 통한 현지화 및 시장 확대 노력이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세안 지역에서 새우, 주꾸미, 새우젓 등을 수입하고 있고, 해조류, 다랑어 등을 수출하여 현지 조미김, 다랑어 통조림의 원료에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에 진출한 기업들도 현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데 그치고 있고, 제품의 현지화를 통한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또는 인근 중국 또는 대미 시장으로의 시장 진출에는 현재까지 제한적인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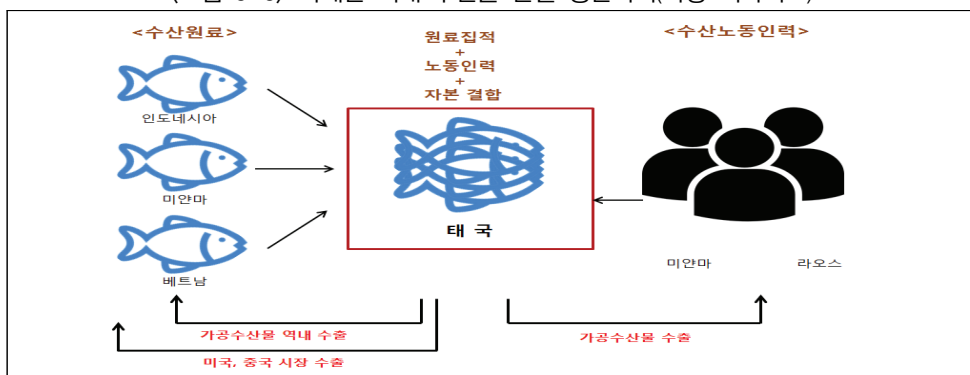
다섯째,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지원 정책은 중국, 일본 등 소수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수산정책, 아세안 국가의 수산 정보, 투자 정보 제공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다.

(2) 외부요인

가. 위 기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수산분야가 단일 생산기지화될 경우 생산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역내 분업 심화를 통한 아세안의 수산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수산물 생산 및 유통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는 태국이 생산기지화될 경우, 인근 자원이 풍부한 베트남, 미얀마로부터 수산 원료를 조달하고, 태국의 높은 수산 가공기술과 인근 라오스, 미얀마 등 값싼 노동력이 결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림 5-5〉 아세안 역내 수산물 단일 생산기지(가상 시나리오)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기업이 대아세안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수산물 수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내 수산물 전체 수입에서 아세안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7%에서 2012년 20%, 2014년 21.3%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응한 우리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아세안 수산분야에 대한 선진 주요국의 선점 효과이다. 일본의 경우 일찍이 아세안 지역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미쯔비시사의 경우 태국유니온냉동(TUF)과 공동으로 새우 사업체를 설립, 인도네시아의 현지 물류창고 및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기업(PT. Sigmantara Alfindo)과 공동으로 ‘아트리 파시픽(Pt Atri Pasifik)’이라는 가공식품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⁴⁵⁾.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원료조달부터 소매에 이르는 식품산업의 수직통합모형을 전개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EU는 R&D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진출 기회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2003년부터 EU-아세안은 ASEM 양식플랫폼을 마련하여 정책 대화를 확대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Horizon 2020을 통해 산업체 연계, 소규모 양식업자 모범관리 사례 등 7개 분야에 대해 프로젝트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주로 수산물을 수입하는 EU, 일본을 중심으로 아세안의 수산분야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아세안 시장 선점이 우려된다. 셋째, 아세안의 수산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 또는 향후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아세안의 중소기업 육성은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과 관련있다. 아세안이 외국인직접투자 위주로 성장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⁴⁶⁾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장접근 및 국제화 촉진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략실행계획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근거하여 아세안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산·

45) 원양산업지, 제1034호, p.40, 한국원양산업협회, 2013.1.15

46) 아세안 역내 중소기업의 비중은 크지만 아세안 중소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58% 불과한. 아세안의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R&D,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자료 : KOTRA 아세안 중소기업, 우리 기업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2016.8.12.일자)

식품분야 중소기업의 출현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아세안에 진출한 수산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아세안에 기진출한 다국적기업, 아세안 역내 중소기업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6〉 아세안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전략실행계획(2016~2025)

전략목표	실행계획	리더
생산성, 기술, 혁신 촉진	· 생산관리 기술 개선 등을 통한 생산력 제고 ·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클러스터 강화	태국, 베트남
금융시장 진입장벽 해소	· 융자 촉진 제도 등 금융시장 접근 위한 제도 개발 ·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참여 능력 강화 위한 금융 포용성과 금융이해력 제고	말레이시아, 라오스
시장접근과 국제화 촉진	· 지역과 글로벌 시장의 정보 제공,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촉진, E-commerce 이용 촉진 등을 통해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진입 · 수출능력 향상	싱가포르, 태국
정책 마련과 규제완화	· 정부, 정부 간 협력 통한 정책과 규제 환경 보강 정책 마련 과정에 중소기업 참여 촉진 · 간소화된 인증·등록 시스템 개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인적자원 개발촉진	·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 개설 · 기술 지원 등을 통한 여성과 청년의 노동인구 참여 추진	브루나이, 필리핀, 미얀마

자료: 아세안 중소기업, 우리 기업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KOTRA, 2016.8.12. (검색일자 : 2016.9.24.)

나. 기회

첫째, 아세안 역내 수산물 교역 및 투자의 자유화이다. 역내 모든 회원국의 수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2018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지역 내 수산업과 연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점진적으로 투자 자유화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풍부한 수산자원과 수산가공기술 등 인프라 기반을 갖춘 국가를 중심으로 수산업의 생산 분업화 또는 수산물 생산기지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아세안 진출을 통해 풍부한 수산자원과 값싼 인력,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둘째, 아세안의 수산물 소비시장의 성장이다. 아세안 10개국의 1인당 GDP는 2009~2019년 연평균 8% 증가할 전망이고,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CLMV 국가의 1인당 GDP는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세안의 중산층 규모는 2009년 8,000만 명에서 2030년 4억 9,900만 명으로 약 5.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중산층 규모 대비 아세안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4.4%에서 10.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⁴⁷⁾ 이러한 아세안의 중산층 확대는 구매력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바, 아세안 수산물 소비시장을 세분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 5-7〉 아세안 국가의 1인당 GDP와 전망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09	2019	'09~'19 연평균
싱가포르	38.6	56.1	5.5
브루나이	28.2	42.2	4.6
말레이시아	7.2	11.1	8.4
태국	3.9	5.6	6.0
필리핀	1.9	2.9	9.8
인도네시아	2.3	3.4	7.1
베트남	1.2	2.1	9.6
라오스	0.9	1.7	10.8
미얀마	0.8	1.3	10.5
캄보디아	0.7	1.1	8.0

자료: 「아세안 시장이 떠오른다!」, 현대경제연구원, 15-05호, 2015.02, p.8. ‘아세안 국가의 1인당 GDP 현황과 전망’ 재인용

셋째, 중국의 평균 임금 수준 증가에 따라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심화되고, 아세안 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세안과 인접한 중국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대한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이들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즉, 아세안과 중국 남부 지역까지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아

47) 정민 외 「아세안 시장이 떠오른다!」, 현대경제연구원, 15-05호, 2015.02, p.8.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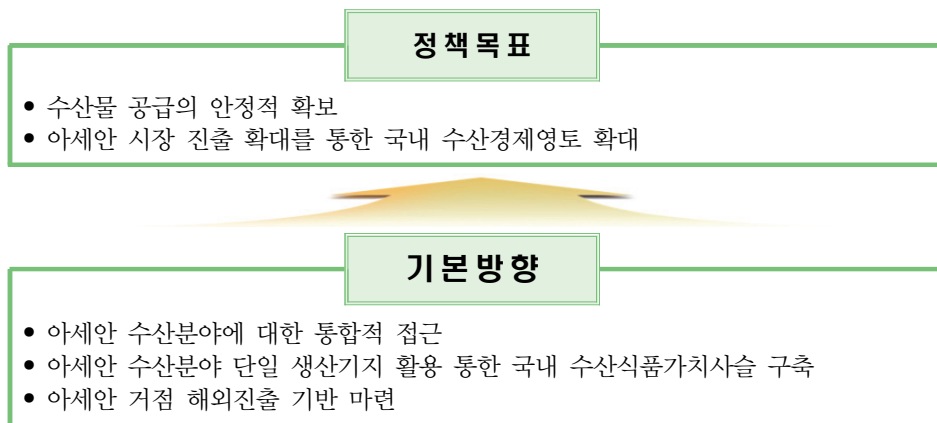
세안 진출을 통해 아세안과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아세안 국가들의 수산분야에 대한 경제협력 수요가 높다. 특히 양식 분야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세안은 양식어업의 생산 및 교역의 전방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Good Aquaculture Practice, GAqP)을 채택하면서 식품안전, 동물 복지 및 건강, 환경적 무결성(environmental integrity) 증진, 양식어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세안 10개국의 수산분야 발전 정도가 매우 상이하고,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 및 재원이 부족하다. 아세안의 이와 같은 협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아세안 진출 국내 기업을 위한 호혜적 분위기를 조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AEC 대응 수산분야 경제협력 기본방향

이상의 조사·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아세안경제통합에 대응한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경제협력의 정책 목표는 수산물 공급의 안정적 확보 및 민간부문의 아세안 진출 활성화를 통한 수산경제영토 확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아세안 수산분야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다. 둘째, 아세안 단일 생산기지 활용을 통한 국내 수산식품가치사슬 구축이다. 셋째, 아세안 거점 해외진출 기반 마련이다.

〈그림 5-6〉 AEC 대응 우리나라 수산분야 경제협력 기본방향



3. AEC 수산분야 통합 전략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아세안의 단일 생산기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개별 국가에 대한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아세안이 실현해 나갈 단일 시장을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큰 그림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세안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국가 간 인접성, 수산분야 관련 인프라 등을 고려해서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세안 수산 제1생산 거점과 아세안 수산 제2생산 거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림 5-7〉 아세안 수산 생산거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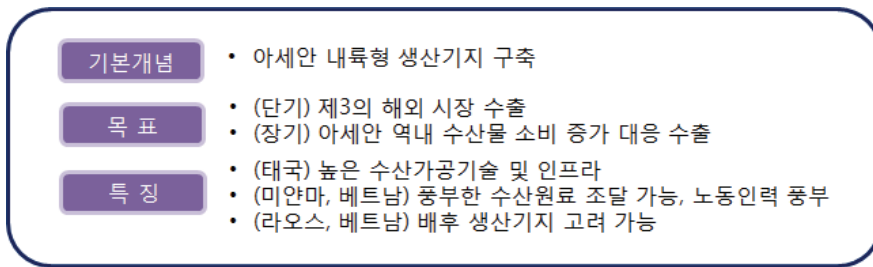
자료: 아세안사무국 홈페이지(<http://asean.org/>)의 아세안 지도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1) 태국 중심 수산 생산기지화

태국 중심의 수산생산기지는 아세안 내륙형 생산기지로 태국의 우수한 수산 가공기술과 수산 인프라를 활용하고 인접 국가로부터 풍부한 수산원료와 노동력을 공급받아서 생산·가공 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태국의 수산식품산업은 이미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과 관련한 네트워크도 잘 구

축되어 있다. 또한 타 아세안 국가와 비교할 때 현대화된 인프라와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태국과 인접한 라오스 또는 미얀마를 배후 생산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태국의 부족한 노동 인력을 인근 미얀마와 라오스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비숙련 노동인구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지만 실제 태국과 인접 국가 간 노동 이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시장 통합에 따라 노동력의 자유화를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상 품목은 해조류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고려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EU, 중국 등 제3시장으로의 수출을 지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세안 역내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림 5-8〉 아세안 수산 제1생산기지의 개요



자료: 저자 작성

2) 인도네시아 중심 수산 생산기지화

인도네시아 중심 수산 생산기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를 아우르는 아세안 제2의 수산생산기지이다. 제1생산기지와는 달리 섬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접근성이 어렵지만 수산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무슬림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세안 역내 무슬림 인구수가 2014년 2억 3천 명에서 2030년에는 2억 8천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할랄 식품에 포함되는 수산물 소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즉, 제2 생산기지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할랄 수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제 2 생산기지 중심의 수출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2생산기지는 냉동·냉장창고 부족, 도로 연계성 약화 등으로 생산 이후(post-harvest)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해 해당 분야의 인프라 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상 급속냉동, 드론을 이용한 운송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5-9〉 아세안 수산 제2생산기지의 개요

기본개념	• 아세안 해양형 생산기지 구축
목 표	• (단기) 제2의 생산기지 중심의(인니, 말련) 수산물 수출 • (장기) 중동 지역 등지로 할랄수산식품 수출
특 징	• 풍부한 수산자원 보유 • 할랄수산식품 소비의 메카
고려 품목	• 해조류, 새우류, 전복 등

자료 : 저자 작성

4. AEC 활용 극대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 전략

앞서 실시한 AEC 인식도 및 활용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투자는 합작투자로 나타났으며, 수산물 가공, 수산 물류 및 유통, 수산양식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아세안 시장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EU 등 제3시장으로의 수산물 수출 진출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세안 역내 수출 확대를 위해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3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1) 수산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아세안에 진출한 업체는 대부분 개인 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정책 금융 또는 민간 금융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충분한 담보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금융 활성화 방안을 지원해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사모펀드, 엔젤투자자(business angels),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등과 같은 모험자본(risk capital)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층의 수산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가칭) 수산청년전용창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국내 진출 기업의 우호적 경영 활동을 위한 ODA 활용

아세안에 기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지속가능한 경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산 ODA를 활용한다. 실제 아세안 지역 수산경제 발전 도모를 위해 단기적으로 소규모 냉동·냉장창고를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사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2025년 아세안수산비전이 제시한 아세안 양식어업 육성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아세안 수산분야 거버넌스 구축, 수산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 지원대상국으로는 KOICA의 유무합 통합 24개 중점협력국에 포함되면서 국내 원양어업관련사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당 ODA는 양자간 ODA사업으로 수행하는 방안과 우리나라 아세안 협력기금 또는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다자간 ODA사업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

3) 아세안 수산분야 시장 조사·분석 사업 통한 정보 제공 강화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산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상 국가의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체제, 식품규격, 안전 기준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아세안 사무국의 정책 변화 및 각 회원국의 입장 파악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아세안 수산분야에 대한 정보제공은 2-track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아세안 정부를 주축으로 한 수산분야 정책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수산분야 정보를 교환하고 각국의 수산분야 담당부처, 담당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둘째, 정책 대화를 통해 교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소와 학계를 중심으로 아세안 수산분야 시장 조사·분석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와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산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원양산업협회의 해외수산협력원이 제공하고 있는 국가 정보와 수산분야 투자 정보가 있지만, 이를 국가별·지역별·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수산환경 조사·분석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아세안에 진출 또는 투자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실질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AEC 활용 수산식품 가치사슬 구축 전략

1) 필요성

우리나라 수산업이 AEC를 활용한 수산식품 가치체인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수산물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원양어업이 해외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발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보존조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연안국들도 자원민족주의를 강화시키며 입어와 연계한 자국 내 투자 등 경제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메가 FTA 체결을 통해 수산물 수입 시장이 다변화되었지만 점차 수산물의 안전성, 환경적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 과정을 통제·관리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셋째, 국내 생산기반 약화에 따라 국내 수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국내 수산·식품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산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생산 체제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아세안은 매우 적합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우선 남태평양, 아프리카와 비교할 때 아세안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통해 풍부한 수산자원과 값싼 인력을 활용할 기회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세안의 경제성장에 따른 역내 수산물 소비 증대 가능성과 중국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아세안 수산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각 단계를 연계시키면서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소비자에게 더 큰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AEC 활용 수산식품가치사슬을 구축하는 것이다.

2) 세부 추진 전략

단계적으로는 아세안 거점 수산·식품 콜드체인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앞서 시행된 수산물 냉동·냉장창고 등 산업물자 지원 강화 사업을 기반으로 아세안 거점 수산·식품 콜드체인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양국 간 정책대화 및 아세안에 진출한 기업과 정부의 민관협의회를 활용하고, 대상국의 정책을 활용하면서 콜드체인, 수산·식품가공단지, 유통판매망 등의 수산·식품 인프라 정비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콜드 체인, 저온물류센터, 가공시설, 수산기자재 등과 같은 인프라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생산과 관련한 선도유지기술 개발, 품질관리기술 개발, 친환경생산과 관련한 규범 마련, 관련 인력 양성 등 소프트 인프라 구축은 수산 ODA 및 정부 R&D 사업으로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을 중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에는 아세안 수산·식품가치사슬 구축의 목적, 수산물 가치사슬의 정의, 기본방향, 중점 대상국, 인프라 구축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 되도록 한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AEC 출범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그리고 국내 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역내 수산분야 경제협력 상황을 살펴보았다. 1993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창설 이후 아세안은 역내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친 뒤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통해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우선통합산업으로 분류되는 아세안 수산업은 광범위한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철폐, 태국-미얀마, 태국-라오스 등을 중심으로 노동 인력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제통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위생·안전과 관련한 국제 규범 준수, 수산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아세안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다. 또한 아세안경제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하에서 이뤄진 아세안의 수산물 교역구조와 투자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수산물 교역에서 역내 수산물 교역은 전체 교역의 평균 13%를 차지하지만 수산물 역내 교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해 볼 부분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4개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아세안 역내 수산물 교역은 역외 수출을 위한 생산의 분업화 과정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세안의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로 인한 수산물 소비 증가도 향후 역내 수산물 교역의 증가를 유인할 것으로 추론되었다. 아울러 FDI 기준, 아세안에 대한 역외국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 EU, 일본, 중

국이 대표적인 투자국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역내 투자자유화 협정을 마련하고, 투자자유화를 위한 제조, 농업, 수산업 등 5개 산업과 이들 산업의 관련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자유화를 유도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산업과 수산 관련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역내 투자도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3장은 일본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아세안 수산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아세안경제공동체를 활용하기 위해 아세안과 활발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경우 균형 있는 민관협력을 통한 일본 기업의 아세안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가장 의미 있는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2015년 글로벌식량가치사슬 구축 전략이라는 큰 밑그림을 마련하고, 아세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 아세안에 기구축된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프라 사업, ODA, 할랄식품 허브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개별 아세안 국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일본 민간기업의 아세안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중 ‘21세기 新해상실크로드’ 구축이라는 거시적 구상하에 아세안 국가와 인접한 중국 남부 도시를 중심으로 수산분야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아세안 해양협력기금’ 등을 통해 수산물교류센터 설립, 어업기지 건설, 양식기술 이전 등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민간업체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의 경우 아세안 시장 통합을 활용코자 하는 경제협력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아세안과 FTA 체결 이후 수산물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수출입 품목이 대부분 원물단순가공으로 나타나 원료 확보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대아세안의 수산분야 투자는 원양어업에서 수산가공, 양식, 유통 분야로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투자는 중소기업 위주의 단독 투자가 이뤄지고 대기업의 투자 및 현지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현지에서 수산물을 수집, 국내로 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가 많고 아세안 현지에서 생산을 통한 역내 수출이나 중국, 미국 등 해외 시

장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기업의 단독투자에 따른 소규모 투자 및 정보 부족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세안 단일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 미흡으로 나타났다.

제4장은 국내외 수산물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조사와 향후 아세안 시장의 활용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한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응답업체는 아세안의 경제통합으로 수산분야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 교역 확대 및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망 투자 분야는 수산가공과 유통·물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응답업체는 아세안의 수산원료 확보, 값싼 노동인력 활용, 간소화된 통관절차 등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이점을 활용하여 제3국의 해외 시장 수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즉, 아세안에서 수산물의 생산·가공 후 중국, 미국 등 거대 수산물 소비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단일 시장의 이점을 활용한 수산물 생산 거점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의 수산물 생산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다국적기업의 식품가치사슬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세안 지역의 수산물 소비 시장 확대에 대응해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업체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는 점이다. 향후 아세안경제공동체 인식 제고, 아세안 시장의 효과적 활용 방안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과 점진적 확대 그리고 수산기업을 위한 금융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5장은 아세안 수산협력 추진과 관련한 관련 제도와 정책 검토를 통해 수산분야 경제협력 여건을 분석하고 SWOT 분석을 토대로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과 관련한 국내 수산업의 위기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즉, 수산물 공급의 안정적 시장 확보와 아세안 시장 진출을 통한 수산경제영토 확대라는 정책 목표 수립하에 아세안 수산경제협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 아세안 단일 생산기지 활용을 통한 국내 수산식품가치사슬 구축, 아세안 거점 해외 진출 기반이라는 3대 경제협력 방향을 제

시하고 6대 세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2. 법·제도 정비

1)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의 개정

해외수산시설투자 용자사업을 통해 아세안 지역 양식, 수산가공산업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개별업체의 담보 부족이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업체의 담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 활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⁴⁸⁾을 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 보증 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⁴⁹⁾의 제2조 정의에 따라 “농업인, 어업인, 원양어업자, 농림수산물유통가공업자,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업자, 농림수산물기자재 제조업자”⁵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자⁵¹⁾는 보증기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해외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⁵²⁾을 일컫는 원양어업관련사업자는 보증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 정의 부분의 3호 내용을「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 및 제3호에 따른 원양어업 및 원양어업관련사업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해외수산시설투자 용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투자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48)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음

49)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 정의 인용

5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누가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인용 (<http://www.nongshinbo.com/>), (검색일자 : 2016. 9.30.)

5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의거,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5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3 인용

3) 수산분야 민간투자 실태 파악 위한 통계 구축

대아세안 수산분야 민간진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진출 또는 투자 실태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승인통계인 “원양어업통계조사”는 그 대상이 “원양어업 허가 선박 및 보유 단독 기업체 중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⁵³⁾로 원양어업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통계조사 및 (특)원양산업협회를 통해 진출대상국가, 투자분야, 투자규모, 해외 합작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경우 원양산업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원양산업통계연보」를 통해 원양산업의 생산, 수출, 원양어업 경영체 추이 등을 파악할 있으나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원양산업통계연보」에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조사 항목으로는 원양어업관련기업체 수, 회사 규모, 진출 지역, 진출 분야, 투자 금액에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원양어업뿐만 아니라 원양어업관련사업체를 포함하는 원양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실태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투자 활성화 정책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3) 아세안 수산식품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아세안경제공동체를 활용한 수산식품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은 원양산업발전법 4조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근거할 수 있다.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서 수산식품가치사슬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권역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고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아세안을 우선 고려한다.

기본계획에는 수산식품가치사슬 구축의 목적, 수산식품가치사슬의 정의, 기본방향, 중점 대상국, 인프라 구축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53) 「2016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 단독기업체 결과」 해양수산부, 2016, p. 8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식품가치사슬 구축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 및 성공 전략 등에 대한 사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3. 거버넌스 및 조직 정비

1) 거버넌스 구축

현재 아세안에 진출한 국내 수산 기업은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세안에 기진출한 다국적 기업 또는 다수의 기업이 진출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세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관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및 관계 기관은 수산기업의 대아세안 진출 또는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담당하고, 학계와 연구소는 아세안 시장에서 비즈니스 전개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제공, 컨설팅 및 자문, 수산 연구, 기술개발 등을 담당한다.

(1) 아세안 다양성 고려한 국내 산학연 전문가 풀(POOL) 구성

국내 수산업의 아세안 해외 시장 진출 도모 및 기진출 기업의 효과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다양성을 고려해 수산 전문가, 아세안 지역 경제 전문가, 종교, 문화 분야의 전문가 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세안에서 활동하는 명예해양수산물, 아세안 기진출 업체를 포함한 ‘(가칭) 수산분야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아세안 분야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국내 수산업의 아세안 진출 또는 아세안경제공동체 활용 추진을 지원한다.

(2) 아세안 진출 지원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컨설팅 제공

아세안을 비롯한 해외 시장 진출 시 노무관리, 법률문제, 조세제도, 금융 및 보험제도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산관학연 풀(POOL)을 활용하여 희망 업체가 요청하는 컨설팅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을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사용자 중심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현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투자상담센터를 통해 해외 투자 초기 단계의 종합 상담과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수산분야에 전문화된 컨설팅을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3) 한-아세안 수산식품 기업인 협의체 구성

가칭 「한-아세안 수산식품 기업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수산기업간 진출 지원, 시장 정보 교환, 통상규제 완화를 위한 건의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아세안 수산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직 정비

(1) 「(가칭) 아세안 수산협력센터」 설립

아세안 국가와 수산물 교역 또는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목표 대상 국가의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체제, 식품규격, 안전 기준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아세안사무국의 정책 변화 및 각 회원국의 입장 파악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아세안 정부를 주축으로 수산분야 정책대화 개최와 아세안 수산분야 시장 조사·분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은 중장기적으로 (가칭) 아세안 수산협력센터가 담당한다.

(가칭) 아세안 수산협력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 국가 수산 환경 조사지원 사업이다. 아세안 국가의 수산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아세안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어업인 및 기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산분야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수요자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원양산업협회의 해외수산협력원이 제공하고 있는 국가 정보와 수산분야 투자 정보가 있는데, 이를 국가별, 지역별, 업종별로 세분화한 수산 환경 조사·분석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아세안

국가의 수산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세안 국가 간 수산분야 정책 대화(policy dialogue) 개최를 추진한다. 우리나라와 수산물 교역이 많은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과 정책대화를 우선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아세안사무국의 아세안경제공동체부(ASEAN Economic Community Department) 식품농림국(Food, Agriculture & Forestry Division)과 정례적 정책대화 개최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아세안사무국 중심의 정책 논의 동향과 변화를 분석하고 각 회원국 수산분야 정책입안자간 대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한-아세안 수산식품 기업인 협의체에서 논의된 비관세 장벽 등 통상규제 완화, 한-아세안 수산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

(2) ‘(가칭) 한-아세안수산협력센터’ 국제기구 설립 검토

한-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가칭) 한-아세안수산협력센터’ 국제기구 설립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아세안 수산분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아세안 수산비전 2025’에서 제시된 CLMV 국가의 양식어업 역량 강화, 생태계 접근 양식어업 기반 마련 등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아세안 수산정보사업, 수산관련 투자 촉진, 수산분야 인적 교류 사업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아세안 수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화하고, 아세안에서 이뤄지는 국내 수산기업의 투자 활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칭)한-아세안수산센터 설립과 관련된 재원은 한-아세안 협력 기금의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2015년 1월 기준 아세안에 700만 달러가 공여되었으며, 한-아세안 개발협력, 기술이전, 인적자원 개발 및 교류에 지원될 수 있다. 또한 기구 설립을 위한 아세안 10개국과의 양자회담 및 실무협상 추진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간 국제기구인 한-아세안 센터, 한-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한-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는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차원에서 시작되었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동남아 국가들이 우선 대상 지역이다. 동 국제기구는 산

림청이 주무부처이고 예산집행권, 인사권, 법률제청권 등이 모두 농림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예산은 국제기구 분담금과 자발적 기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연간 예산은 약 70억 원 정도이다.

4. R&D 지원

(1) 아세안 수산 부문 연구조사 사업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는 중소기업 위주의 단독 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충분한 시장정보를 가지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세안진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 수산 부문 연구조사 사업은 크게 2-track 즉, 아세안 사무국의 수산정책 모니터링과 아세안 국별 조사사업으로 구분해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아세안 국별 조사에는 수산정책, 교역, 투자, 소비, 다국적 기업의 진출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아세안을 권역별로 구분한 수산 부문 시장조사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불교권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 또는 아세안 수산 발전 정도에 따른 아세안-6 국가와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CLMV 국가로 구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2) 아세안 수산물 소비 맞춤형 제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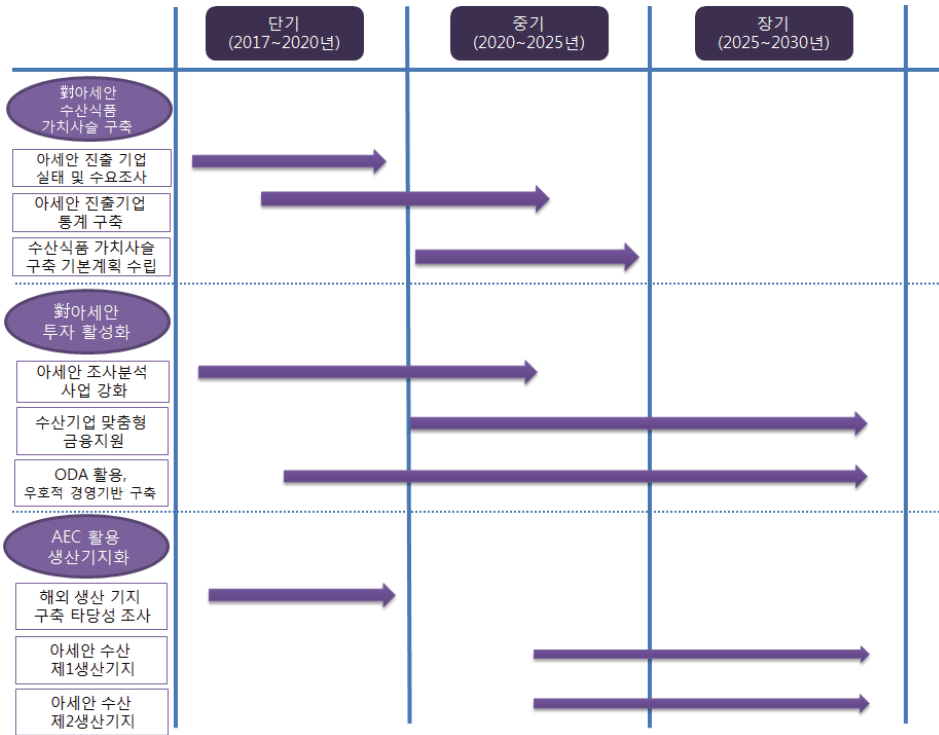
아세안 수산물 소비 맞춤형 제품 개발은 아세안의 소득 증가에 따른 수산물 소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아세안에 진출한 국내 수산기업은 현지에서 수집된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 또는 수출하는 데 그치고 있고, 아세안 현지 수출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해당 사업은 앞서 제시된 아세안 수산 부문 연구조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수산물 소비 특징 및 트렌드에 관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현지 맞춤형 수산물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5. 추진로드맵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대응하여 경제협력의 추진 로드맵은 크게 단기(2017년~2020년), 중기(2020년~2025년), 장기(2025년~2030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기에는 대아세안 수산·식품 가치사슬 구축과 관련해 제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첫째, 아세안 진출 수산기업의 대상국가, 진출유형, 진출분야, 진출국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아세안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조사연구를 실시한다. 둘째, 아세안 진출기업에 대한 통계 구축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원양산업통계연보에 조사 항목의 추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과 조직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아세안에서 수산식품 가치사슬 구축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20년~2025년 중기에는 대아세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을 정비한다. 2017년부터 아세안 수산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사업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아세안의 미래 시장 가치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킨다. 둘째 수산기업의 국내외 금융 이용 실태를 연구조사하고, 수산기업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우호적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산 ODA를 확대해야 하는데, 우선 고려 대상국은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될 수 있다. (가칭) 한-아세안 수산·식품 기업인 협의체 등을 통해 수산 ODA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생산기지 구축 타당성 조사, AEC를 활용한 생산기지 구축을 고려한다.

〈그림 5-10〉 AEC 대응 수산분야 경제협력 추진 로드맵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강영문,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협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6(2), 3-22, 2014.
- 공병호, 「김재철 평전 파도를 헤쳐온 삶과 사업 이야기」, 21세기북스, 2016
- 공재형, 「아세안경제공동체 통상환경이 캄보디아 농산물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7(2), 169-186, 2016.
- 곽성일 외,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15-17, 2015.
- 곽성일 외,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오늘의 세계경제」, 1-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김완중, 「ASEAN 역내경제협력 효과 분석: 역내교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9(3), 221-260, 2009.
- 나희량,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아세안 역내무역 분석 및 시사점: EU, NAFTA, MERCOSUR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5(1), 31-84, 201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싱가포르무역관, 「아세안 중소기업, 우리 기업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2016.
- 삼성경제연구소 「아세안 경제 공동체 추진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12.
- 외교부, 한·아세안 FTA 협정문, FTA 강국, Korea, 2007.
- 외교부 외, 「한눈에 보는 아세안경제공동체」, 2016.
- 이문형, 「중국, 뉴실크로드 건설 전략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5.
- 정민 외, 「아세안 시장이 떠오른다」, 현대경제연구원, 15-05호, 2015.
- 주아세안대표부, 「2015 아세안 통합 보고서 요약」, 2015.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지, 제1034호, 2013.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과 시사점」, 2015.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할랄식품의 시장동향과 수산물 수출 활용 방향, 해외시장정보 이슈 분석 Vol. 01.」, 2015.
- _____, 「2016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자료집」, 2016.
- 한-아세안센터, 「아시아의 꿈, 아세안 공동체를 말하다」, 2016.
- 해양수산부, 「2015년도 해외수산시설투자 집행지침 및 사업추진현황」, 2015.
- _____, 「2016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 2016.
- _____, 「16년도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로드맵」, 2016.
- _____, 「2017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17.
- _____, 「2016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 단독기업체 결과」, 2016.
- 해외수산협력원, 「해외수산 관련 지원현황」 발표자료, 2016.

〈영문 자료〉

- ASEAN Secretariat, *ASEAN Economic Community at a Glance*, ASEAN, 2016
(http://asean.org/storage/2015/11/AECat-a-glance-2016_web_version2.pdf)
- _____, *A Blueprint for Growth,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Progress and Key Achievements*, 2015.
- _____, *ASEAN Community in Figures(ACIF) 2015*.
- _____, *ASEAN Integration Report 2015*, 2015.
- _____, *ASEAN Vision 2020*, 1997.
- _____, *ASEAN Framework Agreement for the Integration of Priority Sectors*, Vientiane, 29th, November 2004.
- _____,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2009.
- _____, *ASEAN Community in Figures(ACIF)*, 2015
- _____, *Cha-am Hua Hin Declaration on the Roadmap for the ASEAN Community (2009-2015)*, 2009.
- _____, *Roadmap for Integration of Fisheries Sector, Appendix 1 to the ASEAN Sectoral Integration Protocol for Fisheries*, 2003.

____, *Strategic Schedule for ASEAN Economic Community*,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08

____, *The Strategic Action Plan for SME Development for 2010-2015*

FAO,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16*, 2016.

Gao Fu Mao, *China Targets ASEAN to Sustain Seafood Export Growth*, Jan 13 2015, SeafoodSource.com,

(<http://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27517-china-targets-asean-to-sustain-seafood-export-growth>)

Hou Weili, *Spearheading Maritime Initiatives*, Dec 28 2014, Beijing Review.

(http://www.bjreview.com.cn/print/txt/2014-11/28/content_655719_2.htm)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Japan, *The Global Food Value Chain Strategy : Promoting The Global Food Value Chain Strategy*, June, 201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mplementation Plan of the Vision Statement on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 Shared Vision, Shared Identity, Shared Future*, ASEAN, December 2013, Tokyo, December 2014.

Mission of Japan to ASEAN, *Japan's cooperation towards the AEC*, September, 2015.

OECD,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2016 : Enhancing Regional Ties UPDATE*, 2016.

Rui Hao Puah, *China and Brunei's Growing Economic Ties*, July 8 2016, The Diplomat, (<http://thediplomat.com/2016/07/china-and-bruneis-growing-economic-ties/>)

Sisira Jayasuriya, *Skeleton Overall Report, The 2nd Meeting of ASEAN Ad-hoc Task force on Developing New Vision o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towards 2020*, 18 July, 2014.

〈중문 자료〉

康霖 罗亮. 「中国—东盟海上合作基金的发展及前景」, 《国际问题研究》2014年第5期, 2014.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2015.

〈온라인 자료〉

- 구글지도 (<http://maps.google.com>)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홈페이지
- 국제문제연구(国际问题研究)(http://www.ciis.org.cn/gyzz/2014-10/14/content_7294831.htm)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http://www.nongshinbo.com/>) 홈페이지
- 네이버 매일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50&cid=43659&categoryId=43659>)
- 매일경제, 「육·해상 新실크로드 60개국 참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97454>)
-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jsp/dp/pr/pr_year_nat_list.jsp?menuDepth=040305)
- 아세안사무국 홈페이지 (<http://asean.org/>)
- 중국 농림부 홈페이지 (www.amic.agri.gov.cn/)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www.mofcom.gov.cn/)
- (<http://www.mofcom.gov.cn/article/i/dx/wjlyd/201601/20160101243342.html>)
- 중국·아세안수산물교역센터 홈페이지 (<http://www.campe.com/>)
- 한국국제협력단 통계 (<http://stat.koica.go.kr/>)
-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무역통계서비스 (<http://www.trass.or.kr/service/statistic/StatisticsViewServlet?mainServiceURL=P09M01D010>)
- 한국원양산업협회 (<http://www.kosfa.org/>)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 한-아세안센터 블로그 (<http://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hn?blogId=akcsns>)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index.do>)
- ASEANstats 홈페이지 (<http://asean.org/resource/statistics/asean-statistics/>)
- CJ 제일제당 홈페이지, 생물자원사업 (<http://www.cj.co.kr/cj-kr/businesses/5/menus/26/html>)
- FTA 강국, KOREA (www.fta.go.kr)
- Global Trade Atlas (<https://www.gtis.com/gta/>)

KOTRA 해외시장뉴스, “아세안 중소기업, 우리 기업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51271)

ODA 정보포털 (<http://www.oda.go.kr/opo/masc/mainPage.do>)

부 록

ID

www.kmi.re.kr 우)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51-797-4553)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과
수산기업의 대응 관련 설문조사

2016062801-0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대응 수산협력 방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 지역과 수산물 교역을 하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는 기업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아세안 지역의 진출 전략 또는 교역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조사는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조사에 참여에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16. 7

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리서치앤리서치(R&R)
 사항 연구담당자: 정명화 전문연구원(051-797-4572) 실사담당자 : 송미라 차장 (02-3484-3080)

응답자 정보

SQ1. 사업체 구분	귀사의 기업 형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십니까? 1) 개인기업 2)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미만) 3)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SQ2. 수출입 여부	귀사는 해외로 수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십니까? 1) 그렇다 ☐ Q01번으로 2) 아니다 ☐ 조사 중단

PART A. 기본 사항

Q01. 귀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 수산물 수출 2) 수산물 수입 3) 수산물 가공
4) 수산물 유통 5) 기 타 ()

Q02. 귀사의 2015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 명

Q03. 귀사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 만원

Q04. 귀사는 주로 동남아 어느 국가와 교역을 하고 계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 태국 2) 베트남 3) 인도네시아 4) 말레이시아
5) 필리핀 6) 미얀마 7) 싱가포르 8) 브루나이
9) 캄보디아 10) 라오스 11) 교역하는 동남아 국가 없음 **→ Q07번으로 이동**

Q05. 귀사는 동남아 국가와 교역관계는 어떠한가요? (복수 응답 가능)

- 1) 동남아에 수출 **→ Q05-1로 이동** 2) 동남아국가로부터 수입 **→ Q05-2로 이동**
3) 현지생산 후 한국으로 수입(반입) 4) 현지생산 및 현지유통
5) 현지생산 후 해외수출 6) 지분협력을 통한 투자

Q05-1. 귀사가 동남아 지역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 어류 2) 해조류 3) 수산가공식품
4) 수산종묘 5) 수산기자재 6) 기타 ()

Q05-2. 귀사가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 어류 2) 해조류 3) 수산가공식품
4) 수산종묘 5) 수산기자재 6) 기타 ()

Q06. 귀사는 동남아에 해외법인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PART B.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인지 및 영향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정의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킴
- AEC는 아세안 지역의 역내 경제통합을 의미하는 것임
- 단일 생산기지와 소비기지 구축, 경쟁력있는 경제블록 구축, 균형 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세안경제공동체 시장은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 수산업, 유통, 관광/여행 등 12개 분야를 우선통합분야로 선정·추진하고 있음
- 아세안시장은 AEC 등 시장통합으로 아세안회원국간 교역 시 전체 상품의 99%가 무관세로 거래됨
- 아세안 역내 교역시 수산물의 99%는 관세가 철폐되었음

Q07. 아세안은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켰습니다. 귀하께서는 AEC를 알고 있거나 관련 정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1) 알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 **→ Q07-1로 이동**
- 2) 알고 있으나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 Q07-1로 이동**
- 3) 알지 못하고, 관련 정보도 없다 **→ Q08로 이동**
- 4) 관심없다 **→ Q08로 이동**

Q07-1. 귀하께서는 아세안 지역의 AEC 출범에 관한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1) 정부 또는 유관기관(대사관, KOTRA, 관세청 등)을 통해서
- 2)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서
- 3) 관련 업계 및 지인을 통해서
- 4) 기 다 ()

Q08. AEC 출범이 귀사(현지법인 포함)의 경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영향이 매우 큼 2) 영향이 다소 큼 3) 변화 없음
- 4) 영향이 별로 없음 5) 영향이 전혀 없음

Q09. AEC는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기반 구축, 경쟁력 갖춘 경제블록, 균형 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EC의 추진 정책 중 귀사의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보 기	1) 역내 관세 철폐	2) 비관세 장벽 철폐	3) 역내 서비스무역 자유화
	4) 규격·표준 통일과 상호인증	5) 역내 인력 이동의 자유화	6) 역내 무역 원활화
	7) 역내 투자 자유화	8) 지적재산권 보호	9) 경쟁정책 강화
	10) 소비자보호 및 이종과제 방지	11) 역내 인프라 연계성 강화	12) 기타 ()

Q10. 귀하께서는 단일 경제공동체 출범으로 동남아 지역 중 어느 국가의 수산분야 경쟁력이 더욱 강화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보 기	1) 아세안 국가 → Q10-1로 이동	2) 일본	3) 중국 4) 한국 5) 기타

Q10-1. 귀하께서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으로 다음 중 어느 국가의 수산분야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태국 2) 베트남 3) 인도네시아 4) 말레이시아
- 5) 필리핀 6) 미얀마 7) 싱가포르 8) 브루나이
- 9) 캄보디아 10) 라오스

PART C. AEC의 활용

Q11. 귀사는 향후 5년 이내에 동남아 국가와의 교역확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 1) 계획하고 있다 **→ Q12번으로 이동**
- 2) 계획하고 있지 않다 **→ Q20번으로 이동**

Q12. AEC 출범으로 인해 귀사가 아세안 국가에 수산물 수출시 예상되는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 2) 혜택이 다소 줄어들 것 3) 현재와 같을 것
4) 혜택이 조금 늘어날 것 5) 혜택이 매우 늘어날 것

Q13. AEC 출범으로 인해 귀사가 아세안 국가에 수산물 수출시 어떤 혜택이 예상되십니까?

- 1) 시장 단일화에 따른 아세안 역내 국가와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다.
2) 시장 단일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장 단일화에 따른 아세안 회원국 간 수산물 통관절차가 통일될 것이다.
4) 아세안-중국시장과의 연계성이 증가하여 중국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다.
5) 기 타()

Q14. AEC 출범으로 귀사가 아세안 국가에 수산물 수출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애로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 2) 애로사항이 줄어들 것 3) 현재와 같을 것
4) 애로사항이 조금 있을 것 5) 애로사항이 매우 클 것

Q15. AEC 출범으로 귀사가 아세안 국가에 수산물 수출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 1) 중국, 일본 등 제3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2) 아세안 역내 다국적기업 수산 제품과 가격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다
3) 아세안 역내 국가와 다른 통관 절차로 차별이 예상된다
4) 아세안 역내에서 낮은 국가 인지도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5) 기 타()

Q16. AEC 출범으로 인해 귀사가 아세안 국가에 수산물 수입 시 예상되는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 2) 혜택이 다소 줄어들 것 3) 현재와 같을 것
4) 혜택이 조금 늘어날 것 5) 혜택이 매우 늘어날 것

Q17. AEC 출범으로 향후 아세안 국가에서 귀사가 수산물 수입 시 어떤 혜택이 예상되십니까?

- 1) 아세안 지역 내 생산 규모화에 따른 물량 확보가 용이해 질 것이다.
2) 아세안 지역 내 생산 규모화에 따른 수입원가가 인하될 것이다.
3) 아세안 지역 내 연계성 증가로 물류비가 절감될 것이다.
4) 다양한 수입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 타 ()

Q18. AEC 출범으로 아세안 국가에서 귀사가 수산물 수입 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애로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2) 애로사항이 줄어들 것이다 3) 현재와 같을 것이다
4) 애로사항이 조금 있을 것이다 5) 애로사항이 매우 클 것이다

Q19. AEC 출범으로 인해 귀사가 향후 아세안 국가에서 수산물 수입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수입 수산물 물량 확보의 어려움
2) 수산물 관세 차별(아세안 역내에서 수입시 관세 0%, 국내 수입시 수입관세 적용)
3) 통관 등 비관세 장벽
4) 수산인프라 부족(냉동냉장 창고 등)
5) 유통·물류체계의 비효율성 6) 기타 ()

Q20. 귀사는 향후 5년 이내에 동남아 지역에 신규 투자 또는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 1) 계획하고 있다. **→ Q20-1로 이동**
2) 계획하고 있지 않다. **→ Q21로 이동**

Q20-1. 귀사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는 어느 분야입니까?

- | | | |
|----------|----------|----------------|
| 1) 수산양식 | 2) 수산가공 | 3) 수산물 물류 및 유통 |
| 4) 수산 종자 | 5) 수산 사료 | 6) 수산기자재 |

Q20-2. 귀사가 동남아 지역에 투자를 계획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아세안 지역을 발판으로 중국, 미국 등으로 수산물 수출 확대를 고려하고 있어서
- 2) 아세안 지역의 수산물 소비 시장의 확대 가능성 때문에
- 3) 아세안 지역의 우수한 수산가공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 4) 값싸고 풍부한 노동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 5) 기 타 ()

Q20-3. 귀사가 계획하는 투자는 어떤 형태입니까?

- 1) 단독투자 2) 합작투자
3) 해외법인 설립 4) 기 타 ()

PART D. 정책 수요 및 향후 계획

Q21. 귀하는 아세안의 수산분야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음 2) 발전가능성이 높은 편임
3) 발전가능성이 약간 있음 4) 발전가능성이 낮음
5) 발전가능성이 전혀 없음

Q22. 귀하는 향후 아세안 국가와의 수산물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 1) 점차 확대 2) 현재 상태 유지
3) 점차 축소 4) 모르겠다

Q23. 귀사가 향후 계획하는 교역 또는 투자 확대를 위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까?

- 1) 이미 전략을 마련하였다
- 2) 현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3) 조만간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 4) 전략을 수립하지 않을 것이다

Q24. 귀하는 아세안 국가와의 수산물 교역 시 가장 어려우신 점은 무엇입니까?

- 1) 아세안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 2) 이질적 문화로 인한 상행위의 어려움
- 3) 높은 비관세장벽
- 4) 바이어 매칭
- 5) 협력 네트워크의 부족

Q25. 앞으로 아세안 시장과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비관세장벽 완화
- 2) 아세안 수산 시장 정보조사 사업
- 3) 아세안 역내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한 R&D 강화
- 4) 민간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ODA 사업 확대
- 5) 아세안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민간 협력사업 확대
- 6) 기타 ()

Q26. 앞으로 아세안 시장과의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해외수산시설투자 용자사업의 확대
- 2)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과의 매칭펀드 조성
- 3) 수산기업 맞춤형 금융 제도 개편(담보제공 방법 등)
- 4) 민간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사업(PPP 사업) 확대
- 5) 기 타 ()

 민관협력사업이란(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간의 자원,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 경제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모델임

DQ1. 사업체 명 ()

DQ2.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1) 사원~과장
- 2) 차장/부장/팀장
- 3) 임원

DQ3. 귀하께서 현재 소속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 1) 마케팅/기획
- 2) 재무/인사
- 3) 생산
- 4) 영업
- 5) 연구 개발
- 6) 일반 사무
- 7) 기타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2016年 12月 29日 印刷

2016年 12月 31日 發行

편집검
발행인

양 창 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전 화

051-797-4800 FAX : 051-797-481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주)디자인월드 Tel : 051-916-1533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02-394-0337

정가 15,000원